

국내 건축문화의 해외홍보방안 연구
- 출판·전시 분야를 중심으로

Promoting Plans and Proposing Policies for Public Relations of Korean Architecture

조준배 Cho, Jun Bae
엄운진 Um, Woon Jin
임현성 Lim, Hyun Sung

(a u r i

국내 건축문화의 해외홍보방안 연구 - 출판·전시 분야를 중심으로

Promoting Plans and Proposing Policies for Public Relations of Korean Architecture

지은이: 조준배, 엄윤진, 임현성

펴낸이: 은영태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385-2008-0005호, 인쇄: 2009년 2월 26일, 발행: 2008년 11월 30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 아크로타워 B동 301호

전화: 031-478-9600, 팩스: 031-478-9609

<http://www.auri.re.kr>

가격: 8,000원, ISBN: 978-89-93216-23-3

발간물번호: AURI-정책-2008-2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

- ▮ 연구책임 조준배 · 부연구위원
- ▮ 연구진 엄운진 · 연구원
 임현성 · 연구원
- ▮ 조사원 박설미 · 한양대학교 졸업
- ▮ 연구심의위원 유광흠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주심)
 권영상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김진욱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박인석 · 명지대학교 교수
 배형민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연구요약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는 지구촌이라는 말을 넘어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세계·지방화(glocalization)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국가 및 지자체간의 국제 교류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국가 간 해외시장진출 경쟁의 심화로 국제 경쟁력 향상 및 제고가 중요해진 이 시점에서 이제는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의 생존 전략으로서 해외 홍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해외 홍보란 다양한 국가 및 지자체 간의 글로벌 네트워크 연결을 의미하며 일방향의 홍보라기보다는 쌍방향 교류 또는 다방향 협력의 의미 모두를 포함한다.

이러한 세계화·정보화시대의 적극적 대응으로 건축분야에서도 과거의 건설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정부가 주도하는 건축 문화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데 이미 네덜란드, 핀란드, 스코틀랜드 등 선진국들은 자국의 건축문화 또는 생활공간 환경의 질 향상과 국제적인 건축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주도의 건축정책을 수립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도 2007년 12월 국토해양부 발의에 의한 건축기본법의 제정으로 건축문화의 진흥을 통해 국민의 건전한 삶 영위와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건축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와 관련분야의 정책적 지원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 부처별 국제문화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건축문화에 대한 정책과 사업이 전무하며, 건축기본법 제정을 통해 건축문화의 해외홍보 기반은 마련된 상태이나 아직 해외 홍보를 위한 체계적인 기구나 조직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축문화의 해외 홍보를 위한 기초 연구의 긴급성을 자각하여 첫째, 건축문화정책 중 해외홍보의 방향 설정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현황과 사례 분석을 통해 구체적 실천 방안을 도출하여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문화전반의 국제 교류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기관 및 단체 그리고 민간기관의 업무 내용 및 역할을 분석하고 현 건축문화 해외홍보의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해외 선진 국가들의 건축정책과 국가 간 연계를 통한 해외 홍보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시사

점을 도출하고 해외 홍보 정책의 주체별 실천방안의 작성을 통해 정책의 전체 구조 틀을 마련하였다. 홍보사업 방안에 있어서는 선정된 주요 분야의 현황 및 사례 분석을 통해 건축문화 해외홍보 사업의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화 또는 건축문화 국제 교류를 위한 국내 정책의 동향과 현황 분석

현재 국제문화교류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및 국토해양부의 정책적 특징과 주요사업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공공기관 및 단체로는 국제 교류에 관련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교류지원에 관련하여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콘텐츠 개발 관련에 대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특징과 주요사업을 파악하여 건축문화 해외 홍보의 현황과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민간기관으로는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에 대한 기관의 목적과 업무를 파악하여 그 중 국제 교류 관련 주요사업을 분석하였다.

2. 해외 건축문화 국제 홍보 사례조사

국가별 사례로서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핀란드의 건축정책에 나타난 해외홍보 전략 및 관련 기구의 역할을 조사/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그 외에도 국가 간 해외 홍보 사례로 범국가적 기구를 통한 해외협력현황과 국제적 연계 프로젝트를 통한 해외교류 업무 및 역할을 분석하였다.

3. 건축문화 해외 홍보를 위한 정책의 방향

사례조사 대상을 바탕으로 국내외 건축문화의 해외홍보를 위한 전략을 분석하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주체별/ 단계별 해외홍보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4. 해외홍보를 위한 주요 분야별 사업 기본 방향 및 추진 방안

해외홍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 방향 제안을 위해 현 상황에서 우선적인 육성을 통해 전략적·효율적으로 추진 가능하며, 국제 교류에 있어 역량이 취약하나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상대적으로 기대효과가 큰 홍보 분야로 ‘출판’ 과 ‘전시’ 를 선정하여 우선추진과제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현황 조사와 실천 방안을 모색하였다.

앞의 연구 내용들을 토대로 도출한 건축문화 해외홍보 정책의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건축문화 전문 기관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해외 홍보 시 필요한 전문성과 차별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공공주체들이 상호 연계되어 종합적인 홍보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제교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둘째, 민간이나 공공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획에서 국제 교류에 이르기까지 진행 단계별 매뉴얼과 효율적 실행 방안을 설정하여 해외 교류를 고취시키기 위한 홍보 프로세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국가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건축문화 교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들을 긴밀하게 연계하여 해외홍보가 단편적이고 일시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문화 산업의 해외 진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건축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주요 분야별 추진 방안 중 출판을 통한 국내 건축문화 해외 홍보의 기본 방향으로는 공공기관의 해외 출판 지원 및 배급망 확보, 관련기관 설립을 통한 지원체계 마련과, 출판 콘텐츠 및 추진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련 산업 분야의 기초 인력 양성 추진을 제안하였다. 그 외에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기획 프로세스로서 관련기관이 도서 주제 및 비평가

선정, 출판사 접촉 등에 관한 총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출판 기획이 단독적으로 수행되기 보다는 타 분야와 연계함으로서 전시, 아카이빙, 연구 등과 함께 종합적 기획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전시를 통한 국내 건축문화 해외 홍보의 기본 방향으로는 공공의 주도하에 체계적인 해외 전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관련 전문기관을 기반으로 한 건축 전시회의 기획, 전문가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건축 전시를 위한 통합 기획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건축 전시와 관련된 정보(전시 주제 및 작가 발굴과 큐레이터 접촉, 예산 확보, 전시장 기본 계획, 사전 홍보, 전시 간행물 발간)를 진행 프로세스별로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출판 분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홍보 전략과 연계한 전시 사업 방안을 모색하여 국제홍보라는 목표 아래 여러 분야들이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는 종합적 기획·실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로는 출판과 전시에 대한 현황과약을 토대로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 전략을 제시한데 있다. 또한 연구의 결과로서 출판과 전시에 대한 건축정책의 중점추진과제와 실천 과제를 우선 추진과제 및 중장기 추진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건축문화 해외 홍보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건축문화 전문기관 설립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기타 홍보 매체인 영상과 웹 기반의 유형이나 기타 국제 세미나, 포럼 등에 관한 전략은 향후 후속과제를 통해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

향후에는 본 연구소에서 제시한 해외홍보 실천과제의 일부를 연구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보다 실천적인 과제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다.

주제어: 건축문화, 해외홍보, 건축출판, 건축전시

차례

I. 서론	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방법	6
3. 선행 연구 검토	7
1) 선행 연구 현황	7
2) 주요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7
4. 연구 주요내용	9
1) 연구 내용	9
II. 건축문화의 해외홍보를 위한 국내외 사례분석	12
1. 국내 사례	12
1) 국내 사례 분석 개요	12
2) 정부 부처별	12
3) 공공기관	20
4) 민간단체	27
5) 소결	30

2. 해외 사례	29
1) 해외 사례 분석 개요	31
2) 건축정책에 의한 국가주도형 해외 홍보	31
3) 국가 간 연계를 통한 해외 교류	45
4) 소결	53

III. 주요 분야별 방향 및 추진과제 56

1. 해외홍보를 위한 정책적 방향 설정	56
1) 정책의 기본방향	56
2) 주요 홍보 방안 선정	60
2. 출판·전시 분야의 현황 및 분석	65
1) 개요	65
2) 출판 분야 현황 및 분석	66
3) 출판 분야의 사례 검토	78
4) 전시 분야 현황	84
5) 건축 관련 주요전시 분석	91
3. 출판·전시 분야 정책의 기본 방향	104
1) 기본방향	104
2) 추진방향	105
3) 중점추진과제	106

4. 출판 · 전시 분야 추진과제	107
1) 출판 분야	107
2) 전시 분야	114
5. 건축문화 해외 홍보를 위한 정책 방향에 따른 건축전문기관 설립에 관한 제언	122
1) 해외 홍보를 위한 정책적 방향 설정	122
2) 건축문화 관련 전문 기관과 국제 교류 협력 시스템	122
3) 국내 건축문화 관련 국가주도형 전문 기관의 설립 대안	123

IV. 결론..... 126

1. 연구의 성과 및 한계	126
----------------------	-----

• 참고문헌	134
• Summary	136
• 부록 1. 각 분야 전문가 면담	142
• 부록 2.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소개 책자 - 한국의 책 100	161
• 부록 3. 건축 도서 분야별 현황 조사	166
• 부록 4. 건축 전시 현황 조사(최근 5년간)	178

표 차례

〈표 1-1〉 주요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8
〈표 2-1〉 국제문화교류와 문화외교	15
〈표 2-2〉 건축기본법 및 시행령 상의 해외진출관련 언급 사항	18
〈표 2-3〉 각 주체별 정책 진행 현황	20
〈표 2-4〉 2005~2008년 문예진흥기금 건축분야 지원 사업현황	24
〈표 2-5〉 ISAIA 국제심포지엄 주제	29
〈표 2-6〉 NAI 건축문화 홍보 관련 주요 사업	34
〈표 2-7〉 베를라헤 건축대학원 건축문화 홍보 관련 주요 성과	35
〈표 2-8〉 스코틀랜드 건축정책계획 실천사항	37
〈표 2-9〉 The Lighthouse 건축문화 홍보 관련 주요 사업	39
〈표 2-10〉 핀란드 건축박물관의 건축문화 홍보 관련 주요 사업	42
〈표 2-11〉 건축정책에 의한 주도적 홍보 업무	44
〈표 2-12〉 UIA의 의결 4단계	45
〈표 2-13〉 국제건축박물관연합 주요 활동	46
〈표 2-14〉 gau:di project 주요 사업	51
〈표 2-15〉 Art Nouveau Network 주요 사업	51
〈표 3-1〉 건축기본법 및 시행령 상의 해외진출관련 언급 사항	57
〈표 3-2〉 단계별 해외홍보 추진계획	57

〈표 3-3〉 주제별 해외홍보 실천 방안	59
〈표 3-4〉 홍보사업의 분류	61
〈표 3-5〉 국가별 건축도서 검색 수량 비교(amazon.com)	61
〈표 3-6〉 홍보 유형에 따른 홍보성과 달성 단계	62
〈표 3-7〉 홍보 유형별 성과 파급 효과	63
〈표 3-8〉 홍보 유형별 우선추진 가능 여부	64
〈표 3-9〉 2005년 신간 발행 및 번역출판 현황	68
〈표 3-10〉 문학 분야 출판물 번역 지원 사업 현황	69
〈표 3-11〉 Shaffron Books에서 발간된 한국학 관련 서적 현황	70
〈표 3-12〉 영국 내 한국 건축의 위치와 실태조사	71
〈표 3-13〉 주요 출판사 도서 분류 목록 및 권수 현황(유럽)	73
〈표 3-14〉 주요 출판사 도서 분류 목록 및 권수 현황(미국)	74
〈표 3-15〉 주요 건축 전문 출판사 지역별 선호도 현황	77
〈표 3-16〉 amazon.com에서 건축도서 대한 국가 명 검색 결과	78
〈표 3-17〉 c3korea - 월간지 배급 현황	81
〈표 3-18〉 네덜란드 IDEA BOOKS 개요	82
〈표 3-19〉 국내미술 해외전시 국가별 분포	86
〈표 3-20〉 부산 비엔날레 업무 분장 예	88
〈표 3-21〉 비엔날레 운영 단계별 주요 업무	89
〈표 3-22〉 최근 5년간 건축 관련 전시 현황	91

〈표 3-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분야 국제교류정기공모사업 연도별 전시 지원수	92
〈표 3-24〉 최근 5년간 국내건축 해외전시 현황	93
〈표 3-25〉 최근 5년간 국내건축가 해외전시_개인전 현황	95
〈표 3-26〉 승효상 전시/ 파주 북시티 개요	95
〈표 3-27〉 승효상 전시/ 파주 북시티 전시 기획 과정	95
〈표 3-28〉 우경국 전시/ 관계 현상의 미학 개요	96
〈표 3-29〉 최근 5년간 국내건축가의 해외전시_작가전 현황	97
〈표 3-30〉 S(eoul-Scape전 개요	97
〈표 3-31〉 최근 5년간 국내 건축가의 해외 전시 현황_작품전 현황	98
〈표 3-32〉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개요	98
〈표 3-33〉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현황 (건축전)	99
〈표 3-34〉 Megacity Network전 개요	100
〈표 3-35〉 출판 분야 장 · 단기 추진과제	106
〈표 3-36〉 전시 분야 장 · 단기 추진과제	106
〈표 3-37〉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 개요	108
〈표 3-38〉 한국문학번역원 : 전문번역가 육성 사업 개요	109
〈표 3-39〉 심원건축학술상 개요	111
〈표 3-40〉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시회 개요	112
〈표 3-41〉 베니스 건축비엔날레 개요	118
〈표 3-42〉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개요	121

〈표 4-1〉 출판 분야 아젠다	128
〈표 4-2〉 전시 분야 아젠다	129
〈부록표 1-1〉 wonderland발간서적 현황	146
〈부록표 1-2〉 idea book 소개	150
〈부록표 1-3〉 담디출판사 출간서적	150
〈부록표 3-1〉 ACTAR에서 출판되는 건축 도서의 소재국가 분석 (숫자는 도서 수량)	167
〈부록표 3-2〉 NAI Publishers에서 출판되는 건축 도서의 소재국가 분석	167
〈부록표 4-1〉 일반전시	190
〈부록표 4-2〉 해외진출전시	191
〈부록표 4-3〉 학교전시	193
〈부록표 4-4〉 박람회	196
〈부록표 4-5〉 건축관련전시	198

그림 차례

〈그림 2-1〉 한국 해외문화원 현황	14
〈그림 2-2〉 한국국제교류재단 사업 예산 현황(2008)	21
〈그림 2-3〉 국제교류재단 해외사무소 현황	22
〈그림 2-4〉 문화예술위원회 조직 구성	23
〈그림 2-5〉 전시통합 관리시스템	25
〈그림 2-6〉 2008 ARCASIA 조직 구성표	48
〈그림 2-7〉 건축 문화 홍보의 정책적 지원 프로세스	53
〈그림 3-1〉 세계 주요국의 도서 출판 시장 규모(2004)	66
〈그림 3-2〉 주요국의 철학·역사 분야 출판 발행종 수 비중	67
〈그림 3-3〉 주요국의 외국 도서 번역 출판 비중 (2004 발행종 수 기준)	67
〈그림 3-4〉 해외 건축 분야 전문 도서 출판사 지역별 분포 현황	75
〈그림 3-5〉 일본 관련 주요 건축 도서	76
〈그림 3-6〉 중국 관련 주요 건축 도서	77
〈그림 3-7〉 amazon.com에서 한국건축도서의 비중	77
〈그림 3-8〉 c3korea 월간지 배포 현황	82
〈그림 3-9〉 부산 비엔날레 조직 구성 예	87
〈그림 3-10〉 비엔날레 전시 운영 프로세스	89
〈그림 3-11〉 Megacity network전 홍보결과물	101
〈그림 3-10〉 건축문화 해외 홍보를 위한 정책적 방향	122

〈그림 3-11〉 건축문화 홍보를 위한 관련 국가기관	123
〈그림 3-12〉 건축문화 홍보를 위한 관련 국가기관 1안 - 홍보 실행기관의 통합	124
〈그림 3-13〉 건축문화 홍보를 위한 관련 국가기관 2안 - 홍보 실행기관의 이원화	124
〈그림 4-1〉 국가 주도형 해외 홍보 모델	127
〈부록그림 3-1〉 주요출판사의 연구대상 국가 (좌 : ACTAR, 우 : NAI)	167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 연구 검토
4. 연구 주요내용

(a u r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현 시대는 세계·지방화(glocalization)와 정보화시대로서 국제 교류·협력 관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세계를 하나의 통합 단위로 보는 글로벌리즘(globalism)에 의한 범국가적 네트워크가 거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된 현 시점에서 국가 및 지역 상호간에 매우 긴밀한 관계 형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가 간 해외시장진출 경쟁의 심화로 인한 국제 경쟁력 향상 및 제고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이제는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의 생존 전략으로서 해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 홍보는 다양한 국가 및 지자체 간 글로벌 네트워크 연결을 의미하며, 일방향적 의미가 아니라 쌍방향 교류 또는 다방향 협력의 의미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즉, 다방향적 교류와 협력을 통한 연결을 의미하는 해외홍보란 단순한 필요성 이상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생존의 전략이며 이는 국내·외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된다.

① 경제성장 위주의 건설정책에서 건축문화정책으로 전환

-
- 1) 건축문화란 건축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과 예술의 사이에 존재하며, 삶의 질을 위한 건축적 가치관을 말함. 건축문화는 구체적으로 도시기반시설 건설 환경 도시계획 건축디자인 공공디자인 도시문화 등을 포함한다.

출처 : 한국건축가협회, 2007, 「국가 건축문화정책의 방향 제시 및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부, pp.12

이러한 세계화·정보화시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서 정부가 주도하는 건축문화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네덜란드, 핀란드, 스코틀랜드 등 선진국들은 자국의 건축문화 또는 삶의 공간 환경의 질 향상과 국제적인 건축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미 정부 주도의 건축정책을 수립하였다. 우리나라도 2007년 12월 국토해양부 발의에 의한 건축기본법의 제정으로 건축문화의 진흥을 통해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건축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와 관련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는 또한 지금까지 건설과 도시개발이 주도한 경제성장과 효율성 중심의 건설위주 건축정책에서 건축문화정책으로 전환을 의미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공간 환경의 문화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정책으로서의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삶의 질을 지향하는 건축문화의 고부가가치가 건설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정책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예로 핀란드 정부의 건축정책에서는 국가 생산력이 건설 분야에 있으며 나아가 그것이 문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건설과 문화라는 두 부분에서 정책이 함께 다루어지는 것으로서 건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국민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3분의 2가 건물 속에 있으며, GDP와 노동력의 많은 부분이 건설 분야에서 얻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은 국가의 경제적 활동에 기여하는 좋은 건축이 창조적으로 만들어지고 보존되며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건축은 국제적 경쟁력을 통해 문화산업을 선도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그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도록 하여야 한다.”²⁾

② 건축정책에 의한 국가주도형 건축문화 해외홍보 기반마련

이를 위해 건축문화의 국내 역량 강화와 해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은 동일하다는 인식 아래에서 해외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

“스코틀랜드의 공간 환경은 우리 자신의 삶의 질을 위해 중요하지만 지내기에 멋진 국가라는 해외에서의 인식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라고 말한 스코틀랜드 수석장관 Jack McConnell을 통해 우리는 국내 건축의 해외 정책이 따로 존재하기 보다는 국내 건축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곧 해외 홍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고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며, 한 단계 더 나아가 국내 건축문화의 기반 구축과 역량 강화가 곧 해외홍보라는 인식을 알 수 있다.

2) Arts Council of Finland/ Ministry of Education, 1998, The Finnish architectural policy, pp.7

그러므로 국내 건축문화의 해외홍보 방안 또한 국내 건축문화 역량 강화라는 큰 틀 속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해외 홍보만을 따로 마련하는 것은 소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해외 홍보를 건축정책의 건축문화 진흥책 일환으로 생각하여 실행력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는 자국의 건축적 성취를 해외에 홍보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설정한 스코틀랜드의 경우처럼 건축문화에 대한 기반 뿐 아니라 해외 홍보에 대한 기반도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건축기본법 제5장 제20조 4절에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건축 관련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명시함으로써 해외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실천적 기반이 마련 되었다.

③ 공공 차원의 체계적인 건축문화 해외 홍보·교류·협력 창구 및 주체 부재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 부처별 국제 문화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건축문화에 대한 정책과 사업이 전무한 실정이다. 국제 문화 협력과 관련된 중앙정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총체적인 문화에 대한 해외홍보 및 교류·협력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건축문화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은 없는 상태다. 그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의 해외홍보 지원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인데 건축분야는 현재 시각예술소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나 위원회에 건축분야 전문가가 없어 지원의 고려대상이 아닌 상황이다.

현재 국토해양부의 건축기본법 제정에 의해 건축문화의 해외홍보 기반은 마련된 상태이나 아직 해외 홍보를 위한 체계적인 기구나 조직이 없어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④ 건축문화의 해외 홍보를 위한 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홍보방안 제안의 필요성 제기

건축문화의 해외 홍보를 위한 정책 및 구체적인 홍보 방안을 위한 연구의 긴급성을 자각하고 건축문화의 해외홍보 정책 방향을 위한 체계적 연구와 구체적인 홍보 방안을 위해, 현황과 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의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과제는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따른 무한경쟁 시대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으로서 건축문화의 해외홍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외홍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시작되었고 또한 건축기본법 제정에 따라 건축정책에 건축문화 해외홍보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여건의 변화와 기본계획 수립 과정이라는 현 시점 속에서 우선, 국내 건축문화 해외홍보의 정책적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둘째, 주요 사업 분야별 장기적 해외홍보 추진방안의 제안을 목적으로 하였다.

□ 건축문화 해외홍보를 위한 정책의 국내 현황 및 해외 선진사례 분석

- 국내에서 건축문화를 포함한 문화의 국제 교류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기관 및 단체 그리고 민간기관의 업무 내용 및 역할 분석을 통해 현 건축문화 해외홍보의 실태를 파악하며, 건축정책과 기구·기관 중심의 해외 홍보 그리고 국가 간 연계를 통한 해외 홍보의 사례를 분석한다.

□ 정책의 주체별, 시기별 해외홍보를 위한 주체별 실천방안(Road-map) 도출

- 앞의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과 해외 홍보 정책의 방안을 주체별로 실천방안을 작업하여 정책의 전체 구조 틀을 마련한다.

□ 건축 정책의 해외홍보 방향 제시와 주요 홍보 분야별 추진방안 마련

- 건축정책에 있어 해외홍보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홍보 분야에 대해 출판, 전시, 기타 등을 주요로 하여 현황 및 사례 분석을 통한 해외홍보 정책의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현 국내 건축문화의 해외홍보에 관련된 중앙부처, 공공기관, 민간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의 선도 사례를 분석하여 건축정책에 기반을 둔 국가별(네덜란드, 스코틀랜드, 핀란드) 해외홍보 정책 및 방안 파악과 국가 간 연계를 통한 해외 교류 방안을 파악한다.

건축문화 해외홍보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주요 분야별(출판, 전시 및 기타) 현황 및 주요 사례를 분석하여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2) 연구방법

□ 문헌조사

- 해외홍보 및 전시 출판 등의 현황 파악을 위한 인터넷,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 건축 분야 주요 잡지를 선정하여 최근 5년간 건축 관련 행사 현황을 조사하였다.

□ 국내외 사례조사

- 국내 및 해외 주요국가의 건축문화 해외홍보 정책과 사례 등을 문헌 및 인터넷으로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건축 및 미술 분야에서 출판, 전시관계자를 인터뷰하고 그들의 해외 홍보 사업 계획과 결과 보고서를 사례로 하여 조사하였다.

□ 전문가 자문회의

- 주요 분야별(출판, 전시, 기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각 분야에서 진행중인 사업과 여건현황을 분석하여 가능한 방향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선행 연구 검토

3

1) 선행 연구 현황

건축문화의 해외진출 전략과 관련한 과제는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이지만 사업 과정에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각 사업 주체별 노하우로 간주되어 공론화되지 못하여 별도의 연구가 진행된 바 없다. 보다 넓은 범위의 문화적 차원에서는 각 행정 주체별로 진행되고 있는 업무 및 사업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 제도적인 정책제안을 위한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제도수립 방안 연구’ (문화관광연구원, 2007)가 진행되었으나 건축문화와 관련된 정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건축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건축문화와 관련된 연구로는 건축문화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및 국가 건축문화정책의 방향제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 건축문화 전반에 대한 정책 아젠다로서 국제 홍보에 관련된 분야는 일부분이 다루어졌다.

2) 주요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자국의 건축문화가 국가의 브랜드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현 사회에서 한국 건축문화의 제고 이유와 체계적 홍보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기존에 연구되었던 한국 문화의 홍보 및 국제교류 범위를 광범위한 ‘문화예술’에서 구체적인 ‘건축’으로 한정하여 한국 건축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법론을 연구하였다.

그 중 국제적인 건축문화 교류의 주요 홍보 수단이며 한국이 특히 취약한 부분인 출판 및 전시 그리고 기타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사례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가 다루고자하는 건축문화와 해외홍보 각 분야에 관련된 연구들이 일부 진행되고는 있으나 건축문화 콘텐츠를 주제로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여 이번 연구를 통해 관련 분야의 동향을 분석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1-1〉 주요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연구개요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 국가 건축문화정책의 방향 제시 및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자(년도) : 이상진, 박인석, 장림중, 조익수 외 (2007년) 연구목적 : 경제적 가치에 편중된 국가의 건축정책을 문화적 가치로 방향 전환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 의견 수렴 간담회 전문가 토론 워크숍 해외 사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문화정책에 대한 일반적 이해 선진화된 건축문화의 조성에 장애 요인을 검토·분석 해외 건축문화정책의 사례 조사 및 비교 분석 정책제안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국제문화교류진흥을 위한 제도 수립 방안 연구 연구자(년도) : 홍기원, 이준형, 양현미, 정보원 외 (2007년) 연구목적 : 국제문화교류 및 협력과 관련된 정부부문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으로서 제도수립 제안, 제도수립 방안의 필요성과 제도수립을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문화교류협력 수행이 가능한 대안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사례조사 현황분석 각 부처 및 사업별 국제교류현황 관련 법률검토 및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문화교류협력과 관련된 정부지원 활동 현황 분석 각 부처들이 관련된 국제문화교류협력 전반의 문제점 도출 외국의 국제문화교류협력 추진 사례 조사 국제문화교류협력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의 구성 검토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건축문화 중·장기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자(년도) : 김효정 (2008년) 연구목적 : 현재 건축문화정책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축문화의 개념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건축문화정책의 범위와 목표를 설정하여 관련 부처별 정책 추진 기본방향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관련법규검토 사례조사 전문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 건축문화정책 추진관련 부처 및 관련단체의 업무, 활동 분석 건축문화정책의 동향 해외주요국가의 건축문화정책 우리나라 건축문화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가조사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연구는 건축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건축정책 기본계획에 필요한 건축문화 해외홍보방안 마련을 위한 현황파악 및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의 기본방향과 해외홍보 주요 분야별 추진방안의 제안하기위한 연구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국내외 사례조사 전문가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해외홍보 및 교류사업 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대안 제시 정책의 주체별 시기별 해외홍보방안 맵핑 작업 정책의 해외홍보 방향제시 및 주요 홍보분야별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마련 (출판 전시 기타)

연구 주요내용 4

1) 연구 내용

① 국내 문화 또는 건축 국제교류를 위한 정책의 동향과 현황 파악

우선 정부 부처별로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의 정책적 특징과 조직 및 기구 주요사업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공공기관 및 단체로는 교류 관련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 관련 문화예술위원회, 콘텐츠 개발 관련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특징과 주요사업을 파악하여 건축 문화 해외 홍보의 현황과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민간기관 중 대한 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에 대한 기관의 목적과 업무를 파악하여 그 중 국제 교류 관련 주요 사업을 분석하였다.

② 해외 건축문화 해외홍보 사례조사

건축정책을 수립한 나라들의 국가별 해외 홍보 사례로서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핀란드의 건축정책에 나타난 해외홍보 전략 및 관련 기구의 역할 조사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 외에도 국가 간 연계를 통한 해외교류 현황으로서 범국가적 기구를 통한 해외교류 사례와 국제적 연계 프로젝트를 통한 해외교류의 업무 및 역할을 분석하였다.

③ 건축문화 해외 홍보를 위한 정책의 방향

사례 조사를 통해 건축문화의 해외홍보를 위한 시사점 분석 및 정책을 제안하는 주체별 실천방안(road-map)을 제시함으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건축문화의 해외홍보를 위한 정책 및 주요 사업을 선정하였다.

④ 주요 해외홍보 사업 분야별 기본 방향 및 추진 방안

주요 해외 홍보 사업을 출판, 전시, 교류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각 사업별 현황과 주요 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분야별 해외홍보 기본 방향과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II.

건축문화의 해외홍보를 위한 국내외 사례분석

1. 국내 사례

2. 해외 사례

(auri

건축문화의 해외홍보를 위한 국내·외 사례분석

1 국내 사례

1) 국내 사례 분석 개요

최근, 건축기본법 제정 및 발효에 따라 ‘건축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건축문화 관련 분야에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또한 건축문화 분야의 해외홍보도 민간차원의 건축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긴 했지만 정책적 차원에서의 체계적 지원과 정책 지원 현황 등에 대한 연구 및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해외홍보의 주체를 ‘정부 부처’, ‘공공기관’, ‘민간단체’로 구분하여 문화 분야에 해당하는 각 부처별 해외홍보 및 국제협력 정책과 사업지원 현황 등에 대한 건축문화의 해외홍보 현황을 파악하였다.

2) 정부 부처별

정부 부처 내 문화 홍보와 관련된 중앙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로서 각 부서에서는 넓은 개념의 ‘문화’에 대해 해외 홍보 및 교류·협력을 위한 정책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각 부처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정책 분야는 ‘문화예술교류 및 홍보’, ‘한국어 해외보급’, ‘관련분야의 인적 교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및 사업과 다른 부처와의 진행사항 분석을 통하여 정부 부처에서의 해외 홍보 정책 방향을 검토하였다.

(1) 문화체육관광부

① 개요³⁾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② 조직 및 기구

□ 문화정책국 내 국제문화협력팀

국제문화교류사업의 담당 부처로 문화·예술의 국제 교류 협력 정책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조정 및 추진하고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해외 문화 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가 간 문화교류사업의 협력 및 조정, 재외공관의 문화 예술 활동 지원, 국제문화예술정보의 수집·관리와 국내외 문화·예술인의 교류 및 해외동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 협약과 문화 협정에 관한 사항, 국제 문화예술기구 및 외국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주요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행사의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그 밖에도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홍보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일에 대한 지원 및 협의와 해외문화원 신설, 코리아센터 설립 추진, 해외 문화원 운영, 관리(특화추진 포함)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 예술국 내 예술정책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 재원의 조성 및 운영(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한 운영)과 문학·조형 예술 분야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문화예술교육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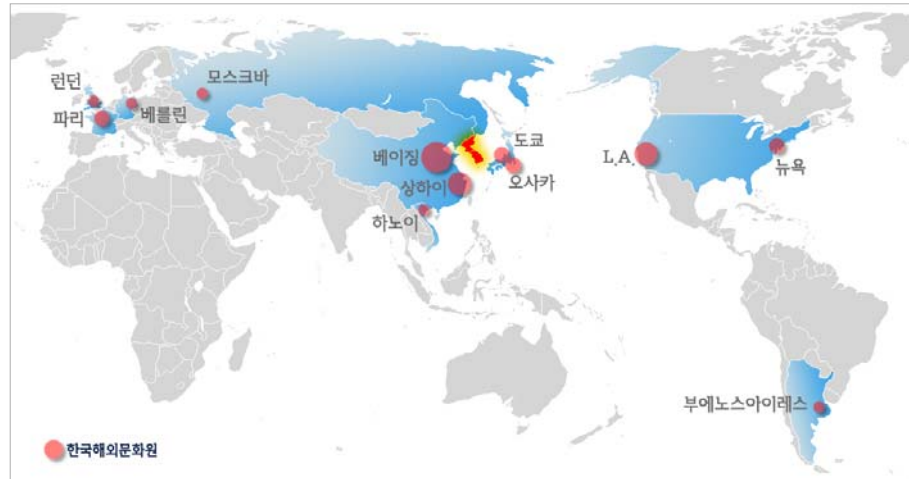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사업 유형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 단위의 문화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예술단체 및 예술가의 해외 교류를 지원하며, 문화 교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해외주재 한국문화원)과 전략적 국제 교류(한류 및 한스타일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특히 한국

3)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문화원 운영은 1979년 일본에 동경문화원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2개의 한국문화원을 설립하였고 9개의 재외홍보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문화원에서는 한국문화 강좌와 전통 공연, 전시 행사, 한국어 보급, 한국문화 홍보자료 발간·배포, 한국영화 시사회 등을 통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 2-1〉 한국 해외문화원 현황

④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 홍보 관련 정책 특징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 관련 정책 기조는 중립적 의미에서의 ‘교류’에서 적극적 의미의 ‘협력’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⁴⁾이며 해외 홍보에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은 문화정책국, 예술국, 문화미디어진흥단, 문화산업진흥단, 관광산업본부, 체육국 등에 분산되어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문화교류’와 ‘문화외교’의 구분에 따라 목표, 참여주체, 방식들이 다르게 적용될 필요가 있음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2007 문화정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p.192

〈표 2-1〉 국제문화교류와 문화외교

	국제문화교류	문화외교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문화적 자극을 받아들임으로써 문화적 창조력 제고 - 상이한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 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관계에 있어서 자국 이익의 증대 - 국가이미지의 전반적인 제고 - 자국에 대한 우호세력 확보
타겟 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층적 · 포괄적 (장르, 전문가, 일반애호가, 일반대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타적 · 선별적 (사회지도층, 지식층, 오피니언리더 계층)
참여주체 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기관 - 공공 문화기관 및 단체 - 민간 문화기관 및 단체 - 개별 예술가 및 전문가 (신생장르, 소수 장르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기관 - (준)외교서클 - 엘리트 예술 (명성이 확립된 단체 혹은 분야) - 지식인 계층
동원수단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향적(bilateral, multilateral) - 다양한 장르와 유형 (신생 및 소수 분야 포함) - 아이디어의 교류 - 공동작업 및 제작 - 인적교류 및 작품의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방향적(unilateral) - 선별적인 장르와 유형 (전통문화, 기존장르 중심) - 지식인 중심 교류 - 명성이 확립된 예술가 중심 교류 - 문화부문 ODA 형식

※ 출처 : 문화관광부, 2007,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제도수립 방안 연구', p13

(2) 외교통상부

① 개요⁵⁾

외교통상부는 우리나라의 외교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외국과의 통상 및 통상교섭과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 문화협력, 대외홍보,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재외국민 보호·지원, 국제정세의 조사·분석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② 조직 및 기구

□ 문화외교국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문화예술교류부

한국 문화 예술을 해외에 소개하고 국제간의 우호 및 친선 증진을 도모하며 한국 관련 공연 및 전시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한국의 문화유산과 문화 정체성을 해외에 체계적으로 알리는 공간인 해외박물관 내 한국관 설치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5)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③ 주요 사업 콘텐츠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의 문화 예술 사업 지원과 한국 문화 예술 해외 소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주요 사업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재외동포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별도의 국제교류기금을 통하여 한국학 연구 및 한국 문화의 해외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인적·문화·출판 교류에 관한 국제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한국국제협력단은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을 통하여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있으며 재외동포재단에서는 대상의 범위를 재외동포로 한정된 사업들을 진행하여 동포들이 한국인으로서의 동질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 외교통상부의 해외 홍보 관련 정책 특징

외교통상부 본부에서 문화예술 교류 사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항목은 재외공관의 문화예술사업 지원과, 문화 외교적 수단으로써 한국 문화 예술을 해외에 소개하는 것으로 보다 실질적인 사업 운용은 산하기관 세 곳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진행하고 있다. 중앙부처는 주로 재외문화원 예술지원사업과 문화 예술 민간단체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외국과의 각종 학술·문화 관련 국제 교류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가 한국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적 우호 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목적을 가진다.

(3) 교육과학기술부

① 개요⁶⁾

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존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하나의 부처로 통합되어 새롭게 출범한 부서이다. 주요 목표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효율화하여 과학기술강국 구현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인적자원 개발 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와 기초과학 정책·연구개발, 원자력, 과학기술인력양성,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6)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② 조직 및 기구

조직 및 기구는 크게 국제협력을 위한 기구와 문화관련 기관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국제협력의 경우는 ‘국제협력국’에서, 문화관련 사업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 국제협력국

하부조직으로는 협력총괄과, 양자협력과, 다자협력과, 재외동포교육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자협력과’는 국가 대 국가 간의, ‘다자협력과’는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학 기술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기본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미주·유럽·아시아 등 국가와의 양자 협력 및 국제기구 등 다자간 협력체와의 협력 업무 수행을 주요 업무로 하며 ‘재외 동포 교육’과 ‘한국어 해외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내 한국문화교류센터

설립 목적은 해외 교과서 분석과 외국인의 한국에 관한 인식 태도 조사 사업 등을 통하여 한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이해 현황을 분석하고, 잘못된 정보에 대한 시정 작업과 한국의 역사 문화를 국제 사회에 알리는 다양한 자료를 개발, 보급하여 국가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국제 이해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영국 등의 주요 출판사(Shaffron books)와 직접 연계하여 출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 2008년도 출판사업 : 한국문학통사, 한국음악통사 관련 서적을 출판 준비 중

③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외 홍보 관련 정책 특징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였던 해외 홍보 관련 사업을 기관별로 정리하자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재외 동포 교육 운영 지원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을, 과학기술부에서는 국제기구와의 교육 과학 기술 협력으로 유네스코 관련 아·태 국제이해교육원 및 UNDP(유엔개발계획) 협력, 교육과학기술부 협력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기관의 핵심적 성격인 인적교류의 중심기구로서 해외홍보와 관련한 인적교류의 중심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자리 잡고 있지 못한 상태고, 산하 기구인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과 전통문화에 대한 홍보 주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4) 국토해양부

① 개요

국토해양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리 및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육운·해운·철도 및 항공,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② 조직 및 기구

국토해양부에서 국제 협력 사업을 전담하는 기구는 기획조정실 내 ‘국제협력담당관’으로 국제기구인 OECD, UN, APEC, ASEAN협력에 관한 사항, 국제통상(FTA, DDA, GPA)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OECD업무로는 ECMT, TDPC, EDRC, 규제개혁, 국제세미나 등이 있고, APEC, UN업무로는 기후변화협약, 에스캅, ASEAN, UNCSD, 기타 UN기구에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③ 국토해양부의 국제 협력 관련 정책적 특징

국토해양부의 사업은 최근까지 건설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최근에 건축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건축문화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건축문화팀이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최근 건축문화 진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기본법이 제정 및 공포(2007.12.21)되고, 발표(2008.6.22)되었는데 건축기본법 및 시행령에 명시된 해외 홍보 및 국제 협력에 관한 법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2-2〉 건축기본법 및 시행령 상의 해외진출관련 언급 사항

건축기본법 및 시행령 상의 해외진출관련 언급 사항

- 법률 제 8783호 (건축기본법)
 - 제5장 건축문화의 진흥 중 제20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및 산업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4. 건축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 교류
- 법률 제 8783호 (건축기본법 시행령)
 - 제15조(건축 기본조사)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3. 건축 관련 전문 인력의 교육·양성·활동 및 해외진출 등 현황

7)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건축문화의 해외 홍보를 위한 정책은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통해서도 검토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국토해양부의 발주로 ‘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2008.6~)’를 진행하고 있다.

(5) 소결 : 정부 부처별 사업 및 정책 특징 및 시사점

① 건축문화 관련 국제기구를 통한 국가 간 협력 및 홍보 체계 구축 미흡

현재 국가 간 협력 차원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ASEM,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유네스코, UNDP(유엔개발계획)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차원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건축문화와 관련된 국제적인 기구는 유럽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gaurdi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나 국가 차원의 건축문화 사업 논의에는 제한이 있어서, 추후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건축문화 협력회의 등이 구성되거나 유네스코 사업 내에 건축문화를 위한 협력 등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② 각 부처별 개별·독립적인 사업 진행으로 인한 유사 사업의 중복성 및 연계성 저하

현재 해외한국어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이며, 문화예술 전문 분야 교류사업 담당 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위원회, 외교통상부, 한류 세계화 사업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가 진행하고 있는 등 여러 부서에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각 부처별로 문화교류행사가 산발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집적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대한 기대가 어려운 실정이며, 정부 부처에서 진행 중인 문화 홍보에 ‘건축을 콘텐츠로 하는 사업’들을 개발하여 연계시킬 수 있는 기관이나 부처가 필요한 상태이다.

③ 각 부처별로 해외에 한국 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기관·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건축문화에 대한 정책 홍보 기구는 전무

문화관광부에서는 한국문화 소개 사업을 해외문화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고, 외교통상부에서는 ‘재외공관’과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제협력단’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내 한국문화교류센터’를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등 각 기관이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기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건축문화 정책의 홍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는 없어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

④ 각 주체별 정책 진행 현황

앞서 살펴본 각 주체별 정책 및 사업 현황 등을 건축문화에서 활용 가능한 콘텐츠로 기반구축, 사업수행, 홍보지원 및 기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3〉 각 주체별 정책 진행 현황

부처	기반구축	역량강화	홍보 지원 및 기타	비고 (담당기관)
외교 통상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문화예술의 해외소개와 국제간의 우호, 친선증진도모 · 한국학연구 및 한국문화해외 전파 ·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해 외봉사단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 문화 · 출판 교류에 관한 국제 교류사업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공관의 문화 예술사업 지원 · 한국관련 공연 및 전시사업지원 · 해외박물관 내 한국 관 설치작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외교국 한국국제 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협력단
교육 과학 기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 과학기술의 국제협력 촉진 을 위한 기본 정책 수립 · 추진 · 중점지역대학 육성사업 · 교과서 수정작업 · 한국이해자료 개발 · 한국학관련 국제학술대회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주 · 유럽 · 아시아 등 국가와의 양자 협력 및 국제기구 등 다자간 협력 체와의 협력 업무 수행 · 인적교류사업 (국내외 연수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동포 교육과 한국어 해외 보급 등에 관한 업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협력국 한국학중앙연구원 내 문화교류센터
국토 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기본법 제정 발표 ·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진행 중) · 국제교류 관련 사업현황 조사 (전문인력, 사업개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국제통상 관련 업무 진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문화팀 국제협력 담당관

3) 공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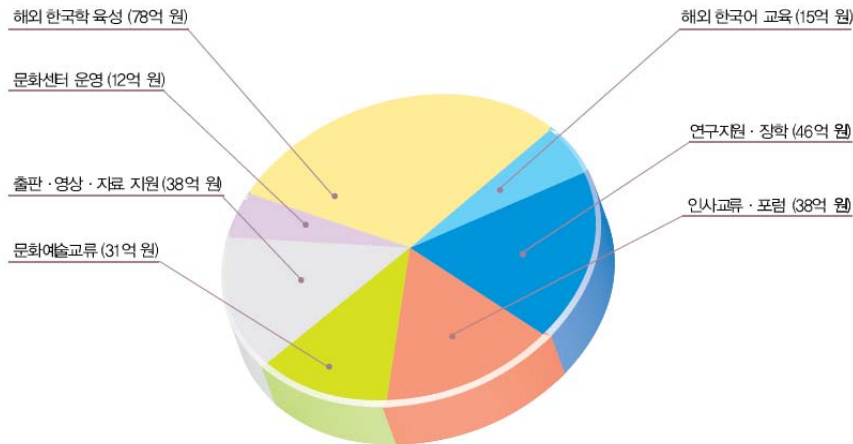
(1) 한국국제교류재단 (Korea Foundation) : 교류 및 홍보

① 개요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은 1991년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해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위하여 설립된 국제교류 전문기관으로 해외 한국학연구 기반조성과 인적 · 문화교류사업 등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② 주요 사업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해외 한국학 육성’, ‘해외 한국어 교육’, ‘연구 지원·장학’, ‘인사 교류·포럼’, ‘문화예술교류’, ‘출판·영상·자료 지원’, ‘문화센터 운영’이 있다. 이 중 인사 교류·포럼 사업은 해외 주요 국가와 상호 관심사 공유를 위한 민간대화협의체로 정·재계, 학계, 사회·문화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하고 있고 출판·영상·자료 지원 사업은 한국 문화 소개 영상물 제작 및 지원과 정기간행물인 ‘Koreana’, ‘Korea Focus’ 등의 한국 관련 외국어 출판물 발간, 해외 주요 도서관과 한국 연구 기관에 대한 자료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연간 운영 예산은 1000억 원으로 이 중 사업비로 운영되는 금액은 260억 원이다.



〈그림 2-2〉 한국국제교류재단 사업 예산 현황(2008)

출처 : 한국국제교류재단 홍보 브로셔
 어(<http://www.kfi.or.kr>)

③ 기타 사업

지정기부금 사업은 기업과 개인이 한국국제교류재단에 기부한 기부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한국학 교수직 설치’, ‘해외 박물관 한국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재단이 시행하는 각종 국제 교류 사업에 사용되며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기부금에 해당되어 기부자가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7년 주요 기부금 사업으로는 미국 휴스턴박물관 한국실 설치 경비로 (주)풍산에서 9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한국 미술품 구입비 지원으로 한국삼공, 서한화학 등에서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해외사무소 운영은 2005년도에 국제교류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설치되었는데 2008년 6월에 한국·베트남 간의 문화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하노이에 7번째 사무소가 개소되었다. 해외사무소에서는 현지의 수요를 파악하여 현지의 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그림 2-3〉 국제교류재단 해외사무소 현황
(출처 : 한국국제교류재단 홍보 브로셔)

문화센터에서는 첫째, 우리 국민의 다양한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하여 타 문화 소개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국제 이해를 증진시키며 한국 내 자체 문화원이 없는 국가들의 문화 소개 활성화에 기여하고 둘째,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해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 제공하여 외국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셋째, 쌍방향 문화 교류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문화 다양성을 인식시키고 국제 우호 증진 기여를 목표로 문화센터와 국내 자료관을 운영한다.

북미지역 도서관 특화 컨소시엄 사업은 1994년 미국 10여개의 주요 대학이 한국학 관련 자료 공유와 개발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000년부터 연간 3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컬럼비아대학의 경우, 서울 관련 출판물, 역사(1865-1945), 미술(회화, 조각, 사진), 공연예술(무용, 뮤지컬, 연극), 대중문화, 서예, 교육, 심리학 등 뉴욕 지역에 발간되는 한국 관련 출판물을 특성화하였다.⁸⁾

8) <http://www.lib.berkeley.edu/KCons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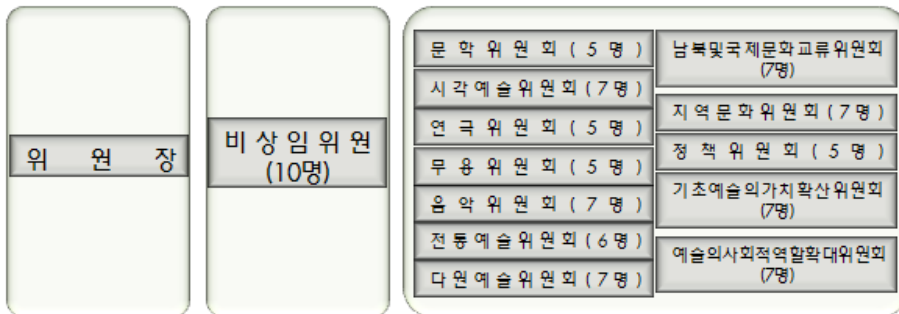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 기금 지원

① 개 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현장에 있는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11명의 위원들이 합의를 통해 문화 예술 정책을 이끌어내어 민간이 공공 영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공공 영역이 민간에 참여하는 동시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문화예술계 안팎에서 합의하고 있는 기초예술 분야와 문화산업의 비영리적 실험 영역을 대상으로 창조와 매개, 향유가 선순환 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것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

② 조직 구성

건축문화예술분야는 문화진흥법상에 포함되었으나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소위원회 내 시각예술위원회에 포함되어 지원되고 있다.



〈그림 2-4〉 문화예술위원회 조직 구성

③ 주요사업

베니스비엔날레에 대한 사업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행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매년 지원되는 예산은 약 5억원 정도로 커미셔너 선정위원회 운영 등이 진행되고 있다.

위원회 내 산하기구인 ‘예술지원컨설팅센터’에서는 예술창작기반에 대한 정보, 컨설팅서비스, 네트워킹 등 비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예술사업 기금지원, 시상, 레지던스 프로그램 현황 및 저작권 해외 진출을 위한 컨설팅 사업 등을 지원한다.

④ 기타사업 : 문예진흥기금 건축 분야 지원 현황

소위원회 시각예술위원회에서는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사업을 통하여 매년 3-4개의 건축문화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건축가 협회의 사업들이 지원되고 있고, 간혹 개별 건축가가 기획한 전시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선정을 담당하는 소위원회의 위원에 건축 관련 전문가가 없어서 시각예술위원회의 총 정기공모사업 중 건축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낮다. 소위원회 시각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국제 교류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건축 분야의 직접적 지원은 건축가협회의 국제 교류 사업 지원과 김영준, 우경국 등의 건축가의 해외전시, 국내에 해외건축가를 초청하는 행사를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일부 사례에 그치고 있다.

〈표 2-4〉 2005~2008년 문예진흥기금 건축분야 지원 사업현황

연도	지원사업명	금 액(원)
2008년	'SEOUL SCAPE'전 (국내 건축가들의 유럽 순회전시)	20,000,000
	UIA국제회의와 협력단체 회의 및 총회참석	8,000,000
2007년	알려지지 않은 이미지의 도시들	10,000,000
	City of Gaze 응시의 도시	10,000,000
	최원준과 샤오이닝&무첸의 사진전-근대도시와 공간	5,000,000
	UIA국제회의와 협력단체 및 총회참석	15,000,000
2006년	우경국 건축전/"관계현상의 미학"전 * 우경국 개인건축전으로 영국, 프랑스 전시 및 강연	15,000,000
	당인리 문화공장(가제)	18,000,000
	국제실무 세미나 및 심포지엄	15,000,000
	제25회 대한민국건축대전 기성건축가 부문	30,000,000
	제25회 대한민국건축대전 신인건축가 부문	40,000,000
2005년	독일전시회 한국의 현대건축과 도시계획	8,000,000
	'2005 산호세 한국공원 프로젝트', 코스타리카	10,000,000
	2004/2005윈터 마스터클래스 * 서울건축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워크숍	10,000,000
	제24회 대한민국건축대전	30,000,000

(3)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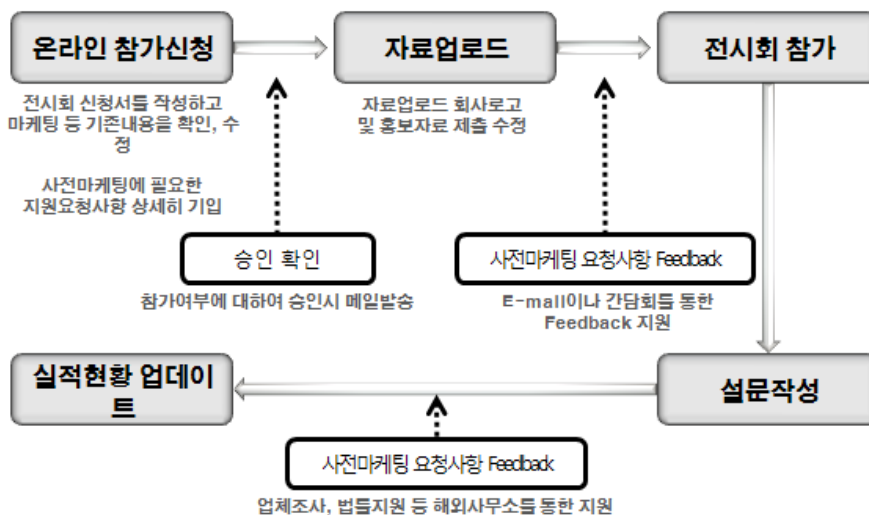
① 개요

2001년 ‘문화산업’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② 주요 사업

수출 지원 사업의 경우, 해외 주요 거점 4개(일본, 중국, 미국, 영국)를 대상으로 해외 시장 동향 조사, 전시회 마케팅 지원, 세일즈 출장 지원,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 진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 전시회 참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전달하여 기업으로부터 참가 의사를 받으면 해외 전시회에 필요한 마케팅 및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있고 사업 이후에는 이에 대한 설문 작성 등을 통하여 보완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모든 정보는 다시 정보 센터에 축적되어 다른 회사의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최근에 진행되었던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시회(Frankfurt Book Fair 2008)에서는 한국공동관 부스 임차 및 기자재 설치 등을 지원하였다.



〈그림 2-5〉 전시통합 관리시스템

③ 기타사업

그 외에도 문화 원형 및 인력 양성, 디지털 콘텐츠 사업과 정책 지원을 위한 기초 활동으로서 문화 산업 통계 조사 및 지역 문화 산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 문화 산업은 각 지역마다 창조적인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여 문화 산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며 문화 원형 사업의 경우, 문화 원형 콘텐츠 종합 아카이브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의 콘텐츠 관리 및 유통 관련 제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한국형 창작소재 개발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중 건축분야의 경우, 사진으로 보는 한국전통건축(주.한국예술정보), 디지털한양(주.엔포디) 등이 문화 원형 과제로 추진된 바 있다.

(4) 소결

① 각 기관들은 목적 및 성격에 맞게 특성화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건축문화에 관한 영역은 빈약한 실정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해외사무소 운영을 통해 현지 교류정보를 수집하고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한국학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한 해외 한국학 육성, 인적교류, 연구 지원 사업 등의 해외 홍보 기초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 각 장르에 대한 개별 사업을 지원하고 산하 단체인 예술지원컨설팅센터를 통해 문화예술인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컨설팅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콘텐츠진흥원은 문화 산업 진흥을 위한 기초 콘텐츠 발굴, 원형 보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② 각 부처의 사업 실행을 위해 기획 단계부터 기관들과 건축분야의 연계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콘텐츠진흥원에서 건축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건축 관련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 분과에 건축예술 분과를 신설하여 개인·단체 차원 차원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건축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전략이 가능하다.

4) 민간단체

(1) 대한건축사협회

① 기관의 목적 및 업무

건축 기술을 향상시키고 미래 건축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며, 건축사의 권익과 친목을 도모한다. 건축사 지원 및 관리, 건축사의 재교육,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기술 지도, 건축 디자인 진흥과 건축에 관한 조사·연구 내용을 제공한다.

② 국제 교류 관련 주요 사업 내용

기획관리실 내 국제협력팀에서는 ‘APEC 등록 건축사 제도 관리 및 운영’, ‘국제 교류 및 협력’, ‘시장 개방 및 건축사 자격 상호 인정 관련’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약 40명의 각국의 건축사들로 구성되어 매년 한 차례 개최되는 세계건축사연맹(UIA) 산하 건축실무 협의회(PPC)를 주관하여 각국의 전반적인 건축사 실무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의제로 채택하여 토론하고 있다. 또한 한·중·일 협의회는 ‘중국등록건축사관리위원회’와 ‘일본건축사회연합회’, ‘대한건축사협회’가 참여하여 건축과 관련된 현안들과 각종 건축물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국가의 건축 문화발전을 꾀하기 위한 합의체 기구이다.

□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 : Architects Regional Council of ASIA)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 17개국의 건축사협회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는 협의기구로 한국에서는 한국건축사협회에서 참여하고 있다.

□ 미국건축협회(AIA)와의 교류

양국 건축사들의 현황과 AIA와 KIRA의 회원현황, 그 구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와 양국 건축 교육의 제도에 대한 상호 교류 및 협조를 추진 중이다.

□ 네덜란드와의 교류

현재 세계의 건축 무대를 이끌고 있는 네덜란드의 건축문화원(NAi), 네덜란드왕립건축사협회(BNA)와 건축전문대학원인 Berlage Institute 와 건축에 관한 상호 교류 증진을 위해 이루어졌다.

(2) 한국건축가협회

① 기관의 목적 및 업무

건축가들의 위상을 높여 건축 문화 창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우리 건축의 발전을 도모한다. 건축문화 홍보 및 교육, 건축상 시상, 대한민국 건축대전 및 각종 건축 전시회 개최, 건축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건축도서 출판, 국내외 건축정보 교류 및 정보센터 운영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건축도서 출판과 관련된 주요 발간 도서로는 ‘서울 도시와 건축’, ‘한국의 현대건축’ 등이 있다.

② 국제 교류 관련 주요 사업 내용

□ UIA와의 교류사업

국제건축가연맹(UIA)은 1948년 6월 26일 스위스 로잔느에서 설립된 전 세계 건축가단체로서 UNESCO의 협력 단체이기도 하다. 한국건축가협회(KIA)는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1963년에 정식 가입, 1975년부터 1981년까지 6년간 이사국으로 피선되어 국제적 지위와 활동 기반을 구축한 뒤 1996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총회에서 이사국으로 재 선임되었다. UIA를 통해 공지되는 각종 국제 공모전, 세미나 및 정기적인 소식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개하고 있다.

□ 한-미 건축 단체 간 협정서 체결

한국건축가협회(KIA)와 미국건축가협회(AIA)는 한-미 건축 단체 간 협력조인식을 체결하여 건축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교환하고 인적 교류를 추진하여 양국이 각종 국제 대회에서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 UIA 총회 및 대회 참석(3년마다 개최)

□ 해외 건축가 초청 강연회 개최

(3) 대한건축학회

① 기관의 목적 및 업무

건축계획, 구조, 환경, 설비, 재료, 시공, 도시, 단지분야의 학문을 연구한다. 또한 한국 건축교육협의회 운영과 건축 설계 기준 정비, 건축 기술 기준의 제정 및 개정 업무를 담당하며 친환경 건축설계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② 국제 교류 관련 주요 사업 내용

아시아건축교류국제심포지엄(ISAIA : International Symposium on Architectural Interchanges in Asia)은 중국건축협회(ASC), 일본건축학회(AIJ)와 대한건축학회(AIK)가 공동으로 후원하는 비엔날레 방식의 국제 심포지엄으로서 지금까지 7회에 걸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주요 주제는 아시아 건축이 공통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항들로서 지금까지 아시아 건축의 새로운 가치, 도시 재생과 건축의 창조 등의 주제가 다루어졌다.

〈표 2-5〉 ISAIA 국제심포지엄 주제

※ ISAIA 국제심포지엄 주제

1st Sep, 1986, Fukuoka, Kyoto and Tokyo, Japan
 2nd 'Asian Architecture in the 21st Century' Sep, 1998, Kobe, Japan
 3rd 'Challenges and Roles of Asian Architecture for the New Millennium' Feb, 2000, Jeju, Korea
 4th 'Resource Architecture and Modern Technology' Sep, 2002, Chongqing, China
 5th 'Global Environment and Diversity of Asian Architecture' Jun, 2004, Matsue, Japan
 6th 'A+T:Neo-Value in Asian Architecture' Oct, 2006, Daegu, Korea
 7th 'Urban Renewal and Architecture Creation' Oct, 2008, Beijing, China

또한 대한건축학회, 일본건축학회, 중국건축학회에서 공동으로 아시아건축저널(JAABE : Journal of Asian Architecture Building Engineering)을 발행하여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와 더불어 AHCI(Arts and Humanities Citation Index), JCR/Science Edition(Journal Citation Reports)에도 등재하고 있다.

(4) 소결

① 건축 3단체 통합에 따른 민간 기관의 역할 증대에 대해 고려가 필요하다.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회는 그동안 분산되었던 사업들을 통합할 기구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각 기관에서 추진되어 오던 다양한 사업들이 통합되면서 건축문화전반에 대한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제 홍보와 관련하여서도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② 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

진행 기관의 목표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하여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한국건축가협회에서 일부 사업에 대해 한국문화

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건축 분야에 대한 좀 더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5) 소결

□ 정부 부처는 국가 이미지 측면에서 건축문화 위상 제고를 위한 주체 역량 강화 및 실행 기구 설립이 필요

정부부처는 국제협력의 큰 목표를 ‘국가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다양한 문화 홍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문화에 대한 해외 홍보 방안도 이러한 큰 틀 속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처 간 다양한 문화 사업에 건축 콘텐츠를 발굴하여 홍보를 위한 기본정책 및 사업 방향을 마련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실행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관, 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과의 연계 방안을 검토가 필요

각 부처의 기관들은 각각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는 건축을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건축문화에 대한 기관들이 설립되면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콘텐츠 진흥원에서 건축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문화예술위원회 산하 분과에 건축 예술 분과를 신설하여 개인 및 단체 차원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기금을 지원하며,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건축의 해외홍보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 민간 차원에서 추진 중인 개별 사업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이 필요

개별 기관들은 다양한 사업들을 기관의 목표에 부합시켜 양호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여 지원할 수 있는 ‘(가칭)건축해외홍보 기금’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단기적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신청이 가능하나 장기적인 육성 지원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건축 3단체의 통합에 따라 기구가 설립되면 국제 교류 분과 등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존의 한국건축가협회에서 진행하였던 UIA와의 교류·협력 사업과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에서 진행되었던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협력 사업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사례 2

1) 해외 사례 분석 개요

건축문화 관련 정책이나 체계적인 홍보 전략이 미미한 국내 사정과는 달리 선진적인 해외 사례의 경우는 국가적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건축문화의 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국제 진출, 교류, 협력 등 적극적으로 유대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건축문화의 해외 홍보 유형을 국가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이 중 국가적 규모의 해외홍보 유형은 ‘건축정책에 의한 정부주도형 해외홍보’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분석하고, 국가 간 연계 유형은 ‘범국가적 기구를 통한 해외 협력’, ‘국제적 연계 project를 통한 해외 교류’로 구분하여 각 주체별 목표 및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의 건축문화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건축정책에 의한 국가주도형 해외 홍보⁹⁾

(1) 네덜란드¹⁰⁾

① 해외 홍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현황

네덜란드는 1991년 이후 ‘교육, 문화 및 과학부(OCW)’와 ‘주택, 공간계획 및 환경부(VROM)’에 의해 건축을 위한 제반 시설·제도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 세계 최초의 정부 주도 건축정책(Space for Architecture)을 수립하고 건축 관련 문화시설을 설립하여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건축 관련 홍보 체계를 구축하였다. 네덜란드의 건축정책에서는 다수의 건축 프로그램(전시, 출판, 건축상, 건축 이벤트 등)을 지원하고, 네덜란드 건축협회(NAi, the Netherlands Architecture Institute) 및 국제건축대학원인 베를라헤 건축대학원(the Berlage Institute)등이 설립되는 기초를 마련¹¹⁾하였는데 건축 교류

9) 건축정책이 수립된 국가로 네덜란드, 핀란드, 스코틀랜드를 들 수 있으며, 이를 이번 조사의 대상범위로 한정함

10) www.nai.nl

관련 기구의 설립과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하여 건축진흥기금¹²⁾(Stimuleringsfond voor Architectuur: Architecture Fund), 건축예술기금¹³⁾(BKVB Fonds; the Netherlands Foundation for Visual Arts, Design and Architecture), 유로판(Fund for Individual Subsidies, European) 등의 정책적 지원 대책이 마련되었다.

② 건축문화진흥 총괄 및 실행 기구 - 네덜란드 건축기구 NAi(the Netherlands Architecture institute)

네덜란드 건축기구(이하 NAi)는 건축 및 도시 계획에 관련된 광범위하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건축·도시 공간의 문제를 사회와 소통시키는 복합 건축센터로서 설립되었다. 네덜란드의 건축과 환경을 문화유산으로 제공하며, 건축 관련 자료 수집과 연구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건축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일반화하기 위하여 1993년 로테르담에 설치되었다.

건축박물관 정책계획안(NAi Policy Plan)에 근거를 두며, 부속기관으로 Sonneveld House¹⁴⁾, Open Model Storage¹⁵⁾, NAi Maastricht¹⁶⁾ 등이 있다.

-
- 11) 한국건축가협회, 2007, 국가 건축문화정책의 방향 제시 및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p.97
 - 12) 문화교육과학부(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와 주택환경건설부(Ministry of Housing, Spatial Planning and the Environment)가 관계적으로 수행해왔던 비체계적인 지원금 수여제도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기 위해 1993년에 설립되었으며, 건축 관련 이벤트, 전시회, 출판, 건축공모전 등의 활동과 특히 건축에의 공공의 참여와 건축 관계자들의 양질의 건축구축에 대한 인식을 조장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건축정책 시행을 지원하고 양질의 계획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원한다.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발주하지는 않고, 자문위원회 도움으로 지원 신청안의 질, 실현가능성과 수익성 등을 검토한다. 조임식, 네덜란드·영국의 건축정책과 건축센터의 역할, 문화정책으로서의 건축정책 세미나, 2005. 11. 25.
 - 13) 건축예술의 질적 축진을 목표로 신진건축가 발굴과 출판, 전시를 통한 학문교류를 지원함, Ministerie an Onderwijs, Cultuur en Wetenschap etc., Actieprogramma Ruimte en Cultuur Architectuur end Belvederebeleid 2005-2008, 2005, p69
 - 14) Sonneveld House은 1933년 완공된 건물로, 2001년 네덜란드 건축관의 부속건물 및 컬렉션으로 합병되었다. 1930년대의 근대 주거환경을 원형상태로 복원해두어서 당시 Nieuwe Bouwen 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근대 건물 자체를 문화유산으로서 컬렉션으로 포함하는 동시에 전시관으로 운영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 15) Open Model Storage는 네덜란드 건축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건축 모형 400여 점을 2005년 Van Nelle Design Factory 내부의 공개모형창고에 이전하여 일반에 공개하고 있으며, 초기연구 모형부터 최종 프리젠테이션 모형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모형을 전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모형은 Rem Koolhaas의 Jussieu 도서관, Jo Coenen의 Amsterdam KNSM Island Scheme, Kisho Kurokawa의 Amsterdam Van Goghmuseum 확장계획안, Aldo van Eyck의 Noord-Oostpolder 등이 있다. 네덜란드 건축관의 컬렉션이 확장됨에 따른 수장고 부족의 문제를 근대 건축유산 내부의 별도공간에 공개 전시를 통해 해소함으로써 수장과 전시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 16) 마스트리트 네덜란드 건축관(NAi Maastricht)은 2006년 네덜란드 건축관의 브랜치 박물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주로 준-상설 전시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마스트리트 네덜란드 건축관

네덜란드 건축기구(NAi)는 건축술과 도시건축, 경치, 인테리어 건축의 영역에서 국가적인 인식과 기록 중심부 기능을 완수한다. NAi는 지방 발전의 제시와 공간 정리와 건축학적 질에 대한 공공의 토론을 자극하는 플랫폼 기능을 한다. 기구는 중요한 부분에 근본적이고 계속적인 교육에 집중된 교육활동을 발전시킨다. NAi는 토론과 전시를 위해 기록과 도서관, 공간을 사용한다. 기구는 건축 지역에 네덜란드의 건축과 수백만 개의 그림들, 수천 개의 모형을 가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건축양식 수집품들인 국가수집품을 관리한다. 국가적인 기구분야로서 NAi는 국제적인 건축정책에 형식을 주기위한 첫 번째 책임 있는 기구이다. 국제적인 활동은 상당수 재정 지원되며 해외에 심포지엄과 강연회를 개최한다.¹⁷⁾

〈네덜란드 건축정책기본계획 중에서〉

□ 주요 역할 및 업무성과

NAi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시설이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자기주장을 자유롭게 표명하는 비판적 역할을 보장받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전시, 연구, 출판 사업을 통해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형성하는 역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NAi의 주요 역할을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 도서를 포함한 아카이브와 컬렉션의 수집·보관 및 접근성 확보
- 최근의 건축 도시 상황에 병행되는 모든 수집 자료에 대한 연구
- 전시, 출판 및 의견표명(manifestation)의 형식을 통한 일반 대중과의 연구 성과물 교환

이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실행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의 특징은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삼국의 국경지역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특성을 살려 유럽의 공간 디자인을 위한 실험적 연구소의 역할과 창구의 역할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Maastricht, 독일의 Aachen, 벨기에의 Lige가 마주하는 Euregio 내의, 건축 및 도시 설계와 계획분야의 최근 개발동향에 관한 기획전시 등을 다루고 있다.

17) Ministerie an Onderwijs, Cultuur en Wetenschap etc., 2005, Actieprogramma Ruimte en Cultuur Architectuur end Belvederebeleid 2005-2008, p.70

〈표 2-6〉 NAI 건축문화 홍보 관련 주요 사업

주요사업	세 부 내 용
컬렉션 (아카이브 및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도시에 관련된 방대한 양의 서적과 더불어, 19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르는 건축가들의 스케치, 초기 드로잉, 사진 및 모형 등의 아카이브 컬렉션을 소장함. 네덜란드 건축기구 수장고로부터 설립된 공개 모형 창고에서 건축 모형 400점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음 · 세계 최대의 컬렉션 도서(38,000여 권, 아카이브 600여 점)
전시 및 심포지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건축, 도시설계, 인테리어 디자인 및 조경건축에 관한 20여 기획전시를 운영하고 있음 · 상설전시는 “Living in the Lowlands”라는 주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여 년 동안의 네덜란드 건축 및 도시문화의 단면을 도면과 모델 및 사진으로 전시하고 있음 · 전시와 더불어, 네덜란드 건축 기구는 강연회, 심포지엄, 답사 및 다양한 형식의 이벤트를 조직함으로써 토론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 역시 전시나 출판의 형식으로 연계시키고 있음 · 대표적인 전시활동으로 로테르담 국제 건축비엔날레(International Architecture Biennale Rotterdam)¹⁸⁾와 2006년 200주년을 맞는 국가건축가(Chief Government Architect)전시회가 대표적 사례임 · 전 세계에 걸친 순회전시
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NAI 출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자체 에디터 및 외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연간 40여권의 건축, 도시 및 예술 관련 서적을 출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서적은 네덜란드어와 영문판으로 출간되어 전 세계의 유통망을 통해 수출되고 있음 · 네덜란드 건축기구의 관보(Architecture Bulletin)¹⁹⁾는 건축 환경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게재하며 네덜란드 건축기구의 후원단체인 ‘Friends of the NAI’ 회원에게 무상 배포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 NAI prize : 2002년도부터 매년 한 명의 건축가를 선정하여 수여하고 있으며 NAI와 교류하고 있는 해외의 국제 전시장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시 및 각종 출판 자료와 동시에 건축에 대한 비평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이해의 폭을 마련하고 있음 · 네덜란드 건축의 해외교류를 위한 NAI International²⁰⁾, 건축정보 교환을 통한 국제적 논의를 위한 NAI Debates on Tour²¹⁾의 기획을 통해 각종 토론 및 강연회, 전시회 등이 운영되고 있음 · 이 외에도 Premssela Dutch Design Foundation, BONAS 등의 기관과 연계하여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 ·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네덜란드 전역에 건축 답사 프로그램 운영 · 연간 100,000여명의 방문객 유치, 연간 23,000여명의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유치 · 2005년 공개모형창고(Open Model Storage) 설립

18) 당시 네덜란드 건축기구의 관장이었던 Kristin Feireiss의 제안에 의해 구체적인 실행 논의가 촉발되어 제3차 개정 건축정책(Shaping the Netherlands, Architecture Policy 2001-2004)에 의해 2001년도에 재단이 설립되었으며 2003년, 2005년, 2007년도에 1,2,3회의 비엔날레가 로테르담에서 개최되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비엔날레를 한시적인 전시회로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 프로젝트로 인식하며 도시와 환경에 대한 다양한 시대적 조류와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지식과 토론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이 비엔날레는 네덜란드 국내 외 건축가, 도시계획가, 이론가, 학생, 개발업자, 정책책임자 및 정치인을 망라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와 신진건축가들과의 공조를 통해서 전시회와 연구를 병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네덜란드 건축기구는 제 1회 로테르담 국제 건축 비엔날레 이후 현재까지 비엔날레와 관련된 연구의 지원 및 전시, 출판에 관여하고 있으며, 그 연구의 내용은 네덜란드 국토 공

③ 국제교류를 위한 건축교육기구 - 베를라헤 건축대학원(the Berlage Institute)

베를라헤 건축대학원(the Berlage Institute)은 1990년 건축의 우수성을 배양하기 위한 센터로 설립되었으며 건축과 도시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수행하는 국제적인 성향의 포스트 아카데미 교육 기관이다.

□ 주요 역할 및 업무성과

국제적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원칙적으로 국제적 명성을 가진 외부의 초청 교수들이 각각의 스튜디오와 세미나, 마스터 클래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며 다양한 예술 분야의 통합 운영으로 건축과 순수예술기관, 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영화, 미디어 및 디자인 학교, 건축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세계 선도적 기업들과 광범위하게 교류하고 있다. 홍보를 위한 주요 활동은 교육과 연구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7〉 베를라헤 건축대학원 건축문화 홍보 관련 주요 성과

주요 성과		세부 내용
전시	Beyond Mapping, Projecting the City	·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참여, 전시개최 (2006. 9. 10. ~ 11. 17.)
	3차 로테르담 국제건축비엔날레 (International Architecture Biennale) 큐레이팅	· 'POWER' 라는 주제아래 도시의 조건을 형성하는 다섯 개의 POWER(representation, global capital, tourism, migration, fear)와 도시공간과의 관계를 주목한 전시회(2007. 5. ~ 9.)로 세계의 여러 기관들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냄
	Berlage Institute Gallery	·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전시장을 통해 다수의 전시회 기획 및 대중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연구나 스튜디오 결과물을 전시할 뿐만 아니라 초청전시회를 열기도 함
국제 행사	국제 컨퍼런스 개최	· Modernization & Regionalism -Reinventing the Urban Identity, 베이징 칭화대학에서 베이징대학, 태국 NTU 공동 개최(2006. 10.)
	국제 워크숍 개최	· Vela Spila/ Museum 21+, 벨라 루카시와 함께 크로아티아의 벨라 스피라에서 로테르담, 루블라아나, 자그레브, 스플리트에서 초대된 건축과 학생들과 튜터로 구성(2007. 9.)
협동연구		· 공동 연구 프로젝트 진행(Croatian Archipelago New Lighthouse, 크로아티아 건축협회 공동)

간 정책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주제로, 3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 19) 에세이는 건축, 도시계획, 조경분야는 물론이고 건축역사가와 철학자로부터 예술가와 사회 학자 등에 이르는 여러 분야의 건조환경에 관한 관점을 반영함
- 20) 전시회, 토론 및 강연회, 관광객 프로그램(visitor program, 네덜란드와 해외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건축정보의 교환) 등으로 구성되며, the Ministry of Cultur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e에서 기금을 받음.
- 21) Netherlands Culture Fund, the Ministry of Cultur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로부터 기금이 조성되며, 2008 Korea-Netherlands Architecture Exchange 전시회 및 강연회가 서울대학교에서 실시됨

④ 기타 해외홍보 단체 및 역할

□ Nedeco

비영리 독립재단(Independent non-profit foundation)으로서 워터프론트 개발 등에 대한 컨설턴트들이 모여 있는 그룹이며 한국의 토지공사와 같이 네덜란드만의 해외 개척 지원 그룹이다.

□ Mipim

부동산 관련 엑스포를 지칭하며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을 개발업자, 건축업자가 참여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상업적 측면은 mapic이라는 조직이 진행하고 있다.

□ Wonderland²²⁾

유럽 출신의 건축가들이 11개 국가들을 순회하면서 건축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난 후, 출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건축가가 부딪치는 문제점을 이슈로 현재까지 3권의 책을 발간하였다.

(2) 스코틀랜드

① 해외 홍보의 정책적 지원 현황

“스코틀랜드의 공간 환경은 우리 자신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지내기에 멋진 국가라는 해외에서의 인식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 수석장관 Jack McConnell²³⁾ -

건설 환경의 질이 사회 및 경제 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원칙 아래, 국민 삶의 질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수준의 디자인 확보를 위한 실천적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국의 건축적 성취 결과를 해외에 알리고자 하는 홍보의 정책적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 좋은 건축의 가치와 혜택을 증진하고, 국가와 각 지역의 삶 속에서 건축의 역할에 대한 토론을 고무하며, 건물 디자인의 결과물과 과정에 대해 이해를 증진한다.

22) <http://www.wonderland.cx>

23) Minister for Tourism, Culture and Sport etc., 2006, 'Building our Legacy'-statement on scotland's architecture policy 2007, pp.5

· 건축과 건설 환경 분야에서 디자인, 지식, 그리고 대표적인 성취에 있어 우수함을 양성하고, 스코틀랜드 건물을 자국과 해외에 활성화한다.

- 각 지역 건설 환경에 영향을 주는 시안들에 대해 더 나은 관심과 공동체 연관성을 장려한다.
- 자본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가치를 획득하는 수단으로서의 디자인을 아우르는 공공 출자 건물의 조달 측면에서의 질에 관한 문화를 향상시킨다.
- 개발에 있어 계획과 건물 기준 시스템, 그리고 디자인의 질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관련 과정들을 보증한다.

〈스코틀랜드 건축정책계획 목적²⁴⁾〉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 다양한 홍보 전략들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 관련 공모전 및 수상제도, 편찬 및 출판, 온라인 서비스 구축, 해외 진출 지원, 국제적 인력 양성, 국제적인 활동들과의 연계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표 2-8〉 스코틀랜드 건축정책계획 실천사항

〈스코틀랜드 건축정책계획 실천사항 ²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분야에서 대표적인 성과물을 대상으로 새로이 국가 차원의 수상 제도를 확립한다. · 학생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매년 수상을 한다. · 국가 주요 제안이나 각 지방의 중요한 관련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디자인 경연대회를 촉진한다. · 스코틀랜드 건축과 도시, 그리고 조경 디자인 관련 내용을 2년마다 재평가하여 편찬하는데 지원한다. · Historic Scotland를 통해 오래된 건물을 창의적으로 재사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그들의 보존, 수리, 유지에 필요한 기술을 발달시킨다. · Visit Scotland와 Historic Scotland와 함께 건축에 초점을 두는 온라인 여행안내를 개발한다. · Scottish Enterprise와 협력하여 국가의 창조적 산업 전략 내에서 건축을 활성화시킨다. · 예술가와 건축가의 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기위해 RSA “Art in Architecture”계획을 후원한다. · British Council과 Scottish trade International과 함께 협력하여 스코틀랜드 건축을 해외에서 활성화하도록 하는 기회를 개발한다. · 국제적인 인맥을 개발하고 스코틀랜드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The Lighthouse의 Reseau Art Nouveau Network와 European Route of Modernism에 대한 역할을 확립한다. · European Heritage Days를 후원하여 건축적 이해를 바탕으로 건물에 대한 대중적인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다. · European Architectural Policies Forum과 협력하여 건축을 장려하는 유럽의 선도적인 활동들과의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홍보 전략의 실행 기관으로서 The Lighthouse를 비롯한 다양한 건축 관련 기관을 설립하여 이에 대한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4) Scottish executive, A policy on architecture for scotland, pp.7

25) 위의 책, pp.9

The Lighthouse, Scotland's centre for Architecture, Design and the City에 건축지원 관련 활동, 이벤트, 선도 사업 등의 3년 단위 국가적 프로그램에 지원금을 제공한다.

〈건축정책계획 실천사항²⁶⁾〉

특히 2007년 이후, 행정부에서는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건축 및 공간 환경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을 지원해왔으며, 이러한 역할은 주로 The Lighthouse에 의한 국가 건축 프로그램으로 규정하여 행사, 전시 및 출판을 통한 정보의 제공과 자료 공유를 지원하고 있다.

② 건축 관련 총괄 자문기구 - A+DS²⁷⁾

Architecture and Design Scotland(A+DS)는 기존 장관, 지역 당국 및 기타 기관의 개발 사안에 대한 자문을 맡아온 스코틀랜드 왕립순수예술위원회(RFACS)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 2005년 4월 설립되었으며, Non Department Public Body(NDPB)의 자문기관으로서 건축 정책의 목표를 위한 주요 구조 장치로서 활동하고 있다. 충분한 자금 지원과 좋은 디자인을 위한 진흥 정책의 마련을 위해 기존의 왕립순수예술위원회(RFACS)보다 광범위하며 미래지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건축과 공간 환경의 우수성을 이끄는 역할을 담당하며 행정부의 계획 정책을 보조한다. 이 기구의 목표는 새로운 개발에 있어 질을 높임으로서, 높은 수준의 디자인 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유명 건축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건축의 질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정책적 조언뿐만 아니라 디자인 리뷰(Design Review)를 통한 지원, 개발 및 지지, 연구 및 커뮤니케이션 등에 이르는 책임을 맡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재생 등 주요 분야의 정책 개발을 지원
- 디자인 리뷰의 연구 결과들을 테마화하여 발행
- 지역 당국, 개발자 및 여타 관계자들이 ‘장소의 설계’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
- 사례 연구를 통해 최선의 실무를 권장
- 지속 가능한 방향성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

26) 위의 책, p.8

27) Minister for Tourism, Culture and Sport etc., 2006, 'Building our Legacy'
-statement on scotland's architecture policy 2007, pp.8, pp.17

③ 건축문화진흥 실행기구 - The Lighthouse²⁸⁾²⁹⁾

많은 대중들에게 건축 및 공간 환경에 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도시와 건축 개발에 있어 대중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스코틀랜드의 건축 디자인과 도시 센터(Center for Architecture Design and the City)로서 HM Queen Elizabeth에 의해 1999년 7월 개설되었다.

□ 주요 역할 및 업무성과

‘ACCESS to Architecture’라는 새로운 목표 아래 각종 홍보 활동, 행사, 전시 및 출판 등의 노력을 통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적·지역적 차원의 다수 조직을 연계하여 홍보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가 건축 프로그램들을 개발 관리해오고 있다. 주요 역할은 첫째, 전시, 간행물, 디지털 자원 등을 통해 뛰어난 신진 건축, 젊은 인재, 건축 트렌드 등을 진흥하는 정책과 둘째, 건축에 관한 논의를 스코틀랜드 지역 공동체로 일반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의 두 가지 전략으로 구분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9〉 The Lighthouse 건축문화 홍보 관련 주요 사업

주요사업		세 부 내 용
전시 ³⁰⁾	기본전시 (Keyno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코틀랜드 건축에 시대적으로 영향을 미쳐온 요인들을 짚어보고 폭넓은 대중의 참여를 유도 · 격년제로 운영되며 국내 및 국외 투어와 각종 세미나, 간행물 및 관련 교육 자료가 전시를 보조함
	스코틀랜드 건축전 (Architecture in Scotl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년제로 발간되는 스코틀랜드 건축 리뷰들에 대두되는 주제와 스코틀랜드의 도시, 교외 및 전원 건축, 경관 분야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소개 · 상업단지 개발에서부터 소규모 주택에 이르기까지 현대 스코틀랜드 건축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음
	‘SIX’ 학생 수상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코틀랜드 왕립 건축가협회(RIAS)와 공동으로 해마다 여섯 개의 건축학교 학생들의 최우수 작품들을 전시하고 대중과 전문인들을 통해 학생 작품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X’ 전시의 연장선상에서 젊은 신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미래전시가 기획되고 있음
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AS, A+DS의 참여를 통해 건축, 도시, 경관 디자인에 관한 세 개의 격년제 리뷰를 발행하고 있으며, Keynote 전시와 함께 발행되어 온 간행물에 대한 기록을 잘 정리하고 있음

28) 앞의 책, pp.37~40

29) <http://www.thelighthouse.co.uk/>

디지털 자원 31)	Scottisharchi tecture.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2년에 개설된 이후 스코틀랜드 건축 및 공간 환경에 관한 온라인 자료 구축의 중심점이 되어오고 있으며, 건축 관련 뉴스, 기획 프로젝트, 전시 및 투어(tour)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포털 사이트로서의 역할을 담당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시스템을 통해 국가가 주최하는 전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각종 의견과 토론을 수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 수요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장을 마련
	www. wust.org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적 건축 프로그램과 관련된 각종 보고서 및 문서, 사례 연구에 대한 온라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상(Awar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RIAS Doolan Award for Best Building in Scotland Scottish Awards for Quality in Planning Lighthouse Achievement Award Creative Entrepreneur of the Year SIX Student Awards for Architecture Glasgow 1999 Design Medal Scottish Eco Prize for Creativity 수상작들을 전시 아이템으로 활용하여 대중들에게 우수한 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킴
Festiv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섯 개 도시에서 3주 동안 진행되는 이벤트로서 6개 도시 디자인 축제(Six Cities Design Festival)³²⁾ 개최하여 지역 사업체 및 학교와 협력하여 미래 디자인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 기여하면서, 대중이 스코틀랜드 및 해외의 우수한 디자인을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 Glasgow Mackintosh Festival 2006 BLOCK: Architecture Festival Glasgow 2005
국제사업과의 연계 ³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Entente Cordiale, Scotland with Catalonia, Venice & Rotterdam Biennale 및 다양한 국제행사의 적극적인 참여 gau:di와 Art Nouveau Network와 같은 범국가적인 프로젝트 연계

30) 2001년 이후 국가 건축 프로그램은 15개의 전시를 실시했으며 이중 7개는 스코틀랜드의 12개 개최지를 순회했으며, 4개는 카탈로니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를 순회하였으며 200,000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

31) Scottisharchitecture.com, www.wust.org, www.sust.org 등은 스코틀랜드 건축 및 공간환경에 관한 온라인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약 5백만 이상의 방문자 기록을 갖고 있음

32) Scotland의 Aberdeen, Dundee, Edinburgh, Glasgow, Inverness, Stirling 의 도시에서 2007년 5월17일~ 6월3일까지 개최됨. 스코틀랜드가 첫 번째 전국가적 국제적 디자인 페스티벌을 주최함. 300개 이상의 전시회, 강연, 워크숍, 이벤트를 개최하였으며, 약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함. 열정적이고 생동하는 스코틀랜드의 디자인 산업을 부흥시키고, 재능 있는 스코틀랜드의 디자이너들을 지원하였음. 이 페스티벌로 우수한 디자인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산업적 성공 뿐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디자이너들을 고취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음.

33) 유럽건축정책포럼이 유럽연합의 대표가 된 것을 기념한 이벤트 주최(2005)를 통해 스코틀랜드의 건축에 대한 정보와 국제적으로 인식시키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3) 핀란드

① 해외홍보의 정책적 지원 현황³⁴⁾

핀란드 건축정책의 기본 방향은 자국 건축문화의 육성·보존과 함께 국제적인 건축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해외홍보의 기반 구축을 위한 선언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 건축정책의 목적은 향후 공공 부문의 정책 시행을 위한 건축적 틀과 목표를 규정하는 것이다. 정부의 건축정책은 건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기존 건축물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이기 위한 지침을 제시한다. 또한 건축정책은 기존의 건축 기준을 개선하는 동시에 세계화된 시장에서 건설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을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핀란드 건축정책의 목표³⁵⁾〉

건축정책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기관의 설립과 역할을 규정하여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하며, 이러한 예로 건축 문화유산의 보존과 건설 문화의 기반 확보를 위한 ‘핀란드 건축 박물관(Museum of Finnish Architecture)’ 과, 건축의 원칙 공유 및 건축 전문 교육을 위한 ‘핀란드 학술원(The Academy of Finland)’ 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② 국제 교류의 기반으로서 건축박물관 : 핀란드 건축박물관 MFA (Museum of Finnish Architecture)³⁶⁾

‘핀란드 건축의 활성화, 보존, 지원(promote, maintain, support Finnish Architecture)’이라는 목적 아래, 전시와 출판이라는 주요 활동을 바탕으로 핀란드 건축문화를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건축정보센터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필요한 재정은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받고 있다.

□ 주요 역할 및 업무성과

건축 전문 출판사와 핀란드 건축박물관, 언론사들은 정기적으로 건축에 관한 출판과 정보의 확산을 위해 발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핀란드 건축박물관은 출판 프로젝트와 실무 저널리스트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34) Arts Council of Finland/ Ministry of Education, 1998, The Finnish Architecture Policy, The Government's architectural policy programme 17 December 1988, pp.5~27 참고

35) 앞의 책, pp.5

36) www.mfa.fi

주요 역할은 첫째, 건축 관련 자료의 수집 보관 둘째, 건축 관련 연구지원 셋째, 전문가 및 대중의 관심 고조 넷째, 건축계의 국제적·문화적 연대 관계 지원이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10〉 핀란드 건축박물관의 건축문화 홍보 관련 주요 사업

주요사업	세 부 내 용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전시회, 지역 전시회, 핀란드 내 투어(tour) 전시회로 구분하며 2006년에만 총 1351개 전시회를 개최함³⁷⁾ · 업무는 Finnish architecture에서 총괄하며,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for Foreign Affair에서 재정을 부담하여 주로 해외에서의 전시 혹은 해외건축 전시를 초청함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포괄적인 컬렉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출판 ³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 270여개의 서적을 출판하였으며, 핀란드 건축문학, 연간 간행물 제작, 논문 및 특정 주제에 대한 서적을 대상으로 함
강연,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8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Finnish Architecture와 Finnish Architectural Competition의 자료를 중심으로 워크숍 및 강연회를 주최함
국제 협력 프로그램과의 연계 ³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u:di project, 알바알토 심포지엄, Finnish Architecture 전시회, 건축박물관 국제연합(ICAM), 건축물 보존을 위한 국제 조사위원회, DOCOMOMO 등의 국제적 프로젝트와 연계함.

③ 연구를 통한 국제 간 연계 - 핀란드 학술원(The Academy of Finland)⁴⁰⁾

핀란드 학술원은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산하 기관으로 대학 및 연구소의 과학적 기초 연구와 연구 거점 및 교육을 지원⁴¹⁾하며, 특히 기초 연구에 있어 자금을 지원하고 기획하는 핵심기관이다.

□ 주요 역할 및 업무 성과

주로 대학과 정부 연구소의 기초 연구를 지원하며, 일부 연구 프로그램들은 기술개발청, 정부 부처들 또는 산업계와의 협력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37) 887개 전시회는 핀란드에서, 413개 전시회는 지역에서, 464개 전시회는 해외에서 개최됨

38) 박물관 전시와 관련된 출판물이나 100여개 전시회 카탈로그 및 브로슈어를 포함

39) 핀란드가 EU에 가입하고, EU Member states와 협력하게 된 이후로 이러한 범국가적 프로젝트와의 연계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음

40) <http://www.aka.fi/fi/A/>

41) 핀란드 학술원에 의해 연구시스템과 연구 환경을 발전시키는데 기여가 큰 분야로 선정된 국가우수센터(National Centers of Excellence)는 5년간 특별 자금을 지원하며, 2007년에 모든 과학 분야에서 39개의 우수센터를 지원함

학술원에는 4개의 연구심의회(research councils : 문화와 사회 연구심의회, 자연과학과 공학 연구심의회, 보건연구심의회, 환경과 천연자원 연구심의회)가 있는데 연구심의회들은 자신의 특정 분야에서 학술원 모든 활동들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축에 관한 기초 연구와 사업 교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4) 시사점

①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 구축

네덜란드 NAI의 경우 아카이브와 전시관 및 도서관의 복합적인 운영으로 일반 대중과 건축 전공자를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조합을 이루며 수집-보관, 전시, 연구-출판으로 구성된 주요 기능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The Lighthouse는 다양한 수상 제도 설립과 디자인 축제 등을 통해 전시 콘텐츠를 발굴하고 전시 이후 출판 사업과 연계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건축 자료들을 웹(web) 기반의 정보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국내외의 건축 전공자 및 일반인들에게 건축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고 있다. 핀란드는 건축 자료의 수집에서 연구, 출판, 강연, 전시, 세미나 등의 일련의 과정이 핀란드 건축박물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되어 활성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축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구축, 건축 관련 콘텐츠 연구, 홍보 실행 기능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홍보 업무가 가능하게 한다.

② 정책에 기반을 둔 활동 지원

건축 관련 기관의 홍보 및 국제 교류 활동은 정책 입안을 위한 사전 연구와 입안된 정책의 대 국민 홍보, 토론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담론 형성을 통해 도시의 개발 및 정책 방향에 영향을 끼친다. 건축정책을 바탕으로 실행 기관 및 예산 지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홍보 전략의 구축과 교류 사업을 가능하게 하고, 각 실행 기관에서는 건축문화의 인식 확산을 위해 홍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③ 국제적인 협력을 위한 전략

모든 연구를 네덜란드어와 영어로 출판하고 독일, 스페인, 프랑스 및 이탈리아 출판사들과 공동 출판을 하여 세계 전역에 출판물을 공급하고 있는 NAI출판사(NAI publishers)의 활동에서 드러나듯이 네덜란드 건축 기구의 연구물들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자국의 건축 홍보에서 그치지 않고 gau:di, ICAM 등의 범국가적인 프로젝트나 교류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표 2-11〉 건축정책에 의한 주도적 홍보 업무

	건축정책기관	실행기관	국제 홍보 관련 업무
네덜란드	· 각 부처간 협력단 (the Interministerial Platform For Architecture Policy)	NAi The Berlage Institue	· 네덜란드 건축기구(NAi Maastricht) 설립 · 공개모형창고(Open Model Storage) 설립 · 해외교류 지원 프로그램 개설(NAi international) · 건축정보교환 지원 프로그램(NAi Debates on Tour) · 네덜란드 전역 건축 답사 프로그램 운영 · 건축 아카이브(스케치, 드로잉, 사진 및 모형 등) 전 세계 순회전시 (로테르담 국제 건축 비엔날레 등) · 강연회, 심포지엄 개최와 이와 연계된 전시, 출판 · 건축 도시 및 예술관련 도서 출간 · 건축 관보 출간(Architecture Bulletin) · 건축상 수여(AM NAi prize)
스코틀랜드	건축정책부서 (Architecture Policy Unit) 건설자문 및 정책부서 (Construction Advice and Policy Division, CAPD) RIAS (Royal Incorporation of Architects in Scotland) Historic Scotland	A+DS (Architecture and Design Scotland) The Lighthouse	· A+DS, the Lighthouse 설립 · 국가적 캠페인 구축 'Access to Architecture' · 전시(Keynote, Architecture in Scotland, Six) · 출판(격년제 리뷰지, Keynote 전시 간행물) · Web 홍보기반 구축 (Scottisharchitecture.com) · 수상제도 (RIAS Andrew Doolan award, Light house 공로상) · 디자인 Festival(Six Cities Design Festival) · 해외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다양한 국제행사나 프로젝트, 기구와의 연계 시도)
핀란드	정부청사건설청 (The State Real Property Authority) 국가유산위원회 (The National Board of Antiquities) 전국교육위원회 (The National Board of Education)	핀란드 건축박물관 (Museum of Finnish Architecture) 핀란드학술원 (The Academy of Finnish)	· 국제교류 목표설정 promote, maintain, support Finnish Architecture' · 전시회(국제전시회, 지역전시회, tour 전시회) · 연구(아카이브, 컬렉션에 관한 연구) · 출판(핀란드 건축문학, 연간 간행물 제작, 건축서적 발간) · 강연(다양한 주제의 워크숍 및 강연회 주최) · 국제협력 프로그램과의 연계 (ICAM, DOCOMOMO 등)

3) 국가 간 연계를 통한 해외 교류

(1) 범국가적 기구를 통한 해외 협력

① 범세계적 기구 - UIA(The 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⁴²⁾

UIA는 국적, 인종, 지역, 건축적 원칙과 관계없이 세계적으로 건축계를 통합하기 위해 1948년 스위스 로잔에서 설립된 기구로서 전 세계적으로 123개국 130만 건축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각국의 정부 협회 및 비정부 협회와 제휴를 맺고 권역별 건축조직과 연계되어 건축과 관련된 세계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조직 구성

〈표 2-12〉 UIA의 의결 4단계

의결단계	세부내용
the UIA General Assembly	단체의 최고 입법 기관, 3년마다 열림
the UIA Council	사무국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UIA의 5개 지역 Region I - Western Europe, Region II - Eastern Europe and the Middle East, Region III - The Americas, Region IV - Asia and Oceania, Region V - Africa 로부터 4명의 대표가 선발됨. 2년마다 개최
the UIA Bureau	의장, 이전 의장, 비서관, 재무장관, 부의장으로 구성됨 2년마다 개최되며 UIA Council과 격년으로 운영됨
the UIA Member Sections	각 나라에서 건축 전문 조직의 대표로 구성됨

□ 주요 활동

1975년 이후로 UIA는 국제공모전 인증 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세계 모든 건축교육과정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건축전문직 개발 프로그램⁴³⁾으로 건축실무와 함께 그 바탕이 되는 건축교육, 전문직 훈련의 다양화를 꾀하였다. 또한 1961년 시작하여 3년마다 수여하고 있는 UIA Prize⁴⁴⁾ 수상제도는 우수한 재능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친 건축가들

42) <http://www.uia-architectes.org>

43) 'UNESCO/UIA CHARTER FOR ARCHITECTURAL EDUCATION' (건축교육헌장), 2005

44) UIA Prize - The Sir Patrick Abercrombie Prize(도시계획이나 지역 개발), The Auguste Perret Prize(건축기술), The Jean Tschumi Prize(건축 교육 및 비평), The Sir Robert Matthew Prize(인간의 거주환경의 질 발전)

선정하고 있으며, 1984년 UIA Council에 의해 시작된 Gold Medal은 뛰어난 작업성과나 높은 질의 전문적 서비스로 사회에 기여한 건축가 단체나 건축가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수여하는 수상제도이다.

② 범세계적 기구 - 국제건축박물관연합(ICAM)⁴⁵⁾

ICAM은 국제건축박물관연합으로 건축박물관, 센터, 컬렉션을 위한 조직이며, 건축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증진시키고 모든 관련 단체 사이의 연계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 아래 건축 기록의 보존, 건축 환경의 보호와 질의 증진, 미래를 위한 건축 역사 연구 등을 통해 대중이 건축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와 전문적 성과의 교환을 촉진하고자 한다.

□ 주요 활동

건축 기록물을 보관/ 전시하고 각 가입 구성원들은 전문기술, 정보, 단체, 전시, 출판, 건축적 문서 등 건축적이거나 박물관적인 이슈 생성과 이 외에도 기타 공동의 관심사에 관한 문제점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 각 네트워크는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단계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있다.

〈표 2-13〉 국제건축박물관연합 주요 활동

주요사업	세 부 내 용
아카이브 관련	· 건축 드로잉과 아카이브를 판매하며 특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한 ICAM만의 접근 방식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Web기반의 홍보 기반을 구축하여 다양한 테마를 소개하고 있음
컨퍼런스	· 1979년에서 현재까지 2년마다 한 번씩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 때 진행된 사항은 출판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음. ICAM president인 Michael Snodin(1998-2006)의 정책 제안으로 기존 영어로만 진행되어오던 진행방식을 국제화를 위한 수단으로 영어 이외에 스페인어, 카탈로니아 어, 프랑스 어를 주 언어로 채택하여 공식 언어로 4개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
Architectural Information system	· 건축문화유산의 보존, 부흥, 육성을 위한 기구로서 다양한 연구자, 학계, 일반인의 참여를 유도하여 Archives와 Architecture Museum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디지털 정보화 작업을 통해 정보의 전산화에 집중하고 있음

45) <http://www.icam-web.org>

③ 유럽권 기구 - 유럽건축의회(ACE, Architects Council of Europe)⁴⁶⁾

이전의 Liaison Committee of the Architects of the United Europe (CLAEU)와 Council of European Architects (CEA)의 합병으로 1990년 5월11일 이탈리아 Treviso에서 설립되었으며, 유럽 건축 전문가들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브뤼셀에 근거하며 회원들은 모든 EU 회원국가들과 스위스, 노르웨이 등의 전문적인 대표자들의 단체로서 유럽에서 약 45만 명 이상의 건축가들을 대표한다. ACE는 EU차원에서 적절한 건축정책들에 대한 검토와 법률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건축적 실험들을 지원하는 EU 정책들과 건축 환경의 지속가능한 유지 방안에 관한 정책들을 제안한다.

2002년 6번째 유럽환경정책 프로그램으로 “환경 : 2010 우리의 미래, 우리의 선택”을 개최하였고, 경관 가치와 도시 및 시골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시민을 위한 사회복리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중소기업,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과 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정부 간 네트워크로 인해 수반되는 참조문헌을 발행하거나 회의개최, 세미나, 정보의 교환을 통해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④ 유럽권 기구

- 유럽건축정책포럼(EFAP, European Forum on Architecture Policies)⁴⁷⁾

모든 EU 회원국과 전 유럽을 대상으로 건축 정책 분야에서 활동하는 비공식적인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로서, 2000년 파리에서 창설되었으며 관계자 또는 공무원, 문화기관(건축박물관, 연구기관) 및 건축 직능단체 등을 아우르는 문화기구(건축 뮤지엄, 연구단체, 혹은 이와 비슷한 설립단체 등)이며 넓은 범위의 전문 건축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정책으로 도시 및 경관의 질을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삶의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견해를 국가 및 전 유럽적인 차원에서 교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두 차례의 모임을 가진다. 세부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web site 개설 (www.architecture-forum.net)
- 대중적 이벤트로서 ‘European Festival of Architecture’ project진행
- ‘도시와 유럽지역에서 현대 건축의 질’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 유러피안컨퍼런스 개최 ‘ Architectural Policy and the

46) <http://www.ace-cae.org/>

47) <http://www.efap-fepa.eu/indexb.php?lg=en>

⑤ 아시아권 기구 - ARCASIA(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⁴⁸⁾

ARCASIA는 1967년 Commonwealth Association of Architect(CAA)의 뉴델리 컨퍼런스 기간 중에 구성되었다. 각 회원 협회들의 지역적 프로그램과 관련성을 확대하고 연계하는 조직으로서, 아시아 지역에서 민주적으로 국가별 건축가 협회(National Institutes of Architects)를 결합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ARCASIA 의회는 국가별 건축가 협회(the National Institute)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국가별 연대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의 건축 전문직에 영향을 미칠 사안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 조직 구성

Chairman	Ar. Kun Chang Yi(KIRA)
Deputy Chairman	Zone A Ar. Mubasshar Hussain(IAB) Zone B Ar. Tan Pei Ing(PAM) Zone C Ar. Geroge Kunihiro(JIA)
Honorary Secretary	Ar. Alice Jae Hee Choy(KIRA)
Honorary Treasurer	Ar. Young-Soo Lee(KIRA)
Immediate Past Chairman	Ar. Yolanda Reyes(UAP)
Advisors	Ar. Barry Will(KIRA) Ar. Syed Zaigham Jaffery(IAP)
Permanent Advisors	Ar. Surath Wickramasinghe(SLIA) Ar. Ronald Poon(HKIA)
ACAE Chairman	Ar. Divya Kush(IIA)

〈그림 2-6〉 2008 ARCASIA 조직 구성표

□ 주요 활동

2년마다 개최되는 주요 지역 컨퍼런스로서 ACA(Asian Congress of Architects)가 있으며, 수상제도인 ARCASIA Award는 매 2년마다 개최되는데 아시아에서 건축가들의 활동에 의한 우수한 작업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48) <http://www.arcasia.org>

ARCASIA의 저널도 출판하고 있다. 또한 Student Jamboree 프로그램을 통해 재능 있는 아시아의 건축과 학생들이 여행을 통해 서로간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ARCASIA와 아카시아 교육위원회(ACAE, ARCARSIA Committee for Architectural Education)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 국제적 연계 project를 통한 해외교류

① 근대건축물 보존을 통한 교류 - DOCOMOMO⁴⁹⁾

도코모모는 근대운동에 관한 건물과 환경형성의 기록·조사 및 보존을 위한 조직(Documentation and Conservation of buildings, sites and neighborhoods of the Modern Movement)의 약자로, 1990년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공과 대학에서 열린 국제회의를 계기로 발족된 프랑스 파리 건축박물관 내에 있는 국제단체이다. 서유럽과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40여 개국과 지역이 참가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존중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회원은 건축 역사가 외에 문화예술가·건축가·기술자·행정관료·시민 등 도코모모의 취지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2년마다 국제회의를 개최하며 한국에서도 유럽·미국·일본·동남아시아 등과 연계하여 문화계 인사들과 뜻을 모아 사라져가는 근대문화유산을 보존·기록하기 위해 2003년 5월 2일 한국지부인 도코모모 코리아가 발족되었다. 현재 9개 국내 지회와 미국 지회를 두고 있으며 건축 문화유산과 관련된 전시회·심포지엄·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있다. 도코모모 international은 현재 52개의 업무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2000여명 이상의 회원이 있다.

□ 주요활동

- 건조 환경과 관련된 근대건축운동(the modern Movement in Architecture)의 중요성을 각종 공공기관, 교육기관 및 일반에 널리 알린다.
- 근대건축운동의 결과물로서 건축허가서류, 각종 도면, 사진과 같은 문서자료를 포함한 기록들을 확인하고 이 작업을 지속해 나간다.
- 근대건축운동에 의한 작품의 보존에 관한 적절한 기법과 방법을 발전시키고 이러한 지식을 건축계 전체를 통해 전달한다.
- 근대건축운동에 의한 건축 작품의 훼손과 파괴에 반대한다.
- 근대건축운동에 의한 작품의 문서화 및 보존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모색하고 유치한다.

49) <http://www.docomomo-korea.org/>, <http://www.archi.fr/DOCOMOMO/index.htm>

- 근대건축운동의 지식을 계발하고 발전시킨다.

이 외에도 2년마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각종 분야의 국제 세미나도 개최하며, The Docomomo Journal을 매 2년마다 발행하는 등의 출판 사업도 시행한다. 또한 근대건축 보존 캠페인을 실시하여 벨기에,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프랑스, 덴마크, 러시아, 폴란드, 스웨덴, 스코틀랜드, 이탈리아 등지에 있는 중요한 근대 건축을 보호하고 있다.

② 유럽 내 문화정책 프로젝트 - gau:di⁵⁰⁾

EU에서 culture 2000이라는 행사 이후 유럽의 문화적 공동의식 함양을 목표로 시작하게 된 gau:di(Governance,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 Democracy and Interaction)는 유럽 내에 건축문화의 전파를 촉진하고자 결성된 유럽문화기관들의 네트워크⁵¹⁾로서 유럽의 건축적, 도시 문화적인 성과들을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결합시키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며, 파트너 간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적인 활동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공동 운영에 필요한 방법들을 제공한다. 또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목적으로 유럽에 건축센터를 설립하여 협업의 발판을 마련하고, 전략적으로 건축 전시나 출판, 교육 프로그램, 이벤트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확산시킬 방법을 함께 고민한다.

〈표 2-14〉 gau:di project 주요 사업

주요사업	세 부 내 용
아카이브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연구를 위한 1차 자료부터 관련된 주제뿐만 아니라 건축전문직의 개발에 이르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원고, 출력 및 인쇄 자료, 일러스트 등을 포함하여 장단기간의 아카이빙에 대한 방법과, 기록 보존에 관한 권고형식의 가이드라인⁵²⁾을 공유함 현시대의 건축에 대한 기록 자료의 관리, 디지털 기록의 보존 등에 관한 Archive(Architectural records)⁵³⁾
공모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의 건축, 도시설계,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Competition 공모
초청강연, 심포지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문화유산의 보존, 부흥, 육성을 위한 기구로서 다양한 연구자, 학계, 일반인의 참여를 유도하여 Archives와 Architecture Museum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디지털 정보화 작업을 통해 정보의 전산화에 집중하고 있음

50) www.gaudi-programme.net

51)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관은 Architektur Zentrum Wien(Austria), CAMT(Centre des Archives du Monde du Travail), IFA(Institut Français d'Architecture, France), DAM(Deutsches Architektur Museum, Germany), RIBA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Great Britain), Suomen Rakennustaitelinstituutti(Finland), Centre International pour la Ville, l'Architecture et le Paysage(Belgium), Ordine degli architetti di Roma IUVA, Istituto Universitario di Architettura di Venezia(Italy) 등 있음

각종 행사	· 새로운 New town에 관한 초청강연, 심포지엄, 전시 등을 개최
컨퍼런스 ⁵⁴⁾	· 전문 기록 보관인, 건축과, 연구자, 건축역사가, 컴퓨터 및 IT 관련 종사자 등 다양한 건축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
토론회	· 프로젝트 계획에 대한 질문, 신진건축가, 현시대의 논쟁을 다루는 연간 토론회 개최(Coup de des 주사위 던지기)
출판	· 건축, 도시영역 및 조경 분야의 활동을 지원하는 서적발간, 포탈사이트 지원 사업 등

③ 유럽 내 협력 네트워크 - Art Nouveau Network

1999년 'the Brussels Region Department of Historic Sites and Monuments'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로부터 유럽인들의 대규모 협력 네트워크로 'European Art Nouveau Network'⁵⁵⁾가 결성되었다. 연구, 보존, 전시 등 대규모 프로그램의 기획을 통해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지원하고, 특정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건축 및 도시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Art Nouveau & Society' 라는 타이틀 아래 3가지 구조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다수의 연간 프로그램(Innovation Labs, Historical Labs, Exchange Platforms)을 고려하고 있으며 'Art Nouveau & Society' 는 유럽형 아르누보가 과거와 현재의 도시와 연결되어 있는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맥락을 실험하고 있다.

〈표 2-15〉 Art Nouveau Network 주요 사업

주요사업	세 부 내 용
Multimedia presen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éseau Art Nouveau Network 의 핵심 활동은 'Art Nouveau & Society' 라 칭하는 Multimedia presentation임. - 이것은 네트워크 파트너들을 위해 영구적인 기술로 디자인되어 아르누보의 문화 사회사를 보여줄 것임. - 대화의 수단으로서 멀티미디어는 특히 네트워크 내부의 모든 언어를 다루어야 하므로 많은 이점을 제공함.

52) aae, 2004, 'Guidelines to managing architectural records', gau:di

53) 아카이브 관련 프로젝트로 'Architecture Archives in Europe'이 있으며 이는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gau:di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The European Cultural Heritage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건축 연구를 위한 1차 자료부터 관련주제 및 건축전문지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과 S, <http://www.architecturearchives.net/>

54) 'Architecture in the digital age : a question of memory' 2007.11

55) Réseau Art Nouveau Network : <http://www.artnouveau-net.eu/>

전시회	'Art Nouveau in Progress' : 이동 전시회, 2003-2007 TERRASSA 9,5,2003 - 22,6,2003 BRUXELLES - BRUSSEL 10,7,2003 - 12,10,2003 PROVINCIA DI VARESE 6,11,2003 - 4,1,2004 BARCELONA 29,1,2004 - 28,3,2004 NANCY 22,4,2004 - 20,6,2004 ÅLESUND 15,7,2004 - 10,10,2004 GLASGOW 29,10,2004 - 23,1,2005 HELSINKI 4,3,2005 - 29,5,2005 RIGA 4,8,2004 - 2,10,2005 PRAHA 11,10,2005 - 10,11,2005 BUDAPEST 21,11,2005 - 31,12,2005 LJUBLJANA 18,1,2006 - 18,3,2006 LA CHAUX-DE-FONDS, 30,03,2006 - 18,05,2006 BAD NAUHEIM, 9,9,2006 - 29,10,2006 LODZ, The Art Center, 3,11,2007 - 25,11,2007
교육	Training in Barcelona : 12 to 16 November 2002 Training in Bruxelles-Brussel : 29 September to 3 October 2003 Training in Ljubljana : 13 to 18 September 2004
연구	- Research Database 운영 : 접근하기 어려운 각 대학의 도서관에 있는 숨겨진 아르누보에 대한 학문적 연구 자료들을 database 화하여 운영 - 다수의 흥미로운 문서센터와 아카이브가 유럽 전역에 걸쳐 있으며, 여기에는 아르누보 문학, 문서, 도면, 디자인 등의 흥미로운 수집물들이 있음 - database는 연구자, 편집자, 아르누보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 학생들 등 모든 다른 면에서 서비스로 제공됨 - 유럽에서의 건축 아카이브의 일반적인 리스트들은 gau:di 프로그램에 의해 만들어진 "Architecture Archives Europe" (http://www.architecturearchives.net)의 웹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함
Image bank	- 이미지뱅크는 네트워크 내의 협력 도시들의 유산들에 대한 시각적 개요들을 제공함 - 벨기에의 사진기록가 Serge Brison에 의해 만들어진 3000여개의 흑백사진들을 포함함
출판	- Réseau Art Nouveau Network의 브로셔 1999-2004 - 전시회 카탈로그 - 교육 출판물

(3) 시사점

① 국제적 기구를 통한 유대 강화

유럽, 아시아, 미주 등 세계 권역별로 해당 지역의 건축 발전을 위해 설립된 각종 국제기구는 지리적인 접근성을 바탕으로 자료의 공유와 인적 교류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간 활발한 해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② 범국가적 프로젝트를 통한 국가 간 연대

다자간 공공의 목표를 위하여 설립된 범국가적 프로젝트는 참여국의 건축문

화 공동의 발전을 유도하며 이를 통해 건축문화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국제 교류를 위한 창구를 제공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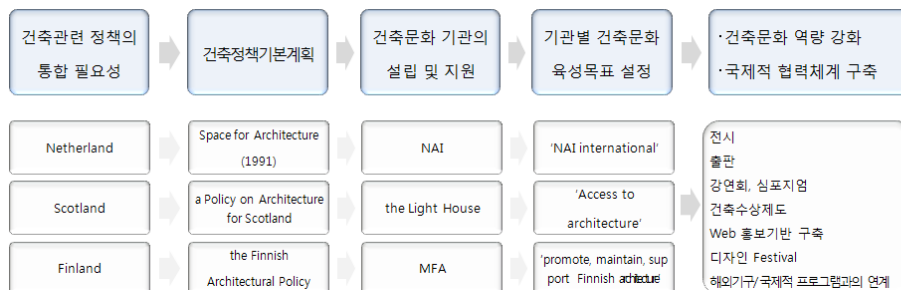
③ 국가별 건축 교류기관의 전문성 강화

국가 간 건축 교류를 위해서는 각국의 건축문화의 구체적인 실행 업무를 바탕으로 전문성이 확보된 건축 기관의 설립(건축박물관, 연구소, 건축센터 등)이 필수적이며, 기관 상호간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 건축 교류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4) 소결

건축정책 기본 계획이 시행된 국가에서는 정책의 기본 방향을 기반으로 건축문화에 관련된 기관을 설립하여 건축문화 홍보 업무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민간의 홍보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홍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건축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건축문화에 관련된 업무를 종합할 수 있는 기관 및 기구에서 해외홍보의 역할까지 담당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가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이러한 기관의 업무 범위가 차별적으로 설정되고 있다.

국가 간 연계 기구나 프로젝트를 통한 해외홍보 유형은 국제 교류를 위한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제공하지만, 참여 국가의 해외 진출 노력이나 전문성이 수반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동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국가 건축정책의 방향성이 설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관련 기구를 설립하여 건축에 관련된 정보와 홍보 업무를 전문화·집중화하여 범국가적인 프로젝트와 연계하거나,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7〉 건축 문화 홍보의 정책적 지원 프로세스

III.

주요 분야별 방향 및 추진과제

1. 해외홍보를 위한 정책적 방향 설정
2. 출판·전시 분야의 현황 및 분석
3. 출판·전시 분야 정책의 기본 방향
4. 출판·전시 분야 추진과제
5. 건축문화 해외 홍보를 위한 정책 방향에 따른 건축전문기관 설립에 관한 제언

(a u r i

주요 분야별 방향 및 추진과제

1 해외홍보를 위한 정책적 방향 설정

1) 정책의 기본방향

(1) 기본방향

① 국제 교류 통합 시스템 구축

건축문화 관련 아카이브, 연구, 홍보 실행 전문 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통하여 해외 홍보 및 국제 교류 시 필요한 전문성과 차별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공공 주체들의 상호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홍보 지원 업무 체계를 구축한다.

② 홍보 진행 프로세스 전략 수립

기획에서 국제 교류 실무에 이르기까지 진행 단계별 수행 전략과 실행 방안을 설정하고 민간이나 공공의 해외 진출 업무의 추진 목표로 제공하여 해외 교류의 효율성을 고취시킨다.

③ 국가 건축문화 지원 프로그램 개발

국가적으로 진흥 및 육성할 수 있는 건축문화 교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이들 프로그램들을 긴밀하게 연계하여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해외 홍보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해외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추진방향

건축문화 해외홍보의 정책적 추진 방안은, 건축문화 진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기본법의 ‘해외 홍보 및 국제 협력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갖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육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건축기본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단계적인 개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표 3-1〉 건축기본법 및 시행령 상의 해외진출관련 언급 사항

* 건축기본법 및 시행령 상의 해외진출관련 언급 사항
- 건축문화 진흥(건축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3조) 건축문화 기반 구축과 건축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기본계획에 명시토록 규정
- 건축문화 행사 추진 및 지원(건축기본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건축문화행사 추진과 지원 및 국민의 건축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를 위한 사업지원 등으로 명시
- 건축문화 관련 전문기관 설립지원(건축기본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18조) 건축기본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18조에서는 건축문화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이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
- 건축 관련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건축기본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18조) 건축기본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18조에는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건축 관련 해외진출 및 국제 교류 사업에 지원하도록 명시
- 출판 전시 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지원(건축기본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18조)

(3) 해외 홍보를 위한 추진 계획 및 주체별 전략

추진 계획에 있어서 총 3단계의 진행 프로세스를 가지는데

- 1단계는 건축정책위원회를 주체로 한 홍보방안을 선정하여 시범 적용하고
- 2단계에서는 건축정책기본법에 의한 건축문화 관련 홍보 실행 기관을 설립하여 실행력을 확보하며,
- 3단계에서는 건축문화와 관련된 타 기관과의 통합 체제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홍보 전략을 구상한다.

〈표 3-2〉 단계별 해외홍보 추진계획

단계별	1단계	2단계	3단계
추진계획	시범사업 적용	건축문화 관련 홍보기관 설립	홍보 통합체제 구축

건축문화의 해외 홍보를 위한 실천 전략을 ‘기반 구축’, ‘사업 수행’, ‘지원’의 3가지 유형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기반구축’은 건축문화 자체의 역량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법적 지원 기준과 건축문화 전문기관의 설립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단계이고, 건축문화 교류를 위한 진흥기금 마련 및 건축문화 홍보와 관련된 전문가 육성, 건축 자료의 수집 및 정보 시스템의 구축 등을 포괄하는 내용을 말한다. ‘사업 수행’은 직접적인 해외 홍보를 위한 실행 수단의 확보 및 실천 단계로서 그 사업의 내용은 주로 전시, 출판, 학술 교류 및 해외 협력 사업 등을 포괄한다. 마지막으로 ‘홍보 지원’은 축적된 건축문화의 역량을 바탕으로, 개발이 미흡한 Web기반의 정보 지원 서비스 구축과 민간차원의 국제 교류 활동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정책적 지원 방안의 내용을 포괄한다.

이러한 유형별 수행 전략의 실천 주체로서는 ‘중앙정부’, ‘건축문화 관련 기관’으로 이루어진 「공공부문」과, ‘학계’, ‘협회’, ‘관련 업계’ 등의 「민간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건축문화 관련 기관’은 해외홍보를 위한 건축문화 자료 구축을 담당하는 ‘건축도시박물관’, 홍보 및 국제 교류 전략과 콘텐츠를 발굴, 연구하는 ‘건축도시연구소’, 해외 홍보 업무를 전담하고 국제 교류의 전략적 교두보를 담당할 ‘건축센터’로 구성될 수 있다.

주체별 실천 업무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3) 주제별 해외홍보 실천 방안

홍보주체	추진전략	목 표	홍보 기반 구축		홍보 사업 수행 (출판, 전시, 교류사업)	홍보 지원 (정보망 구축, 민간 활동 지원)
			(법·제도, 기관, 기금, 인제육성, 정보구축)	(법·제도 마련 -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한 해외진출 제도적 기반 마련 · 건축문화 관련 조직 설립 · 건축도시박물관 설립(아카이브 연구) · 건축정책위원회(지문) · 건축센터(실행기관) · 재정적 지원책 마련 · 건축문화진흥기금 조성)		
공공 부문	정부 부처	정책 단위	· 법제도의 지원방안 · 지원 정부조직 설립	· 국제도 마련 -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한 해외진출 제도적 기반 마련 · 건축문화 관련 조직 설립 · 건축도시박물관 설립(아카이브 연구) · 건축정책위원회(지문) · 건축센터(실행기관) · 재정적 지원책 마련 · 건축문화진흥기금 조성	· 대규모 건축문화행사 기획	· 건축문화 소개 영문사이트 · 개설 및 운영 지원
민간 부문	학계 (학교 및 학회)	· 학회 · 학회 및 학회	· 건축 도시 박물관 · 건축 도시 연구소 · 건축 센터	· 아카이브 · 건축가 아카이브 시범사업 · 건축 도시 분야 정보화 사업 · 건축저널 DB 구축 · 해외진출을 위한 시장 조사 · 해외건축시장 현황에 관한 정기적인 보고서 발간 · 건축 관련 기초 연구 · 건축인문학서적 발간 · 홍보 전략 구축	· 해외 건축도시박물관과의 연계 · 해외 주요건축박물관과의 자료 연계 · 연구소 간 연계 · 국제연구소 간 국제적 협력망 구축 · 순회 전시 및 자료 교류사업 실시 · 기획 연구 · 작가론 개발 · 우수 건축 작품 발굴 · 수상제도 Award 신설 · 전시 - 전세계 순회전시 개최 · 출판 - 정기 간행물 발간 · 전시, 수상작 모음집 출간 · 건축 아카이브 자료집 발간 · 건축 축제 및 비엔날레 개최 · 해외학계 연계 · 학회 간 공동포럼 및 디자인 review전 · 건축서적 발간 · 학생작품 annual 발간 · 학생교류 전시 · 해외 혹은 학교 간 학생작품 교류 전시 · 강연 및 워크숍 개최 · 여론 형성 및 새로운 건축의 소개	· 건축문화 교류 Web 사이트 · 개설 · 건축정보 공유 및 해외교류 포털 개발 지원 · 국제적 협력 프로그램과의 연계
민간 부문	협회	· 민간 조직 차원의 자율적인 건축문화 역량강화 · 민간 차원의 교류 형성	· 건축 도시 박물관 · 건축 도시 연구소 · 건축 센터	· 아카이브 · 건축가 아카이브 시범사업 · 건축 도시 분야 정보화 사업 · 건축저널 DB 구축 · 해외진출을 위한 시장 조사 · 해외건축시장 현황에 관한 정기적인 보고서 발간 · 건축 관련 기초 연구 · 건축인문학서적 발간 · 홍보 전략 구축	· 대규모 건축문화행사 기획	· 건축문화 소개 영문사이트 · 개설 및 운영 지원

2) 주요 홍보 방안 선정

(1) 주요 방안 선정을 위한 원칙

① 효율적인 육성이 가능한 홍보 유형 우선 선정

국내 건축문화의 해외 홍보를 위한 실천 업무 중에서 그 역량이 취약하나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육성할 경우, 그 성장 속도나 기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유형을 선정하여 지원책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타 홍보 전략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② 파급 효과가 큰 홍보 유형 검토

해외 선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홍보 전략 중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면 서도 국제 교류에 있어 그 파급력이 큰 홍보 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내 현황을 비교하여 지원 방안을 검토하였다.

③ 우선 추진 가능한 홍보 시범 분야 선정

해외 홍보 및 국제 교류를 위한 지원 방안은 원칙적으로 국내 건축문화의 활성화 이후 국제 진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홍보가 가능한 유형을 선정하여 단기적인 육성을 통해 국제 교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 또한 시급하므로 이를 위해 현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추진 가능한 홍보 분야를 우선으로 선정하였다.

(2) 주요 실천 방안 선정

해외 및 국내 사례를 통해 건축문화 홍보를 위한 실천 사업들을 분류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이 출판, 전시, 강연, 수상 및 공모전, 웹기반 홍보, 기타 교류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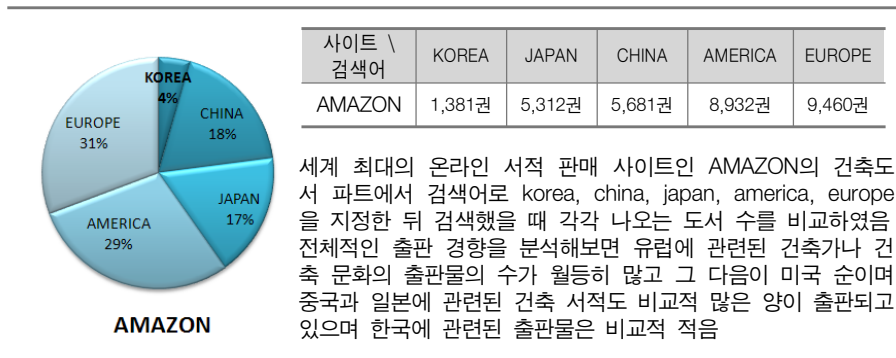
〈표 3-4〉 홍보사업의 분류

홍보 사업 구분	홍보 사업 내용
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론 개발 · 우수 건축 작품 발굴 · 정기 간행물 발간 · 전시, 수상작 모음집 출간 · 건축 아카이브 자료집 발간 · 학생작품 annual 발간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회 혹은 학교 간 학생작품 교류 전시 · 전 세계 순회전시 개최 · 건축 축제 및 비엔날레 개최 · 대규모 건축문화행사 기획
강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연, 워크숍 개최 · 국제 심포지엄, 포럼
수상 및 공모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현상 및 수상제도 Award 신설
웹 기반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관련 웹 사이트 개설 · 건축영상 자료 홍보
기타 교류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가 교류/ 상호 인증 시스템 도입 · 학회 간 공동포럼 및 디자인 review전 · 해외 주요건축박물관과의 자료 연계 · 국책연구소간 국제적 협력망 구축

① 현재 역량의 취약성과 효율적 효과 달성이라는 기준으로 분석

출판의 경우 해외 건축 도서 시장에서 한국 건축문화에 관한 도서는 매우 부족하며,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도서 또한 출판 부수 면에서 그 수량이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표 3-5〉 국가별 건축도서 검색 수량 비교(amazon.com)



전시의 경우는 해외에서 건축 관련 전시가 작가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최근 들어 주제전의 형태로 확산되고 있으며, 비엔날레의 형태로 참가하는 경우도 많으나 전시시장의 전체 규모에 비해서 비중은 극히 미약한

상태이다. 국내 강연의 경우 민간 기업이나 대학교 등에서 해외 권위자들을 초청하여 강연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해외 강연의 경우 전시, 출판, 수상 및 공모전 등과 연계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강연만 정기적으로 계획되는 경우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강연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에 그 역량은 미진하다.

수상 및 공모전은 ‘행정복합도시’, ‘서울시청’, ‘청계천’ 등 국내 대규모 프로젝트들의 진행 방식이 국제 현상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정착화 되어가고 있는 단계이나 주로 해외 건축가가 국내로 진입하여 인지도를 올리는 반면, 국내 건축가가 해외에서 국제 현상 및 수상권에 입상하는 사례가 드물어 단순히 행사 주최뿐만 아니라 건축 디자인의 역량이 수반되어야 한다. 웹 기반 홍보는 현재 국가가 주체로 하는 건축문화 홍보 사이트가 전무하나,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이나 높은 이용 수준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책임있는 관련 주체가 설립되어 건축문화 관련 콘텐츠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효과적인 홍보 수단으로 이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교류 사업의 경우는 건축문화와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부재한 현재로서는 주로 학회나 대학교 등의 학계에서 다소 활발한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현재 역량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홍보 성과 달성을 위한 우선순위를 고려해 보았을 때, 전시와 출판의 경우 홍보 주제와 역량이 용이하게 확보 가능하며 재정적인 지원과 일부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커서 그 홍보 성과가 쉽게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강연회와 수상 및 공모전은 사업 자체의 빈도수도 중요하지만 건축문화 자체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만이 지속적으로 홍보 효과 활성화 가능하고 웹 기반의 홍보와 교류 사업의 경우 홍보 콘텐츠의 충분한 확보와 건축문화 관련 주체의 설립을 선행되어야 홍보의 실효성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표 3-6〉 홍보 유형에 따른 홍보성과 달성 단계

유 형	효율적 홍보성과 달성 단계			
	분 석	단기	중기	장기
출판	· 재정 및 제도적 지원책을 통한 지원	○		
전시				
강연	· 건축문화 자체의 역량 강화가 수반됨			○
수상 및 공모전				
웹 기반 홍보	· 홍보 콘텐츠의 확보와 관련 주체의 설립이 선행		○	
기타 교류 사업				

② 파급효과

파급 효과가 직접적인 순으로 홍보 유형을 구분하였을 경우,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웹 기반 홍보 방안이 가장 효과가 크지만 홍보 콘텐츠 자체로 하는 정보 구축이 전제될 경우에만 그 유효성이 가능하므로 국내의 현실에는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 전시의 경우 직접적으로 해외로 진출함으로써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구축할 수 있고 동일한 주제로 다양한 지역⁵⁶⁾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출판물 통한 홍보의 경우 다른 홍보의 유형들과 직간접적인 연계가 가능하므로 모든 유형의 홍보 결과물을 생산, 보급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강연은 특성상 단독 추진보다는 기타 홍보 유형에서 부수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파급 대상이 짧은 기간에 소수로 한정됨으로써 그 효과가 미약하다고 볼 수 있고, 수상 및 공모전은 단일 행사로 그치지 않고 정기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사업의 신뢰도나 인지도의 확보가 수반되어야 하며, 전시/출판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 기타 교류 사업은 앞서 언급한 홍보 유형들을 지속적이고 다양하게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직접적인 홍보 수단을 지원하는 간접 지원책으로서 적절하다.

〈표 3-7〉 홍보 유형별 성과 파급 효과

유 형	홍보성과 직접 파급효과 순위			
	분 석	1차	2차	3차
출 판	타 홍보 유형과 연계하여 결과물 산출	○		
전 시	선도적으로 해외 진출이 가능하며 장기간 다양한 지역에 홍보 효과 파급	○		
강 연	일시적이며 홍보 대상이 소수에 국한		○	
수상 및 공모전	국제적 인지도가 확보된 프로젝트에 한정됨		○	
웹 기반 홍보	홍보 대상이 불특정 다수로 지정됨	○		
기타 교류사업	타 홍보 유형을 활용, 지원하는 유형			○

56) Seoul Scape 전시 해외 순회 지역, ① Florence, Italy (Tour Premiere), SESV gallery, piazza Ghiberti 27, January 24 to February 15, 2008, ② Barcelona, Spain, RAS Gallery, Doctor Dou 10, April 9 to May 3, 2008, ③ Rotterdam, The Netherlands, The Berlage Institute, Botersloot 25, May 15 to June 20, 2008, ④ Maribor, Slovenia, Umetnostna galerija, Strossmayerjeva ul. 6, September 4 to 30, 2008, ⑤ Bruxelles, Belgium, Bozar, Rue Ravensteinstraat 23, October 30, 2008 to January 4, 2009,

③ 우선 추진가능 여부

출판, 전시, 강연은 현재의 활동들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1차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고, 수상 및 공모전은 다양한 건축 관련 프로젝트와 관계하므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업들을 관련시켜 추진이 가능하다. 기타 교류 사업의 경우 주체 간 교류 사업을 담당할 기구나 기관의 설립이 요구되며 웹기반 홍보의 경우 이를 수행할 국가적인 주체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홍보할 콘텐츠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표 3-8〉 홍보 유형별 우선추진 가능 여부

유 형	추진 가능 시기		
	분 석	1차	2차
출판	· 국내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서적 발간 가능	○	
전시	·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전시 지원을 통해 활성화 가능	○	
강연	· 그 수가 적으나 대규모의 지원을 통해 추진 가능	○	
수상 및 공모전	· 국내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시행	○	
웹 기반 홍보	· 웹 개설 주체와 콘텐츠 확보 이후 시행 가능		○
기타 교류사업	· 건축 관련 기관의 설립과 역량강화 이후 가능		○

상기 분석과 같이 단기적인 홍보 지원이 가능하면서도 그 성과가 단기간에 성취될 수 있으며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는 유형으로 **출판** 및 **전시**를 선정할 수 있으며, 다음 장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 실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출판 · 전시 분야의 현황 및 분석

2

1) 개요

(1) 출판 분야 연구개요

전시와 함께 출판은 국내 문화 산업 중 최대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분야로서, 이를 바탕으로 건축 전문 출판에 대한 방향 및 구상을 하고자 한다. 해외홍보를 위한 국내 출판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출판 분야에서 건축문화 홍보의 가능성을 탐색하여, 국가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기반구축 및 육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 방향(아젠다)을 도출하려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출판’은 도서 형태로 제작되기 위한 프로세스 상의 ‘출판 기획’ 분야를 의미하고 배급은 제작 이후의 배포를 의미한다. 국내에 건축 출판 분야에 대한 분석 자료가 부재하여, 전체 출판 분야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건축 출판 분야도 가지고 있다는 가정 하에 자료를 참고하였고, 국내외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건축 분야의 주요 출판사에서 출간되는 서적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해외시장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였다. 건축 출판 분야에 대한 통계자료, 연구논문 등의 기초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연구 초기단계에는 건축전문잡지에 소개된 소식들을 참고하였고, 후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통하여 출판 분야의 현황과 해외진출 과정의 애로사항, 정책적 지원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의 진행은 국내외 주요 출판사의 출판 콘텐츠 및 배급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분석한 후, 대표적인 참고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책적으로 가능한 제안들을 발굴하여 최종적인 정책 및 사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2) 전시 분야 연구개요

국내 전시 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전시를 통한 건축문화 홍보의 가능성을 분석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건축 관련 전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기 위한 실천 전략을 도출하였다. 현황 분석을 위한 조사 범위를 시각예술 분야로 한정하고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해외 교류 현황 분석을 통해 국내 건축 분야가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전시의 운영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구성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국내 전시분야의 현황 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전시의 구성 체계와 프로세스를 살펴보고 건축분야 전시의 위상과 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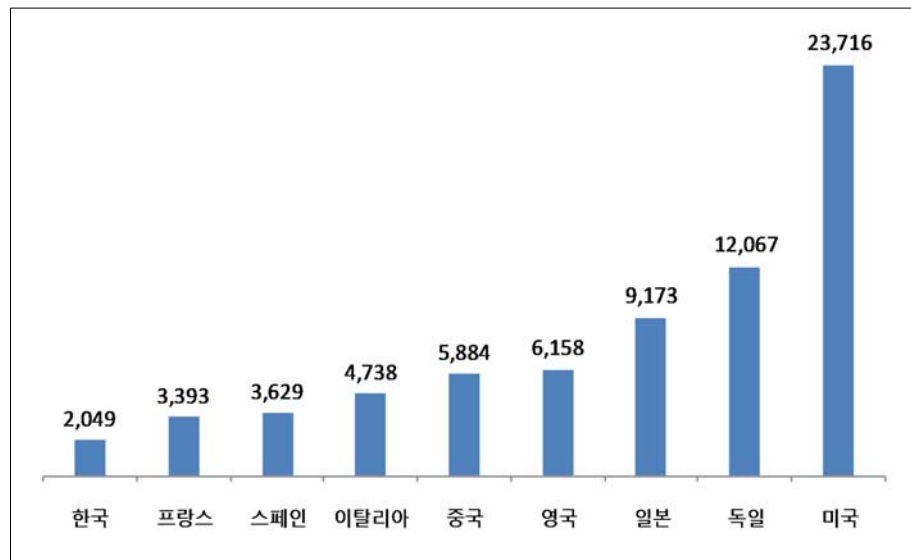
다. 선정된 주요 사례의 진행 프로세스를 분석해 봄으로써 건축 분야 관련 전시 시스템의 문제점과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고, 현재 전시의 경향을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건축 전시의 올바른 방향성을 짚어본 뒤 이를 통해 전시 사업의 기본 방향과 시기별 실천 전략을 도출하였다.

2) 출판 분야 현황 및 분석

(1) 출판 분야의 일반 현황⁵⁷⁾

① 출판 생산력이 양적 성장에 비하여 질적으로 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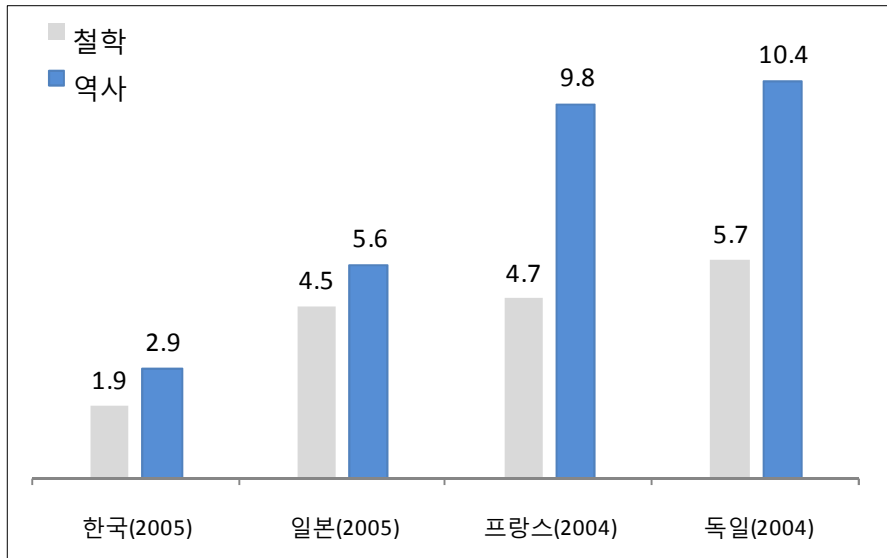
출판사 수, 출판 발행종 수, 출판 시장 규모 등에서 OECD 기준 10위권 이내에 진입함으로서 외형적으로는 성장하였다.



〈그림 3-1〉 세계 주요국의 도서 출판 시장 규모(2004)

하지만 질적으로는 인문학 등 기초학문 분야의 출판시장 규모는 하위권에 머무르며 출판 종 수 역시 정체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57) 본 내용은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 문화관광부, 2006, TTA와 한국도서 해외진출전략 자료집-‘도서저작권 수출의 현황과 발전 방향’, 백원근, 2007의 내용을 요약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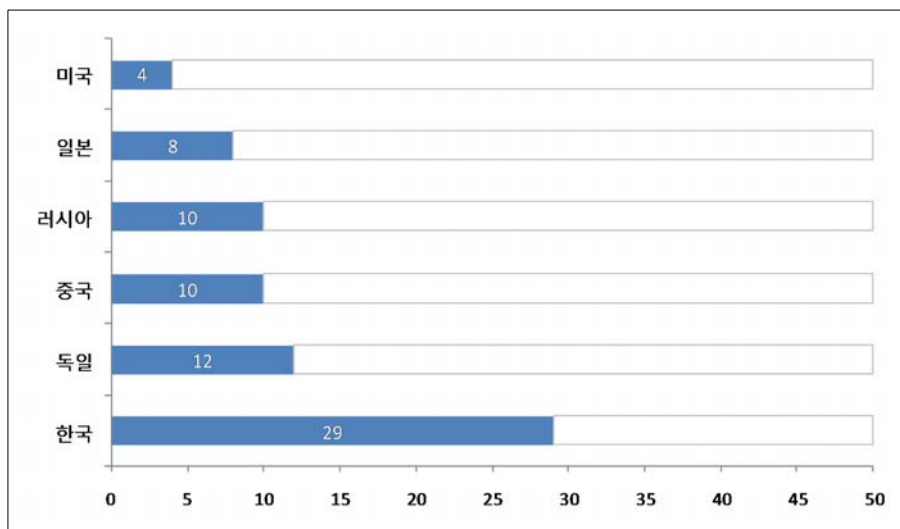


〈그림 3-2〉 주요국의 철학·역사 분야 출판 발행종 수 비중

② 국내 유통 구조의 전근대성

출판 유통 기반이 부실하고 영세하여 전국 서점 수가 10년 전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하여 3,589개에 불과하며 유통 구조의 합리성 결여, 유통 정보화 미흡 등으로 저 생산성이 악순환되고 있다.

③ 해외 번역서 위주의 시장 구조로 경쟁력 취약



〈그림 3-3〉 주요국의 외국 도서 번역 출판 비중 (2004 발행종 수 기준)

우수 출판 콘텐츠의 생산력 부진으로 인해 번역 도서가 전체 출판종 수의 약 30%(2004)나 차지하여 대외 의존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고, 외국 번역서의 원산국이 일본, 미국, 유럽에만 88%나 편중되어 문화적 다양성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표 3-9〉 2005년 신간 발행 및 번역출판 현황

분야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학습참고	아동	만화	계
총 발행 종수	332	838	2032	5777	849	3660	1632	2246	8261	1300	1919	7146	7593	43,585
번역 출판 종수	33	300	319	883	153	289	196	103	1883	244	17	1923	2,644	8,937
일본 번역 도서	3	29	16	259	23	120	28	41	423	35	-	157	2,618	3,752
미국 번역 도서	20	69	206	433	68	126	63	22	569	62	8	588	15	2,249

자료 : 대한출판문화협회, 국립중앙도서관 납본대행 통계

④ 소결

출판 시장 구조의 문제는 건축 전문 도서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황으로서 다양한 출판 분야가 발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분야 개발이 미진한 실정이다. 또한 출판 시장 자체의 체계적인 구축이 미흡하므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내 건축문화 콘텐츠의 발굴을 위한 ‘건축서적 기획 공모 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다양화를 꾀하며, 국내 서적을 적극적으로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번역 사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3-10〉 문학 분야 출판물 번역 지원 사업 현황

-
- 개요
문화관광체육부 산하의 전문기관인 ‘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 국내문학 및 기초예술분야의 해외 소개를 위한 번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주요사업
주된 영역은 국내 문학의 해외 소개 작업이고, 일부 작업은 문화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 서적을 한국어로 번역
 - 사업들
한국문학 번역·출판사업, 한국문학 번역가 양성 사업, 한국문학 세계화 관련 기획·조사업무, 한국문학 해외 교류·홍보 활동 및 장학 연구 사업, 한국문학의 홍보에 도움이 되는 문화예술도서의 번역·출판,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국문학 작품의 한국어 번역·출판사업, 한국문학의 홍보에 도움이 되는 국내 간행물 및 기타 매체의 번역·출판사업
-

(2) 국내 건축전문도서의 해외 진출 현황

① 해외에 소개할 출판 콘텐츠의 빈약성

해외에 출판되고 있는 한국 건축 도서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외 도서전문 사이트인 아트북(artbook)에서 주제별로 도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국건축 작가를 대상으로 한 작품집이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현저히 적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과거의 건축가 작품집은 김수근 건축가가 유일(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발행됨)하고 2000년 이후에 몇 사람의 작품집이 한국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으나 세계적 인지도 면에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② 타 분야 도서의 해외 진출 현황

2005년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초대되어 ‘한국 책 100권’ 행사가 진행되었었는데 당시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서적이 선정되어 각 권마다 6개 국가의 언어 중 하나씩 번역되어 소개되었고, 주요 출판사와 계약하여 대부분의 책 저작권이 수출되었다. 대규모 도서전시회는 출판사와 에이전시 및 바이어들이 출판권을 거래하는 거대한 시장으로서 영국의 출판사인 Shaffron Books의 경우 현재 한국 전통문화와 관련된 도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는데, 그 계기가 된 것이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시회였다.

〈표 3-11〉 Shaffron Books에서 발간된 한국학 관련 서적 현황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제3국가나 아시아권의 문화, 예술,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출간하고 있는 출판사로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당시 한국 도서 100권을 소개 전시회가 기회가 되어 한국전통문화와 관련된 도서시리즈를 출판하고 있다.

* Saffron Books 에서 출판된 건축 관련 서적들

- KOREAN TRUE-VIEW LANDSCAPE: Paintings by Chong Son (1676-1759)
Ch'oe Wansu, Translated and edited by Pak Youngsook and Roderick Whitfield
- 시대를 담는 그릇 (김봉렬, 이상건축, 영어)
THE SECRET SPIRIT OF KOREAN ARCHITECTURE Kim Bongryol, translated by Lee Yongsuk, Photographs by E Inmi
- 한국의 정원 (허균, 다른세상, 영어)
GARDENS OF KOREA: HARMONY WITH INTELLECT AND NATURE
Heo Kyun ('Huh Gyun'), translated by Don L Baker, Photographs by Lee Gapcheol
- 매화 (이여령, 생각의 나무, 영어)
MAEHWA THE PLUM BLOSSOM READING THE CULTURAL CODES OF KOREA, CHINA AND JAPAN
I Eo-ryeong, translated by John Frankl

③ 해외 속의 한국 건축 도서 현황과 한계점

각 정부 부처는 대중성을 가진 한국 건축 문화의 소재로 대부분 전통건축만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문화 교류의 초기단계의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해외에 진출한 건축 도서 중 작가집 이외의 책들은 현대 건축보다 ‘전통건축’을 소개하는 책이 대부분이고 그나마도 일본, 중국의 서적 수와 비교하면 매우 적으며 전문성보다는 대중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기 위하여 제작된 책들이 많았다. 이것은 각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였던 한국 문화의 국제교류 콘텐츠가 전통적인 개념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 세부사항은 ‘부록3. 출판 분야 현황자료’를 참고

④ 건축 전문 도서의 체계적인 해외 배급 시스템 체계 미흡

해외 배급 방식은 국내에서 출판된 책을 직접 수출하는 방식과, 저작권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출판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건축 전문 도서의 경우는 중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내 출판 서적을 해외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내 건축 도서 출판사는 c3korea, 담디, 공간사인데 유럽 시장에서는 대부분 네덜란드의 도서배급사인 idea사를 통해서 배급이 진행되고 있고, 이 외에도 ‘프랑크푸르트도서전’, ‘베이징

도서전’ 등 대규모 국제 도서전시회를 통하여 바이어들과 접촉하며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건축 전문 도서 출판사는 전문 분야 도서라는 점에서 출판협회 등과 긴밀한 협조를 이루지 못하고 기반에 대한 지원책 없이 각 출판사별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⑤ 해외 도서관에 소장된 한국 건축 문화 관련 수장 도서 빈약

영국의 10대 유명 건축대학에서 한국, 일본, 중국 서적의 현황에 대해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도서의 수량은 아시아의 다른 국가에 비하여 10% 수준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단행본 보다는 잡지형태가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의 경우는 국제학술행사 자료, 미래, 정책 관련 서적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한국 도서의 대부분은 1차적으로 번역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 해외에서 읽혀지기에 어려움이 많았고, 주제도 고궁, 정원 등 한국의 전통건축에 한정된 것으로서 동시대적인 이슈를 제기하는 서적이 매우 부족하였다.

〈표 3-12〉 영국 내 한국 건축의 위치와 실태조사

- 아시아 국가에서 **일본(589건) > 중국(432건) > 한국(42건)** 순으로 한국은 다른 국가의 10%에 불과함
- 한국관련 자료는 저널(잡지)가 대부분이며(13권, 40%) 대부분 한글로 되어 있어서 접근이 제한적인데 비하여 일본의 경우 국제학술행사를 중심으로 한 자료가 비치되어 있어 비교됨
- 내용적으로 한국은 현존하는 중요 건축물, 문화재, 주거용 건축인데 비하여 일본은 향후 미래, 정책 동향 위주로 동시대 이슈에 대한 접근을 취하고 있음

[표 1] 영국 10대 유명건축대학과 한국건축학 자료 실태

	한국	중국	일본
(1) 카디프대학	6	47	82
(2) 캠브리지대학	10	134	181
(3) 바스대학	-	19	26
(4) 셰필드대	8	20	52
(5) 런던대학	9	113	112
(6) 뉴카슬대학	1	13	18
(7) 던디대학	2	-	4
(8) 만체스터대학	2	26	26
(9) 리버풀대학	1	19	37
(10) 에딘버러대학	3	41	48
총 계	42	432	586

* 출처 : 이경륜, ‘영국 내 한국 건축의 위치와 실태조사’, 건축역사연구, 2007.4, pp.234-240

(3) 해외 건축전문도서의 출판 경향

① 출판 콘텐츠의 경향

해외 진출에 적합한 도서 콘텐츠를 설정하기 위해 해외 주요 출판사의 도서 분류 체계와 분류별⁵⁸⁾ 서적 수를 조사하여 출판 경향을 파악하였다.

조사는 건축 전문 도서 출판사 중 대표적인 6개소를 선정-ACTAR(스페인), BIRKHAUSER(독일), JOVIS(독일), Nai Publishers(네덜란드), RIZZOLI(미국), MIT press(미국)-하여 각 출판사의 홈페이지⁵⁹⁾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출판사마다 자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중점분야에 따라 서적을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분류 기준이 다르며, 대부분의 출판사가 분류 기준에 융통성을 두어 한 권의 책을 여러 분류 기준에 중복 게시하기도 하였지만 대략적인 경향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큰 무리는 없었다.

분석 결과 책의 주요 테마는 건축가의 작품집에서 건축, 도시, 조경의 통합적 내용으로 변화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이슈들인 지속가능한 건축, 중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건축적 실험등의 테마로 작업들을 묶는 책자가 주종을 이루었다.

ACTAR, BIRKHAUSER, RIZZOLI 출판사는 전통적인 건축가를 중심으로 한 작품 위주의 책자를 발간하고 있었다. Nai Publishers, JOVIS, ACTAR의 경우, 한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MIT press의 경우, 대학출판사라는 점에서 학술적인 서적을 위주로 출판되고 있고, 다른 출판사에 비하여 오랜 역사를 통하여 축적된 책자들로 양과 질적으로 많은 책들을 발간하고 있다.

58) 도서 분류 방법 : 도서출판의 콘텐츠 발굴을 위한 분류로는 본 연구에서 연구방법과 연구대상에 따라 나눌 수 있음

- 연구방법에 따른 구분 : 건축가론, 건축이론서, 건축대중서, 건축작품론, 작품집 등
- 연구대상에 따른 구분 : 한국건축, 서양건축, 동양건축 등

주요 출판사나 배급사(인터넷, 주요서점)에서는 둘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용자의 도서구매를 편하게 하기 위한 접근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사항임, 한국십진분류표인 KDC에서도 610에 건축술로만 구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한 연구로는 윤준섭, '국내 인터넷 서점의 건축도서 분류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제18권 제2호, 2002.2, pp.29~38 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기술 도서분류 표준화 연구', 1994.가 진행되었다.

59) ACTAR : <http://www.actar.es/>, <http://www.actar-d.com/>

BIRKHAUSER : <http://www.springer.com/birkhauser>,

JOVIS : <http://www.jovis.de/>,

Nai Publishers : http://www.naipublishers.nl/index_e.html

RIZZOLI : <http://www.rizzoliusa.com/category/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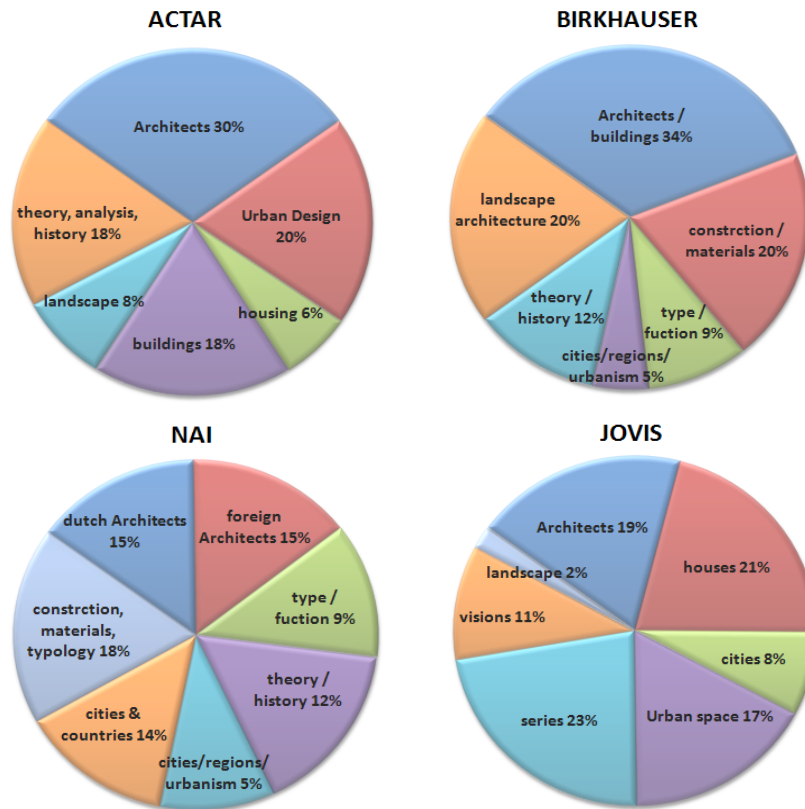
MIT press : <http://mitpress.mit.edu/>

각 출판사의 주요 테마는 다음과 같다.

- ACTAR : 건축가 > 도시디자인 > 이론
- BIRKHÄUSER : 건축가 > 건설·재료, 랜드스케이프 건축 > 이론·역사
- JOVIS : 시리즈 > 주택 > 건축가 > 도시 공간
- NAI Publishers : 각 분야를 고루 다루고 있음
- RIZZOLI : 건축가 > 건축물 > 역사 > 기타
- MIT press : 일반 > 역사 > 디자인 > 도시계획 및 설계 > 모던 > 이론 > 개별건축가

〈표 3-13〉 주요 출판사 도서 분류 목록 및 권수 현황(유럽)

ACTAR	권수	BIRKHÄUSER	권수	JOVIS	권수	NAI	권수
Architects	37	Architects / buildings	100	series	32	construction materials typology	16
Urban Design	24	construction / materials	59	houses	30	garden & landscape	14
theory, analysis, history	22	landscape architecture	59	Architects	27	foreign Architects	13
buildings	22	theory / history	34	Urban space	24	dutch Architects	13
landscape	10	type / function	27	visions	15	cities & countries	12
housing	8	cities/regions/urbanism	15	cities	11	Urban Design	11
				landscape	3	theory & history	9



〈표 3-14〉 주요 출판사 도서 분류 목록 및 권수 현황(미국)

RIZZOLI	권수	THE MIT press	권수
Architects	116	General	366
Architecture	84	History	347
History	10	Design	204
Domestic	6	Urban Planning & Design	194
Public, Commercial, Industrial Buildings	5	Modern	162
Decoratio & Ornament	3	Theory	160
Landscape	2	Individual Architects	149
Reference	2	Criticism	139
Methods & Materials	2	Reference	55
Design & Drafting	1	Landscapes & Gardens	54
		Surveys & Guides	52
		Study & Teaching	46

② 한국건축에 대한 인지도와 위상

세계 건축 도서 시장에서 한국 건축에 대한 인지도와 위상을 알아보기 위해 세계의 주요 출판 기관 홈페이지에서 각각의 나라 이름으로 도서를 검색하여 결과로 나온 도서의 국가별 비율을 비교하였다. 주요 출판 기관은 국가가 겹치지 않도록 하여 다음과 같이 6곳을 선정하였다.

- RIBA(영국), NAI Publishers(네덜란드), ACTAR(스페인), Birkhäuser(독일),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미국), Japan Architect(일본)

Japan Architect(일본)는 일본의 건축 잡지 'a+u', 'JA', '新建築'을 발행하는 건축전문출판사이고 RIBA(영국), NAI Publishers(네덜란드)는 각 국가건축가협회의 산하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미국)는 대학소속의 건축전문도서 출판사이다.

검색어는 'KOREA'와 아시아 지역에서 비교 가능한 'CHINA', 'JAPAN', 그리고 'AMERICA'와 'EUROPE'으로 총 5개 권역을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그림 3-4〉 해외 건축 분야 전문 도서 출판사 지역별 분포 현황

③ 조사결과 및 분석

각 출판사는 비교적 자국이 속한 지역의 건축물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 그 비중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Princeton Architecture Press(74%) > Japan Architect(55%) > Birkhäuser(51%) > ACTAR(41%) > RIBA(28%) > NAI publishers(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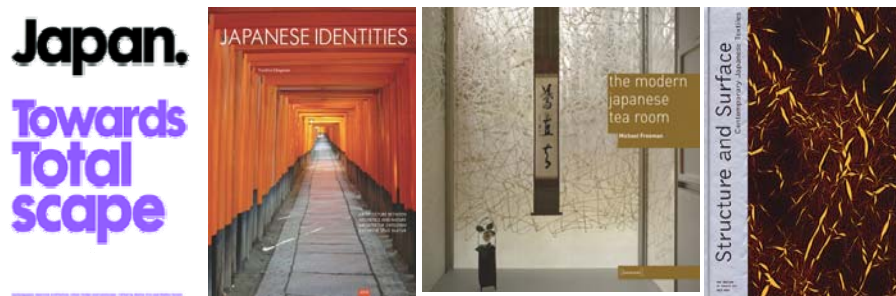
자국의 건축물을 주로 다루는 국가에 비하여 국제적인 건축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국제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으로 생각된다. 특히, 아시아권에 대한 비중이 높은 출판사를 순위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Japan Architect(77%) > NAI publisher(56%) > RIBA(36%) > ACTAR(34%) > Birkhäuser(30%) > Princeton Architecture Press(12%)

Japan Architect는 아시아에 대한 비중이 77%로 아시아 지역을 주요 소재로 다루고 있고 그 중 55%는 자국의 건축을 콘텐츠로 다루고 있었다. 다음으로 NAI Publisher와 RIBA, ACTAR 순으로 진행되는데, 아시아 건축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건축의 해외홍보에 있어서 이들과의 교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아시아권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비중

한국은 도서 수의 비중에 있어 일본과 중국에 비해 큰 격차를 가지는데 비하여 중국과 일본은 유사한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비중이 20배 정도로 크고 콘텐츠도 다양한데,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본 건축가들의 작품집 뿐 아니라 일본의 건축 및 도시 양식 소개, 일본의 전통건축과 현대건축의 특징을 연구한 책과 사진집 등 도시·건축에 대한 포괄적인 분야의 책들이 출간되고 있었다. 또한 탄탄한 자료수집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서구사회와 차별화된 자국의 건축문화를 전통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홍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5〉 일본 관련 주요 건축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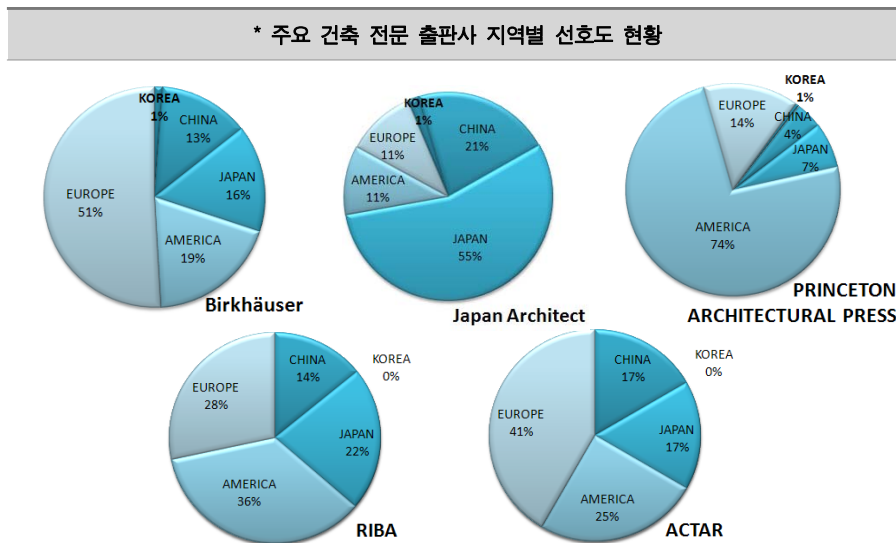
중국의 경우 지금까지 아시아의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적 유산을 중심으로 서구인들의 관심을 받아왔으나 90년대 이후, 급속하게 발전된 경제력과 도시 성장을 바탕으로 지어진 수많은 현대 건축물들이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주요 서적들을 살펴보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융합된 중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도시 단위의 건축 문화를 소개하는 서적이 많고, 최근 베이징올림픽을 기점으로 세계적으로 큰 이슈를 일으키며 중국 내 대규모 건축물들을 지은 해외 건축가들에 대한 작품집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림 3-6〉 중국 관련 주요 건축 도서

반면, 주요 출판사들의 도서들 중 한국의 건축을 주제로 도서들은 비중이 매우 적었다. 각 출판사 별로 전체 도서에 대한 한국 건축을 주제로 하는 도서의 비중을 살펴보면 Birkhäuser(1%), Princeton Architecture Press(1%), Japan Architect (1%) > Actar, RIBA, NAI(0%)와 같이 한국 건축을 최대 1%로 다루고 있는 출판사도 전체 출판물의 1%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15〉 주요 건축 전문 출판사 지역별 선호도 현황



〈그림 3-7〉 amazon.com에서 한국건축도서의 비중

* 자료순서는 한국 건축에 대한 비중이 높은 출판사 순

세계 최대의 온라인 서적 판매 사이트인 AMAZON의 건축도서 파트에서도 검색어로 korea, china, japan, america, europe을 지정한 뒤 검색했을 때 각각 나오는 도서 수를 비교해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표 3-16〉 amazon.com에서 건축도서 대한 국가 명 검색 결과

사이트 \ 검색어	KOREA	CHINA	JAPAN	AMERICA	EUROPE
AMAZON	1,381권	5,681권	5,312권	8,932권	9,460권

※ 출처: 아마존 웹사이트(www.amazon.com)

위의 내용들을 토대로 전체적인 출판 경향을 분석해보면 유럽에 관련된 건축가나 건축 문화의 출판물의 수가 월등히 많고 그 다음이 미국 순이며 중국과 일본에 관련된 건축 서적도 비교적 많은 양이 출판되고 있으나 한국에 관련된 출판물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소결

해외 건축 도서 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해외 시장에서 한국 건축의 위상은 매우 미비하여 그나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Birkhäuser사의 경우도 전체 도서에 대한 한국 도서의 비율이 1%에 불과하고 아시아의 중국 일본과 비교하여도 10%에 불과하므로 적극적인 홍보 전략의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동아시아 시장에 대한 전략 마련도 필요하며 중국과 일본은 해외 건축 도서 시장에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출판 분야의 사례 검토

(1) 개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출판 영역은 공공적 성격의 출판물에 대한 것으로 출판시장의 세부사항이 고려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상업적 성공이 곧도서컨텐츠에 대한 독자층의 관심도로 보았을 때 상업출판사⁶⁰⁾의 시장 분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 상업출판사인 c3korea와 시공문화사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통해 해외출판시장의 현황과 국내 건축출판물이 해외진출에 있어서의 애로점에 대하여 조사하였다.⁶¹⁾

60) 공공적 성격으로 해외홍보를 진행하는 (가칭)공공출판과 사업이윤 추구를 위한 (가칭)상업출판으로 나누어서 생각하였을 때 후자의 사업을 주로 진행하는 출판사를 뜻함

61) 본 장에서 언급되는 자료는 c3korea의 이우재 편집장과의 인터뷰(08.9.10)와 c3korea소개 브로셔 자료를 기본으로 작성되었고 시공문화사는 e-mail인터뷰(08.11.11)를 진행하였음. 인터뷰내용에서 인용한 것은 본문에 따옴표로 처리하였음

① 제작비

해외출판을 위해서는 내수시장에서 일정부분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전적으로 해외시장을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상업출판사에서 수익성 부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다.

“해외에 건축서적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보통 제작 단가와 매출량을 고려하여 보통 권당 2,000부 이상이 제작되어야 하고, 그 중 일정량이 국내에서 먼저 판매되어 수익을 보장받은 후에야 해외 시장에서의 안정적 판매가 가능하다. c3korea의 경우, 1,000부 정도가 국내시장에서 판매되어야 출판사의 최소 손실이 보장된다. 하지만, 국내에서 가장 인지도 있는 승효상 건축가의 작품집도 초기에 1,000부가 판매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다.”⁶²⁾

구체적인 출판비용을 살펴보면, 시공문화사의 경우, 칼라위주의 작품집은 삼천만원이 이론서는 천오백만원이 소요된다.

“화보중심인 경우, 기획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1,500부, 250페이지 기준) 기획제작기간 1년으로 대략 삼천만원이 소요되고 이론서는 흑백이 주된 내용이어서 (1,000부, 500페이지 기준) 천오백만원 정도 소요되고 기획-제작에 1년이 소요된다.”⁶³⁾

② 국내유통 구조

예전에는 주로 영업을 통한 판매가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서점이나 인터넷을 통한 판매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 건축관련 전문 인터넷 서점, 디자인 전문 서점에서 건축관련 서점을 다루면서 기존의 영업위주의 한정적 유통망이 보다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전에는 영업(아저씨)이 70%정도였으나, 지금은 진열공간(서점-인터넷)이 60%정도 차지하고 있음”⁶⁴⁾

(2) 콘텐츠의 경향과 전략

① 초기 단계, 출판 매체에 대한 인지도 확보

출판에 있어 콘텐츠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책을 읽는 대상으로 하여금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발하고 변화해야 한다. 한국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할 때에도 전략적으로는 매체의 인지도를 올린 이후에 점차적으로 자체의 콘텐츠를 주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62) c3korea 인터뷰 내용 중 (08.9.10)

63) 시공문화사 e-mail인터뷰 내용 중 (08.11.11)

64) 시공문화사 e-mail인터뷰 내용 중 (08.11.11)

“c3korea는 한국건축가의 해외홍보를 목표로 잡지에 해외건축가를 일체 다루지 않고 한국의 건축가만을 다루었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묶어서 작품집을 해외 시장에 출판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독자들의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하여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전략을 수정하여 해외 유명건축물을 위주로 한 콘텐츠로 기존의 잡지들과 차별화된 책을 출판함으로써 해외로부터 인지도를 높였다.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고객층을 확보한 후에 조금씩 한국 건축가를 소개하는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⁶⁵⁾

②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

또한 다른 국가와 차별적인 한국적 상황을 표현하는 주제를 선정이 필요하다. 개별 건축가에 대한 소개를 위해서는 국내 건축문화에 대한 자체적인 역량이 강화되고 동반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상황으로는 중국과 유사하게 동양에 대한 서양의 막연한 기대감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그것을 시장 개척이라는 경제적 논리에 맞추면서 동시에 문화적 요소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예로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국내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의 과정과 결과들이 해외에서 진행되는 건축들과 차별성을 가진 주요한 콘텐츠가 되어 이러한 콘텐츠를 소재로 출판된 도서들이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국내 건축 문화의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는 파주출판도시, 청계천복원사업, 분당신도시, 한국의 뮤지엄 등에서 나타나는 담론과 문화적 요소들을 부각시킴으로써 한국적 콘텐츠들이 원론적, 원초적 한국성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한국 내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도시-건축’ (대규모 프로젝트 및 분야가 융합되는 것)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탄탄한 시각자료로 구성시켜 세계적으로 이슈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최근 c3korea의 부산영상문화센터 공모전 작품들을 다룬 ‘Film and Architecture’는 공모전을 진행하였던 부산건축문화제운영위원회(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기획하여 상호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는데 부산시는 책자 발간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c3korea가 편집 및 국내외 배급을 맡음으로서 출판사 배급망을 통해 도서가 출간되어 책자 제작의 세부과정에 대한 인적, 경비 절감을 이루었고, 출판사 측에서는 한국건축에 대한 새로운 콘텐츠를 발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⁶⁶⁾

65) c3korea 인터뷰 내용 중 (08.9.10)

66) c3korea 인터뷰 내용 중 (08.9.10)

(3) 각 지역별 배급 전략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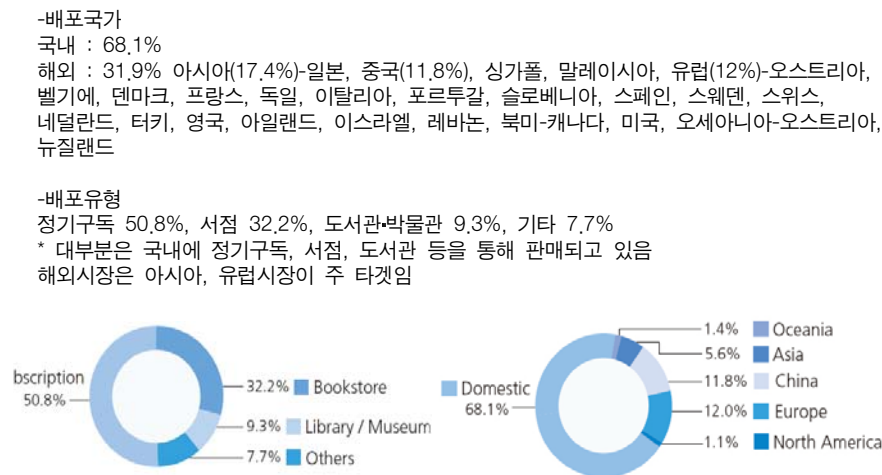
① 국내 출판사의 해외 배급에 대한 일반적 상황

국내 출판사는 자체적으로 해외 배급망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저작권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해외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축관련 출판물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책자를 제작하여 해외배급망을 활용하여 배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콘텐츠의 수준에 대한 문제와 동시에 국내 건축자체를 해외에 소개하는 전문기관이 부족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건축을 별도로 알리기 보다는 기존의 대규모 출판행사 등을 통하여 건축관련 서적이 소개된 정도이다.

최근, 배형민 교수의 ‘감각의 단면’의 경우, 국내 출판을 진행하였던 동녘출판사가 별도의 해외 배급망을 확보하지 못하여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다.

② 아시아 지역의 배급 전략

〈표 3-17〉 c3korea - 월간지 배급 현황



자료출처 : c3korea 홍보브로셔 (2008)

현재 아시아 시장을 총괄하는 배급망이 부재한 상황이어서 국내 출판사들은 자체적으로 개별 국가 마다 대형 서점이나 출판사를 중심으로 시장을 개척하여 나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단가 등에도 차이를 가질 수 밖에 없는데 중국의 경우, 중국 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매우 약하여 불법 복제물이 쉽게 유통되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 스스로 저작권을 보호 할 수 있는 강한 권력을 가진 출판

회사와 저작권을 계약하여 직접 수출이 아닌 저작권 수출로 진출하고 있고, 중국시장은 이러한 특수한 상황과 매우 높은 관세로 인해 해외에서 제작된 책을 수출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아 해외 유명 출판사 역시 대부분 저작권을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한 고급시장이나 시장이 폐쇄적이어서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c3korea의 경우 자체적으로 판매망을 확보하여 20여개의 대형서점에 공급 중이다. 결국, 일본과 중국은 아시아에서 매우 큰 시장임에도 시장 진출이 쉽지 않고, 동남아시아 기타 지역으로 싱가포르와 홍콩 등에서는 한국 건축이라는 콘텐츠가 승산이 있으나 시장 규모의 협소로 역시 판매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림 3-8〉 c3korea 월간지 배포 현황

③ 유럽 및 미국 지역의 유통 현황 및 전략

수요자와 출판 시장이 지역별로 차이를 가지고 있어서 단행본의 경우 지역별로 시장 접근 전략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유럽은 높은 수준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전문도서에 대한 수요가 많고 EU라는 연합체 안에서 시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배급망인 네덜란드의 'IDEA BOOKS'사를 통하여 한국의 주요 건축 전문 도서를 유통하고 있다.

〈표 3-18〉 네덜란드 IDEA BOOKS 개요

- 일반사항
1976년에 설립된 'IDEA BOOKS'는 동시대의 건축, 예술, 디자인, 사진, 영화 분야의 '도서'와 '전시회 카탈로그' 전문 배급사(specialist distributor)임
네덜란드, 스페인, 일본, 미국과 호주를 포함한 많은 국가의 공공기관과 출판사를 위한 에이전트

자료출처 : IDEA사 홈페이지(<http://www.ideabooks.nl/frameset.asp>)

유럽의 기타 지역으로 이베리아 반도 시장에는 우리나라에서 운항하는 수·출입 선적 배가 없어서 직접적인 배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들 국가에 대한 도서 수출은 일차적으로 네덜란드를 거친 뒤에 배포되는 방식으로써 시간과 비용 상에 많은 무리가 있다.

미국은 도서 시장이 인테리어 및 생활공간에 대한 실용서적 시장과, 이론·작품 서적 등을 위주로 하는 전문서적 시장으로 양분되어 있는데, 전문서적보다는 실용서적에 대한 수요가 월등히 많아서 AMAZON에서 검색되는 건축 관련 도서도 대부분 인테리어, 생활공간에 대한 실용서적이 베스트셀러에 속한다.

(4) 분석 및 개선 방안

① 국가 차원에서의 출판 활성화를 위한 기반 지원 필요

일본의 경우, 출판사에 대한 기업의 스폰서 시스템이 매우 잘 되어 있어서 국제적인 건축자재 회사들이 출판사의 양서 제작을 후원하여 좋은 책들이 많이 제작되고 있다.

② 해외 출판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 모색

출판사가 양서를 제작할 때 발생하는 초기 비용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국가 기관이 매 분기별 건축 분야 양서를 선정하여 일정분량을 구매하도록 하여 국내 주요 도서관에 배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우수도서 지원 사업으로 책을 선정하여 배포하고 있다.

③ 전문 번역, 비평가 육성 및 지원

국내 출판물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문 번역가와 비평가를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차별화된 출판 콘텐츠의 기획 역량 강화

창조적인 출판 콘텐츠 발굴을 위한 출판 기획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⑤ 해외 출판을 위한 종합 정보 지원 및 전문 교육을 위한 전문 기관 설립

해외 출판 과정에서 요구되는 시장 정보, 관련 저작권 법규 사항들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과 해외 출판시장의 동향 분석 정보를 제공하며 건축 출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4) 전시 분야 현황

(1) 전시분야의 일반 현황

① 전시 시장의 규모⁶⁷⁾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전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전시 산업의 성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전시분야가 갖는 경제적·문화적·사회적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면서 국가 간 정보 교류 및 협력관계 구축에 대해 전시를 통한 홍보 전략은 그 영향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시 산업의 세계적 추세는 국제화·전문화·다각화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화가 미흡하여 국제 전시회를 개최할 만한 자체 역량이나 국제 간 네트워크 구조가 빈약한 상태이다. 국내에서 연간 200여건 시행되는 산업관련 전시회를 제외하면 그 외에 추진되는 전시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할하는 사진, 디자인, 공예, 건축이 포함된 시각예술 분야로 한정되어, 그나마 해외전시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다.

② 시각예술 중 전시분야의 국제 교류 경향⁶⁸⁾

한국의 국제미술교류는 1988년 서울올림픽 무렵 상승세를 탔던 거품 경제, 대중들의 문화적 욕구 증대, 사설미술관과 화랑의 급증, 대학의 미술학과 증설의 붐을 타고 미술시장 및 제도의 팽창을 배경으로 199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국내 시각예술계의 국제교류는 크게 3개의 흐름으로 나누어진다.

1. 과거 문예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으로 주최하는 전시들(베니스 비엔날레 외)
2. 국·공·사립미술관과 상업 화랑이 조직하는 전시
3. ‘광주비엔날레’ 등 지역에서 조직하는 정기적인 국제 전시

특히 국내 작가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 작가들의 국외 진출은 ‘카뉴국제회화제’, ‘상파울로비엔날레’, ‘베니스비엔날레’에서 본격화되었고, 1995년 ‘광주비엔날레’ 창설과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설립으로 인해 한국 미술의 세계화 전략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되었다. 또한 1998년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의 출범, 2000년 ‘미디어시티 서울’의 창립, 썸지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영은미술관 작가 창작 스튜디오 프로그램 설치, 대안

67) 이상직, 전시산업 현황 및 무역전시회 육성 방안, 월간 KIET 산업경제 2001년 12월호, 산업연구원, pp.53~63 참고

68) 문화관광부, 2007, 국제교류 업무 매뉴얼, pp.71

공간들의 신설 등을 통해 한국 미술계는 적잖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잠재적인 능력을 외부로 분출해 왔다. 최근에 와서는 비엔날레 개최가 급증하고 있으며 부산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광주비엔날레, 대구사진비엔날레, 금강자연비엔날레, 청주공예비엔날레 등 다양한 국제 비엔날레 행사가 열리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목표 설정과 이에 대한 전문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향후 국내 비엔날레가 안정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③ 전시 지원 체계

대규모 전시나 국가적인 주요 전시의 경우 공공 기관이 직접 기획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따라 예산 편성이나 기획 절차가 상이하여, 유관 기관이 공동으로 기획하는 전시의 경우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하지만 대다수의 소규모 주제 전시는 민간 신청에 따른 비용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시를 지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체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집행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⁶⁹⁾가 있으며, 기존 전시업무는 주로 시각예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었으나 전시의 주제가 다변화함에 따라 다원예술위원회, 남북 및 국제문화교류위원회 등 기타 분과에 관련하는 전시 유형을 지원하는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다.

(2) 시각예술 중 미술 전시분야 현황 비교

① 미술 전시분야 해외 진출 현황

현대 미술관과 미술센터 등을 통한 제도적 기관 사이의 국제교류 뿐만 아니라 비엔날레 급의 국제현대미술전시나 아트페어와 미술경매 등을 통한 국제미술시장의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⁷⁰⁾ 국제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예연감 2007⁷¹⁾’에 따르면 미술 전시분야의 해외 진출 현황은 주로 인근 국가(중국, 일본)와 미국, 유럽에 편중되어 개최되고 있고 주로 문화원이나 대사관을 통한 경우가 많아 현지 해외공간의 지원이 해외 전시에 있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69) 문학위원회(5명), 시각예술위원회(7명), 연극위원회(5명), 무용위원회(5명), 음악위원회(7명), 전통예술위원회(6명), 다원예술위원회(7명), 남북및국제문화교류위원회(7명), 지역문화위원회(7명), 정책위원회(5명), 기초예술의가치확산위원회(7명), 예술의사회적역할확대위원회(7명)의 소위원회로 구성됨

70) 문화관광부, 2007, 2007 ARCO 주변국 행사 평가보고서, p.67

71) 문화예술위원회가 발간하는 문화분야의 전문 연감으로 각 예술분야의 현황에 관한 종합 분석자료임

〈표 3-19〉 국내미술 해외전시 국가별 분포

- 한국미술이 해외에서 전시가 이루어지는 것은 기관이나 단체가 기획하는 전시, 개인전, 국제전이나 공모전에 출품하는 전시, 개인전, 아트페어 출품 등이 있다.
- 2006년, 국내미술의 해외전시는 총 260건의 전시가 이루어졌고, 전시 국가별로는 **미국 57건으로 21.92%, 중국 48건으로 18.46%, 일본 43건으로 16.54%, 프랑스 30건으로 11.54%**가 이루어졌음

〈표 5〉 국내미술 해외전시 국가별 분포(총 260건)

국가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태리	영국	타이페이	호주
횟수	57	48	43	30	17	8	7	7	6	4
비율	21.92%	18.46%	16.54%	11.54%	6.54%	3.08%	2.69%	2.69%	2.31%	1.54%
국가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방글라데시	네팔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카타르
횟수	7	1	1	1	1	1	1	1	1	1
비율	2.69%	0.38%	0.38%	0.38%	0.38%	0.38%	0.38%	0.38%	0.38%	0.38%

- 주요전시로는 1월에 뉴욕 한국문화원⁷²⁾의 ‘무빙타임전’으로 3부로 나누어 백남준과 젊은 비디오작가 30명이 출품하여 전시회 개최

출처 : 문예연감 2007, p116~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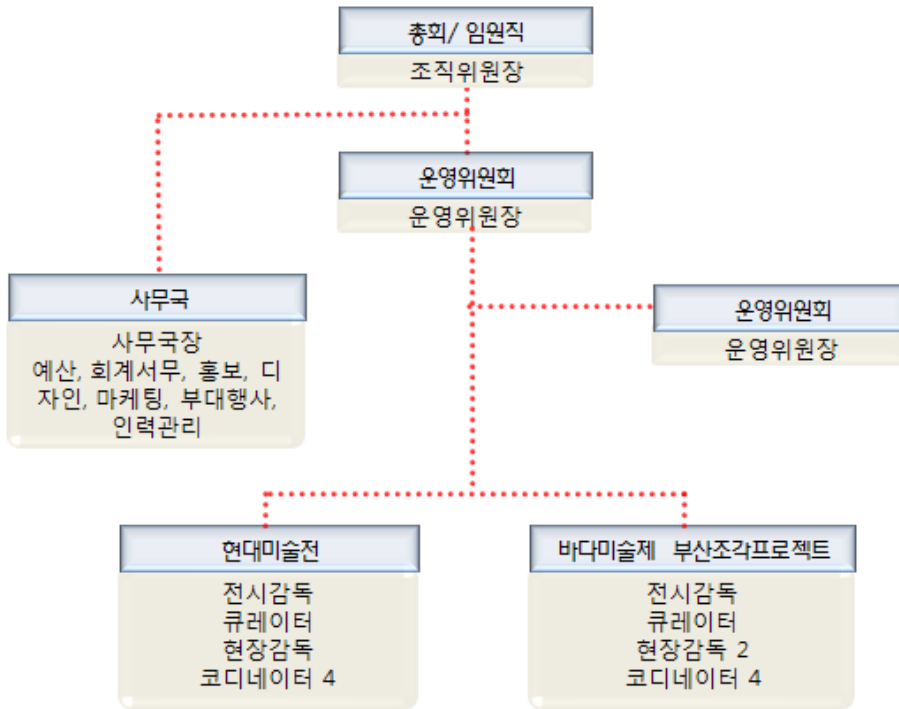
② 조직 체계

□ 조직 구성⁷³⁾

현재 국내 시각예술분야에서는 국제 전시 횟수가 늘어나고 활발한 국제 교류를 통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대규모 비엔날레를 중심으로 업무 프로세스와 조직 구성 매뉴얼이 작성되어 전시를 준비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데 비엔날레를 예로 들어 살펴본다면, 조직을 주최하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전시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 기획 자문을 맡게 되는 전문위원회, 각 전시 테마별로 전시 감독(디렉터), 큐레이터, 현장 감독 및 코디네이터 등의 전시 스태프로 조직이 구성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중소규모 전시에서는 총회와 운영위원회가 통합되어 하나로 운영되거나, 전문위원회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전시감독(디렉터)이 아닌 큐레이터가 전시 업무를 총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72) 뉴욕 한국문화원 : 주 뉴욕 한국문화원은 1979년 뉴욕 대한민국총영사관의 소속기관으로 설립된 이래 한국 문화의 이해 및 한미관계의 우호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 문화원은 매년 다양한 전시회와 한국영화상영, 한국음식축제 등의 문화 활동을 주관하고 있으며 한국 전통음악과 무용, 강연회, 스포츠 및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 등 예술 및 학술활동을 지원함. 또한 한미 양국 간의 우호와 교류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함 (출처 : 뉴욕한국문화원 홈페이지 <http://www.koreanculture.org>)

73) 문화관광부, 2007, 국제교류 업무 매뉴얼, p.91



〈그림 3-9〉 부산 비엔날레 조직 구성 예

□ 업무분장

업무는 크게 전시 자체에 직접 관여되는 전시장 운영 업무와, 전시에 수반되는 각종 행정 및 홍보와 같은 사무국 업무로 구분된다. 전시감독(디렉터) 또는 큐레이터는 전시 컨셉 설정, 작가 섭외, 출판 콘텐츠 지정, 에디터 선정, 디렉팅 결정 등 모든 과정을 총체적으로 지휘하기 때문에 그 역량과 기획능력이 매우 중요하며 그밖에 예산, 일정, 인력관리 등의 실무적인 업무는 코디네이터(또는 assistant 큐레이터)가 담당하고, 행정 및 예산 업무의 처리는 사무국에서 전담한다.

〈표 3-20〉 부산 비엔날레 업무 분장 예

구분		주요 업무
사무국	총무팀	인력관리, 홍보·마케팅, 회계·사무, 부대행사, 홈페이지 운영 등
	전시팀	3개 행사 지원
전시장 운영 인력	전시감독	전시 업무 총괄
	큐레이터	작품 제작·반입·반출, 설치·진열 업무 총괄
	전시팀장	전시감독 업무지원, 전시팀 관리, 작품 현장설치에 따른 업무 추진
	코디네이터	작가관리, 작품제작지원, 전시관리
	작가지원	작가 교통, 숙박 등 일정관리 조정
	장비관리	장비 및 전시장 관리, 장비상태 일일 점검 및 경미한 보수
	작품 관리팀	작품 반입·반출, 전시작품 관리 및 설치 보조, 작품상태 일일점검 및 경미한 보수
	관람안내	관람안내, 전시 작품 설치·관리 보조
	전시안내	전시장 안내, 관람안내 보조, 작품 설치·관리 보조
	통역	외국작품 제작 설치 및 외국인 관람안내
	설치보조팀	작품 제작 보조 및 실행

③ 전시 프로세스

□ 해외 전시회 참가 업무 흐름⁷⁴⁾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보통 1년 전부터 위원회와 커미셔너 등을 선정하고 3개월 이전까지 모든 기본 계획을 완료한 후, 전시 전까지 전시장 준비와 대외 홍보 업무를 병행하며, 전시회 이후에는 결과 정리 및 평가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전시 성공의 성패가 주로 홍보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가 3개월 전부터 시작되어 대규모 기자 간담회, 언론 접촉을 통한 보도 자료의 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74) 문화관광부, 2007, 국제교류 업무 매뉴얼, p.71

단 계	주 요 내 용
위원회 구성	비엔날레 운영위원회 구성 커미셔너 선정 작가 선정 및 지원
현지 전시공간 조사	작가 커미셔너 현지 사전 답사 각국 대표자 회의 참석
기본계획 수립	커미셔너 전시 기획안 제출 전시공간조성 작업 계획 수립 운송계획 및 운송협찬 섭외 전시관 장비설치 계획
홍 보	도록 및 인쇄유인물 제작 인터넷 홍보자료 게재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활동 개막식 및 리셉션 초청장 발송 비엔날레 및 작가홍보(기자간담회 개최)
전시(개막) 준비	작품 운송 및 설치 작가 및 조수, 커미셔너 파견 전시준비요원 파견
전시 및 행사	한국관 개막식 작가 관련 각종 행사
보고서 제출	커미셔너 결과 보고서 제출

〈그림 3-10〉 비엔날레 전시 운영 프로세스

□ 단계별 주요 업무

〈표 3-21〉 비엔날레 운영 단계별 주요 업무

일 자	추 진 사 항	확인사항 (문화부)
D-11개월전	비엔날레 운영위원회 구성	
	커미셔너 선정	
	작가 선정 및 승인	
D-6개월전	작가, 커미셔너 현지 사전 답사 실시	
	커미셔너(혹은 코디네이터) 각국 대표자회의 참석	
D-5개월전	행사 운영 및 전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	
D-4개월전	커미셔너 전시 기획안 제출	
	현지 전시 공간 조성 작업 계획 수립 및 실시	
	작품운송계획 수립 및 운송협찬 및 섭외	
D-3개월전	도록 및 인쇄 유인물 제작시작	
	운송 업체 입찰 선정, 계약발주 및 체결	
	주최 측에 참가작가 작품 목록 및 사진 제출 (커미셔너)	

	전시관 장비 설치 계획서 제출(커미셔너, 코디네이터)	
D-2개월전	도록 및 인쇄 유인물 제작 계속	
	인터넷 홍보 자료 게재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활동 시작	
	각계 개막식 및 리셉션 초청장 발송	
	도록 및 인쇄 유인물 제작 완료	
D-1개월전	작품 운송 및 설치 완료	
	기자간담회 개최	
	개막식 준비를 위한 작가 및 조수, 커미셔너 파견	
	행사주체 전시준비요원 파견 및 개막행사 준비	
	개막식 준비 및 행사	
D-0	전시 시작	
	출장 결과 보고	
	전시 계속	
D+1~4개월	당해년도 전시 평가추진	
	차기년도 행사 준비	
	작가 및 조수 파견	
D+5개월	작품 철수 작업 및 운송	
	커미셔너 결과보고서 제출	

④ 예산 운용

전시 경비의 경우 예산집행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은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인건비(사무국 운영예산)를 들 수 있으며, 구체적인 예산 집행 항목은 체류비, production cost, artist fee, 장소사용료, 운송, 홍보, 출판 비용 등이 있다.

⑤ 전시의 경향

최근 단편적인 전시 프로그램이 아닌 복합예술 형태의 새로운 전시 유형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미술 창작스튜디오⁷⁵⁾(레지던스, 어느 장소에서 집단으로 예술가들이 거주하면서 공동으로 작업하거나 문화적으로 교류하는 방식)형식을 빌린 다원예술의 형태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시의 형태는 일시적인 이벤트로서의 전시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예술적 교류와 소통의 장소로서 인적 네트워크를 생성하는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음을 반증한다.

75)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왕립 아카데미에서는 2년간. 예술활동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많은 창동이나 난지미술창작 스튜디오 같은 사례들이 증가하는 추세임

해외 진출 전시의 경우 작가의 명성이나 국제적 인지도가 약한 국내 실정으로 인해 개인전보다는 큐레이터가 직접 기획하는 기획전의 형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시를 통한 파급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단순한 작품의 전시보다는 공연, 퍼포먼스, 워크숍 등이 전시 안에 포함되는 종합적인 예술 형태가 선호되고 있으며, 기획 시 도슨트 프로그램, 교육, 강연 등을 구성하기 위한 기획위원회, 자문위원회, 교육기관 등과 연계하는 경우도 많다.

⑥ 재정 지원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 지역문화재단(서울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국제교류 재단, 기타 민간단체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시명목으로 2000만원 내외의 금액이 지원되는 추세이다. 국제 교류전시인 경우는 해당국의 공관이나 문화원에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대규모 전시의 경우 여러 기관이 매칭 펀드를 조성하여 공동으로 기획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5) 건축 관련 주요전시 분석

(1) 건축 전시의 현황

□ 건축 전시의 일반 현황

1955년 제4회 국전에서 제6부로 건축 전시가 한 개 분과로 개설되고, 같은 해 최초의 대학 건축전인 ‘홍익대학교 건축미술과 작품전시회’와, 건축가 김중업의 귀국 개인전이 개최되면서 건축 전시가 시작되었다.⁷⁶⁾ 건축 전시의 유형을 최근 5년간 건축 관련 전시 현황으로 조사⁷⁷⁾한 결과 총 168건이 검색되었으며 이를 성격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 3-22〉 최근 5년간 건축 관련 전시 현황

구분	국내전시				해외전시	비 고
	일반전시	학교전시	박람회	관련전시		
횟수(건)	90	29	16	18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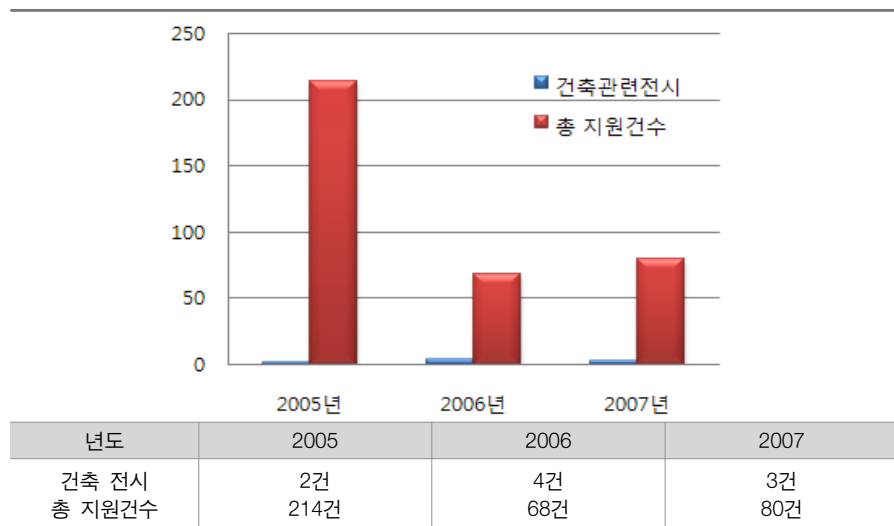
76) 월간 건축인 포아, 2006년 8월호, pp.66~67 참고

77) 최근 5년(2003~2008)간 건축전문잡지인 c3korea, plus, space를 대상으로 게재된 전시 목록을 조사하였음

총 168건의 건축 관련 전시 중에서 국내 전시가 절대적인 비중(약 91%)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전시에 비해 해외 전시가 크게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국내 전시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건축박람회는 건축 자재나 기술을 소재로 한 경우가 많았고 관련 전시의 경우는 타 예술영역과의 복합전시회의 형태로 개최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여전히 건축가의 설계 개념 및 결과에 대한 건축 모형, 스케치, 패널 등을 전시하는 기존의 일반 전시 형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졸업전시회와 같은 학교를 중심으로 한 건축전도 국내 전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건축 전시의 해외진출 현황

〈표 3-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분야 국제교류정기공모사업 연도별 전시 지원수



건축 관련 전시의 경우, 국내에는 건축 분야 전시를 지원할 만한 조직과 건축 전시를 준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스템이 부족하므로 해외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건축박람회나 비엔날레에 일부 참여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전시유형에 비해 진출사례가 크게 부족한 상태다. 지난 3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 예술 교류 활동지원 사업 중 시각예술분야의 지원 건수를 살펴볼 때 그 중 건축 전시는 5% 이하의 극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건축 잡지에 소개된 전시를 검색한 결과 해외 전시의 경우 총 15건이 파악되었으며 주요 전시는 ‘베니스비엔날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주로 건축가 ‘승효상’이 여러 전시를 통하여 해외에 소개되고 있다. 대표적 전시로 ‘베를린의 아에데스 갤러리 전시회’, 승효상 미주전시회 및 귀국전, ‘융합하는 동아시아건축세계로부터’ - 승효상(한국), 장용호(중국)전 등이 있다.

〈표 3-24〉 최근 5년간 국내건축 해외전시 현황

	전시명	출 처	분류
1	S(e)oul Scape	공간, 08.01. p11	작가전
2	넥스트-진 국제 프로젝트	공간, 08.01 p10	기타
3	Megacity Network	공간, 07.11, p8	작품전
4	상파울로 국제건축비엔날레 '건축,공공성,사유성'	공간, 07.10 p11	작품전
5	창조적인 행위가 도시에 끼치는 영향 〈Performance Z-A〉	공간, 07.10 p10	기타
6	한국의 집, 생활방식 전	플러스, 07.05 p222	기타
7	건축가 김효만, 뉴욕 The Good Life 전 참가	공간, 06.12. p38 C3, 06.12, P171	작품전
8	베이징건축비엔날레	C3, 267호, 06.11. p138	작품전
9	관계 현상의 미학-우경국전	공간, 06.11, p52	개인전
10	건축가 김종성, 아에데스갤러리 건축 전시 개최	공간, 06.10, p38	개인전
11	제10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공간, 467, 06.08, p54	작품전
12	베를린의 두 건축 전시회	C3, 256호, 05.12. p158	개인전
13	2004 베니스 비엔날레	플러스, 212, 04.12, p48	작품전
14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공간, 444, 04.11, p224	작품전
15	베를린 아에데스 갤러리 전시리뷰 -아에데스 갤러리 이타미 준 전시	공간, 439, 04.06, p116	개인전
16	비움의 구축 - 민현식 · 승효상 미술전시 귀국전	C3, 237호, 04.05, p140	작가전
17	“융합하는 동아시아건축세계로부터” -승효상(한국), 장용호(중국)전	플러스, 204호, 04.04, p142	작품전 작가전
18	제8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건축전 'NEXT'	공간, 419, 02.10,	작품전
19	제7회 베니스 국제 건축 비엔날레	공간, 393, 00.08, p144	작품전

□ 조직 체계 및 프로세스

국제 비엔날레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동시에 조직 체계와 전시 프로세스도 지원받고 있어 그 진행 구조가 명확하나, 기타 일반 건축 전시의 경우 전문가의 부재로 인해 일반 건축가가 큐레이터 역할을 대신하게 되므로 인적 구성이나 전시 진행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고 지원 시스템이 부실하여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모되는 상황이다.

□ 전시의 경향

최근 들어 비엔날레와 같은 대규모 건축박람회 뿐만 아니라 단체전의 형태로 해외에 진출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사례의 소개를 통해 한국 건축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전시의 동기가 개인적인 친분에서 기인하거나, 전시 참여 조직이 임시로 구성되었다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함으로써 건축 관련자들의 네트워크 형성이나 교류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동일 주제의 순회전시는 주로 교류하는 몇몇 국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 재정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 편성에서는 미술 및 디자인 분야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 시각예술분과의 위원회 구성도 건축분야의 전문가는 전혀 없고 순수미술이나 디자인 관련 인사로만 치중되어 있어서 건축 전시에 대한 필요성이나 지원을 평가할 수 없는 현실이다.

(2) 전시의 유형에 따른 사례 검토

① 건축 전시의 유형

□ 국내 건축 전시의 유형적 구분

전시 규모 및 성격에 따라 개인전, 작품전, 작가전으로 구분 가능하다. 개인전은 건축가 1인이 개인의 작품을 전시하는 경우를 지칭하며, 단체전의 경우는 작품전과 작가전으로 구분되는데 작품전이란 ‘Megacity Network’ 처럼 특정 주제에 맞는 여러 작가의 작품을 선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작품이 전시되는 형태를, 작가전은 ‘S(e)oul Scape’ 와 같이 특정한 주제의식 없이 동일한 지역 범위를 공유하거나, 친목에 의해 모인 단체가 각 작가의 작품성을 보여주기 위한 작품을 전시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② 개인전

□ 개요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건축가를 선정하기 위해 최근 5년간의 자료를 통해 전시 빈도수가 높은 건축가를 조사해 보았을 때, 승효상이 가장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었으며 이 외에 민현식, 우경국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국내 작가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작품 세계를 인정받은 경우가 적어 개인전을 통해 해외에 소개되는 건축가가 소수로 한정되어 있다. 일반적인 전시의 동기로는 대부분 초청이 많으며, 초청 주체는 주로 아시아 건축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건축 대학 및 건축 전문 갤러리들이었다. 이렇게 개인전을 통해 해외로 진출한 작가들은 이를 기반으로 해외 비엔날레에서도 전시 작가로 선정되어 비교적 활발하게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 현황

〈표 3-25〉 최근 5년간 국내건축가 해외전시_ 개인전 현황

	전 시 명	출 처	분류
1	관계 현상의 미학-우경국전	공간, 06.11, p52	개인전
2	건축가 김종성, 아에데스갤러리 건축 전시 개최	공간, 06.10, p38	개인전
3	베를린의 두 건축 전시회, 승효상 전시, 파주 북시티	C3, 256호, 05.12, p158	개인전
4	베를린 아에데스갤러리 전시리뷰 -아에데스 갤러리 이타미 준 전시	공간, 439, 04.06, p116	개인전

□ 주요사례 #1 승효상 전시/ 파주 북시티⁷⁸⁾

〈표 3-26〉 승효상 전시/ 파주 북시티 개요

- 전시명 : 「Seung H-Sang : Culturescape」
- 전시기간 : 2005/09/23 - 11/03
- 전시장소 : Aedes East Exhibition, Berlin
- 참여작가 : 승효상



전시 기획 동기는 개인적인 친분을 계기로 기획되었고 전시 기획 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3-27〉 승효상 전시/ 파주 북시티 전시 기획 과정

- 2002.10.
 - 김영철(1964년 고려대 건축대학원 졸업, 2005.2월 베를린 공대 서양건축이론 연구실 박사과정 재학) 승효상과 만남을 통해 전시가 기획
 - 아에데스 갤러리 측 승효상 건축 전시 의뢰
- 2003. 4.
 - 아에데스 갤러리 측에서 승인 후 초대장 건축가에게 발송 후 건축가에게 답신

78) C3, 2005.12, p158 [베를린의 두 건축 전시회]

2003년 7월,

- 전시 개최 확정, 예정일자를 2004년 9월과 10월로 합의
- 베를린 주정부 산하 문화재단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전시일정을 2005년 9월 23일로 재조정

2005년(아에데스 25주년)

- AEDES GALLERY-EAST에서 승효상 전시(코디네이터 최원준), AEDES GALLERY-WEST에서 파주출판도시 전시(큐레이터 김영준, 설치 강영훈, 이종웅)
- 오픈 전 행사로 아에데스 갤러리, 베를린 예술원 주관 플로리안 베이겔의 강연회 개최되었고 전시회 오픈식에는 무용가 안은미 공연이 진행되었음
- 그 외에 이수혁 주한 독일 대사의 승효상 건축 위상 소개

전시회 이후

- 파주출판도시 전은 바르셀로나에서 11.26~ 전시되고 있고, 비엔나의 춤토벨관에서 2.16~3.17진행
-

□ 주요사례 #2 우경국 전시/ 관계 현상의 미학

〈표 3-28〉 우경국 전시/ 관계 현상의 미학 개요

-
- 전시명 : 「Aesthetics of Relational Phenomenon」
 - 전시기간 : 2006.11.17~2006.12.2
 - 전시장소 : 스코틀랜드 던디 로워포이어 갤러리
(Lower Foyer Gallery)
 - 참여작가 : 우경국



- 전시 기획 동기로는 던디건축대학(Dundee School of Architecture, University of Dundee)이 한국과의 건축문화 교류 차원에서 진행하였으며 건축가 우경국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관계 현상의 미학'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개최했다.

③ 작가전

□ 개요

작가전은 해외에서 한국의 건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해외를 대상으로 아시아 건축 소개의 한 유형으로서 전시가 기획된다. 주로 한 사람의 건축가를 대상으로 전 작품 과정을 회고하는 형식과, 그룹전의 형태로 주제를 통해 여러 건축가를 포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각각의 개별 건축가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구분된다.

□ 현황

〈표 3-29〉 최근 5년간 국내건축가의 해외전시_작가전 현황

	전 시 명	출 처	분류
1	S(e)oul Scape	공간, 08.01. p11	작가전
2	비움의 구축 - 민현식 · 승효상 미주전시 귀국전	C3. 237호. 04.05. p140	작가전
3	“융합하는 동아시아건축세계로부터” - 승효상(한국), 장영호(중국)전	플러스, 204호. 04.04. p142	작품전 작가전

□ 주요사례 S(e)oul-Scape전

〈표 3-30〉 S(e)oul-Scape전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명 : 「S(e)OUL SCAPES」 전 · 전시기간 : 2008년 1월 24일 ~ 2008년 12월 31일 · 전시장소 : 이탈리아 SESV Gallery외 3개국 Florence, Italy SESV gallery(1.24-2.15) Barcelona, Spain RAS Gallery(4.9-5.3) Rotterdam, The Netherlands The Berlage Institute (5.15-6.20) · 참여작가 : 6인 - 김영준(대표건축가), 민현식, 승효상, 정기용, 조성룡, 이종호 	
--	---

전시 기획 동기로는 전시 참여 작가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왔던 Francisco Sanin(전시큐레이터, Syracuse 대학)의 제안으로 최초 행사 기획이 이루어졌고, 전시의 목적은 대학로라는 공통된 지역에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며 상호 교류하고 있는 한국 건축가들 6명의 작업을 전시하여 서울의 건축과 나아가 동시대 대한민국의 건축과 도시의 모습을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자 함이었다. 세부 전시 기획은 건축가 김영준, 각종 실무 작업은 프리그램(이재준 소장)에 의해 진행되었고 해외 홍보는 image⁷⁹⁾사를 통하여 진행되었다. S(e)oul-Scape전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전시를 진행함과 동시에 건축 이론가인 배형민(서울시립대 교수)의 참여로 기획 의도대로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유럽 전역으로 이동하면서 지속적인 담론 형성의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국제 전시를 위한 별도의 전문 인력이나 네트워크 보다는 자체적인 기획을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세부 실행사안이 국내에서 계획성 있게 통제되지 못하고 해외 조직과의 단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진행된 한계점도 드러내고 있다.

79) 해외홍보를 대행하였던 Image사는 대표적인 에이전시로서 건축도시분야를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출판, 전시기획, 아카이브 사업을 진행. <http://www.image-web.org/>

④ 작품전

작품전의 유형은 단체 전시회 형태로 주제에 부합되는 여러 건축가의 작품이 다수 전시되는 형태로써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최근에 진행되었던 Megacity Network 전시와 베니스 비엔날레 전시를 들 수 있다. 특히 비엔날레의 경우는 전시회장에 각 나라의 국가관이 마련되어 단발적인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나라별 작가 및 주제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테마들에 대한 각국의 해석을 바탕으로 전시가 진행된다.

□ 현황

〈표 3-31〉 최근 5년간 국내 건축가의 해외 전시 현황_작품전 현황

	전 시 명	출 처	분류
1	Megacity Network	공간, 07.11, p8	작품전
2	상파울로 국제건축비엔날레 '건축,공공성,사유성'	공간, 07.10 p11	작품전
3	건축가 김효만, 뉴욕 The Good Life 전 참가	공간, 06.12, p38 C3, 06.12, P171	작품전
4	베이징건축비엔날레	C3, 267호, 06.11, p138	작품전
5	제10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공간, 467, 06.08, p54	작품전
6	2004 베니스 비엔날레	플러스, 212, 04.12, p48	작품전
7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공간, 444, 04.11, p224	작품전
8	"융합하는 동아시아건축세계로부터" -승효상(한국), 장영호(중국)전	플러스, 204호, 04.04, p142	작품전 작가전
9	제8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건축전 'NEXT'	공간, 419, 02.10,	작품전
10	제7회 베니스 국제 건축 비엔날레	공간, 393, 00.08, p144	작품전

□ 주요사례#1 베니스 비엔날레 전시⁸⁰⁾

〈표 3-32〉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개요

- 시기 : 1980년 1회 건축전이 개최된 이후 2000년부터 매 짝수년 마다 시행
- 장소 : 이탈리아 베네치아 카스텔로 공원(Giardini di Castello) : 국가관 전시
아르세날레(Arsenale, 구 해군기지) : 주제전
- 참여국 : 평균 60여개국 200명의 전문가가 참여
- 구성 : 디렉터가 정한 주제에 의해 '주제전', '국가관전시', '특별전시'로 구성
- 전시성격 : 5회까지 건축가 중심 혹은 공모작 중심으로 전시가 진행되었으나 6회 건축전 개최된 1996년부터 기획 중심으로 변화되었음⁸¹⁾
- 역할 : 세계 문화계가 고민하는 패러다임에 대한 화두를 제시하고 방향을 이끌어냄으로서 베니스가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음

80) <http://www.labiennale.org/en>

지금까지 베니스 비엔날레 내 한국관의 전시 현황을 살펴보면 1996년 이후로 2008년 까지 총 6회 국가관 전시에 참여하였으며, 제9회 비엔날레에서는 ‘물위의 도시’라는 특별 전시가 개최되어 청계천이 전시된 바 있고, 2006년에는 송도신도시가 초청되었다. 운영 조직 체계는 행정 코디네이터와 전시 중심의 커미셔너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전시를 위한 커미셔너 선정위원회⁸²⁾가 구성되어 매년 커미셔너(2006년 김승희)를 선정하고 있다. 베니스 비엔날레의 경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공식적인 지원을 통해 전시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자체적인 전시 역량이 갖추어져 있으나, 커미셔너 및 작가 선정 등에 있어 건축 전문가의 개입이 요구된다.

〈표 3-33〉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현황 (건축전)

-
- 제6회 1996년 (9.15~11.17)
 커미셔너 : 강석원(한국건축가협회 이사장)
 참가작품 : 국립중앙박물관 및 명동성당지구 재개발
 설계경기 작품 17점

 - 제7회 2000년 (6.18~10.29)
 홈페이지 : <http://www.korean-pavilion.or.kr/00pavilion/about.htm>
 커미셔너 : 김석철
 참가작가 : 최민, 조건영, 이상해, 안건혁, 이상현, 김동건 등

 - 제8회 2002년 (9.7~11.3)
 홈페이지 : <http://www.korean-pavilion.or.kr/02pavilion/>
 총괄 : 데이안 수직(Deyan Sudjic) : 영국건축잡지 AD디렉터
 커미셔너 : 김중성(서울건축 대표)
 참가작가 :
 - 김영준 : 파주출판단지 공동주거 계획
 - 김종규, 김준성 : 헤이리 아트벨리 커뮤니티 하우스
 - 민현식, 이민아 : 공원 + 도서관
 - 박헬렌주현 : 헤이리 아트벨리 스튜디오 + 주택
 - 우규승 : 추모공원과 납골당
 - 이종호 : 박수근 미술관
 - 조성룡 : 파주출판단지 상가블럭

 - 제9회 2004년 (04.9.12~11.7)
 커미셔너 : 정기용
 방의 도시
 참가작가 : 김광수, 송재호, 유석연 * 주제관에 씬지길 초청(최문규, 조민석)
-

81) 작가를 중심으로는 다양한 건축의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고 각 국가의 고민과 해결방안들에 대한 논의와 담론을 형성하는 데에 주제 및 기획중심의 전시가 효과적으로 생각하였을 것으로 추측됨, 문대하외 1인, ‘현대 건축 전시회의 기획중심 전시디자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25권 제1호, p.163

82)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규정 제 2장(제5조 - 제7조)

- 제10회 2006년 (06.9.9~11.19)
커미셔너 : 조성룡
부커미셔너 : 이종호, 최문규
주제 : 오래된 도시, 순간의 장소(permanent)
참가작가 : 김승희, 김찬중, 김현, 신혜원, 최욱
- 제11회 2008년 (9.14~11.23)
커미셔너 : 승효상

※ 출처 : <http://www.korean-pavilion.or.kr/>

□ 주요사례#2 Megacity Network전

〈표 3-34〉 Megacity Network전 개요

- 전시명 : 「메가시티 네트워크: 2007 프랑크푸르트 한국 현대건축전」
Megacity Network: Contemporary Korean Architecture 2007
- 전시기간 : 2007년 12월 8일 - 2008년 2월 17일
- 전시장소 : 독일 프랑크푸르트 독일건축박물관
- 전시주관 : 새건축사협의회, 독일건축박물관
- 전시후원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문화관광부, 서울특별시청
- 참여작가 : 16인 건축가 및 사진작가 - 권문성, 김영준, 김인철, 유결, 유석연, 이종호, 이충기, 정기용, 조남호, 조민석, 조병수, 주대관, 최문규, 황두진, 이상림, 박승홍
안세권(사진작가), 김성홍(코디네이터)



전시 기획 동기로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일환으로 ‘한독퍼블릭스페이스 포럼’의 준비 과정에서 김성홍(서울 시립대학교 교수)이 진행한 전시를 당시 포럼 기획자이며 독일건축박물관(DAM)의 큐레이터였던 Peter Schmal이 한국 건축 관련 전시를 제안하여 기획되었다. Megacity Network전은 한국을 대표하는 16인 건축가의 창의적 건축물과 한국 도시의 역동적 변화를 보여주는 전시로서, 독일건축박물관의 공식적 파트너인 새건축사협의회가 행사를 주관하고 총괄 기획자(김성홍)에게 주제 및 참여건축가, 코디네이터 선정을 위임하였다. 운영 조직으로는 총괄 기획자(김성홍), 대표 건축가(유결), 전시 코디

네이터(황두진, 조남호), 출판 코디네이터(유석연), 대외협력 코디네이터(최문규, 이충기), 기금 코디네이터(이동우, 공간, 정림)가 구성되었고 이를 통해 전시, 출판, 기금 조성을 추진하였다. 특히 이 전시는 한국이 기획하는 최초의 독립적인 한국 현대건축 해외 그룹전으로서 독일 일간지 FAZ에서 “메가 시티 네트워크전은 빼어난 설치물과 눈부신 디자인으로 가득찬 생기 넘치는 전시회”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독일의 국제적 출판사 요비스(Jovis)는 단행본 ‘현대한국건축(Contemporary Korean Architecture)’을 3월에 출간하는 성과를 낳았다. 이 책에는 16인 건축가의 32개 건축 작품과 사진작가 안세권의 작품, 한국 도시와 건축에 대한 국내외 학자, 건축가, 언론인의 글이 수록되어 있어 출판과 연계를 통한 한국 건축을 소개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림 3-11〉 Megacity network전 홍보결과물

그러나 전문적인 전시 코디네이터가 부재한 상황에서 참여 건축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에 의존하여 진행하게 됨으로써 추진 중 의견 조율이나 시행착오가 다수 발생하였고 적절한 후원 기관을 통한 자금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홍보 대행사에서 일정 부분의 수익을 확보하도록 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소비용을 받도록 진행된 한계점을 드러냈다.

(3) 분석 및 개선 방안

① 체계적인 기획 시스템 구축

지금은 해외 건축 전시가 단편적이고 개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장기적인 홍보 전략을 구상하기 힘들며, 다양한 건축 전시 간 정보 및 자료 공유가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 전시가 개인 건축전보다 신진 건축가 중심의 작가전이나 특정 주제에 대한 작품전 위주로 진행 될 경우, 작가 및 작품 선정과 전시 국가의

여건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획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국 대사관, 문화원 등의 정보 제공 및 사전 전시 기획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축 전시 기획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② 건축 전시 전문가 육성과 해외 인적 네트워크 확보

알레한드로 자에는 “POWER”라는 주제의 기획 강연을 통해 건축 시장에 있어 전시를 이끌고 있는 이들의 지형을 그림으로써 세계적인 큐레이터가 건축계를 움직이는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건축가들은 스스로 홍보 자료를 만들 시간과 여건이 부족하여 전시 코디네이터나 콘텐츠를 기획하는 사람들과 비평가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획과 실행을 전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단기적으로 외국의 유명 큐레이터를 초빙⁸³⁾하여 이들과 함께 전시를 기획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장기적으로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통해 국내 자체의 건축 전시 전문가를 육성하는 방안이 요구된다.⁸⁴⁾ 또한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해외 주재 국가 기관(대사관, 문화원 등)들을 통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편의를 고려하여 전시 아이템이 일회적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기획 전시 및 순회 전시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③ 건축 전시 예산 지원 방안 모색

전시를 기획할 때 건축가 스스로가 전시 소요금액을 부담하기 힘든 현실임에도, 건축 전시를 전담해줄 지원 기관이나 관련 기구가 부재하여 해외 진출 시 마땅한 지원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전시를 준비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여건이 열악하다. 전시 시장의 활성화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 기관의 지원 이외에도 친환경적인 이슈 등과 연계하여 브랜드 마케팅이 필요한 대기업의 후원이 요구된다. 또한 건축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단의 설립을 통해 전시작가의 강연회 개최와 전시 전문가의 육성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시장의 확보에까지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④ 특성있는 전시 주제의 확보

현재까지 해외 건축 전시의 경우 작가의 성향에 기댄 개인전 중심의 사례가 빈번했으나 작품의 주제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계적인 경향과, 해외에서

83) 네덜란드에서는 초기에 이론가로서 ‘올레이 부만’을 초청하여 외국 시장을 개척하는 방식을 취함

84) OMA에서 동경을 기반으로 ‘Total Scape’ 전시를 기획하고 이러한 노하우를 통해 일본의 국제적 입지를 향상시켰음

의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하면서도 한국적인 전시 주제의 확보 방안이 요구된다. 네덜란드의 경우 수상제도인 NAI prize를 통해 신진건축가를 선발하고 이들의 작품을 지원하여 네덜란드를 바탕으로 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사례와 같이, 수상제도를 통한 작품의 확보 방안과 한국적인 건축 주제의 발굴이 병행되어야 한다.

⑤ 종합적인 홍보 방안으로서 전시 지원

한국 건축의 해외 홍보라는 목표 아래 전시만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이와 함께 아카이빙-연구-출판-강연회 등과 연계된 종합적인 홍보 전략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소결

현재 건축 관련 전시는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 그 성과가 일회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므로 해외 진출에 대한 명확한 프로세스와 축적된 경험의 부재로 인해 건축 전시 기획 시 과도한 기회비용이 소모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건축가들이 본업으로 인하여 전시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건축 전시 전문가(큐레이터, 코디네이터 등)도 부재한 상태이다. 그 밖에도 전시 이외의 다른 홍보 수단(출판, 콘텐츠 개발)과의 연계를 피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홍보 전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⁸⁵⁾ 따라서 이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해외 사례와 같이 정책적인 지원을 통한 건축 전담 기관의 설립과 건축가들의 전시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85) 전시는 짧게는 일주일 길어도 한달이 지나면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그것의 파급효과는 평론가나 언론을 통해 해석되어진 정보의 전달에 불과하므로, 서적 출판 작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담론이 재생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 이재준 소장 인터뷰 중(08.09.03)

3

출판·전시 분야 정책의 기본 방향

1) 기본방향

(1) 출판 분야

출판을 통한 국내 건축문화의 해외 홍보의 기본 방향으로서는 공공 부문의 출판 지원 및 배급망 확보, 기관 설립을 통한 시스템 마련으로 콘텐츠의 지속성, 추진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 분야의 기초 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그 외 다른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기획 프로세스로서 출판 주제 및 비평가 선정, 출판사 접촉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타 분야와 연계한 종합 홍보를 위한 출판 기획으로서 국제적 홍보라는 목표 아래 전시뿐만 아니라 아카이빙, 출판, 연구 등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기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2) 전시 분야

공공이 주도하는 체계적인 해외 전시 시스템 구축할 수 있도록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관련 전문 기관을 기반으로 건축 전시회 기획이나 전문가 육성 등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건축 전시를 위한 통합 기획 프로세스를 설정하여 건축 전시와 관련된 정보로서, 전시 주제 및 작가의 발굴과 큐레이터 접촉, 예산 확보, 전시장 기본 계획, 사전 홍보, 전시 간행물 발간에 이르기까지 전체 통합 프로세스 대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다양한 홍보 전략과 연계한 종합 전시 실천 방안을 모색하여 국제 홍보라는 목표 아래 전시뿐만 아니라 아카이빙, 출판, 연구 등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기획·실행되도록 한다.

2) 추진방향

(1) 단기

① 건축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 건축문화 진흥(건축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3조)

- 건축문화 기반 구축과 건축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 건축문화행사 추진 및 지원(건축기본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건축문화행사 추진과 지원 및 국민의 건축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지원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 건축문화 관련 전문기관 설립지원(건축기본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18조)

- 건축기본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18조에서는 건축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이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건축 관련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건축기본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18조)

- 건축기본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18조에는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건축 관련 해외진출 및 국제 교류 사업에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출판·전시·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지원

(건축기본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18조)

(2) 장기

① 건축문화 관련 기관의 설립(건축도시박물관, 건축도시연구소, 건축센터)을 통해 기본적인 실천 수단을 확보한다.

② 정부주도의 사업과 동시에 민간부분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진행한다.

3) 중점추진과제⁸⁶⁾

출판 분야를 통한 국내 건축 해외 홍보 방안에 있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는 우선 통합적인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하며 장기적으로는 프로세스 개선과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지금부터 준비하여야 한다. 아래의 추진과제는 5년 이내에 진행이 가능한 과제는 단기로, 5년 이후에 실현 가능한 과제는 장기로 구분하였다.

(1) 출판 분야

〈표 3-35〉 출판 분야 장·단기 추진과제

추진 전략	중점추진과제	단기	장기
시스템 구축	1. 건축 이론·역사 분야의 포스트닥터 과정 운영	○	
	2. 건축 출판 분야의 정책마련을 위한 기초통계 DB구축	○	
	3. (가칭)건축센터 내 출판관련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
	4. 건축문화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사업(번역가, 비평가)		○
	5. 지속적인 출판 콘텐츠 발굴을 위한 (가칭)건축문화 아카이브 설립·운영		○
프로세스 개선	6. 출판기획 및 비평 공모를 통한 신규사업 발굴 및 지원	○	
프로그램 개발	7. 건축전문도서 전시회(bookfair) 개최	○	

(2) 전시 분야

〈표 3-36〉 전시 분야 장·단기 추진과제

추진 전략	추진과제	단기	장기
시스템 구축	1. 건축 전시 기획 전문 인력 양성		○
	2. 건축센터 내 전시지원부서를 통한 건축 전시관련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
	3. 건축 전시분야의 정책마련을 위한 기초통계 DB구축	○	
프로세스 개선	4. 건축 전시 진행 자문 및 지원 서비스		○
	5. 해외 유명 전시장(또는 전시)과 연계한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
프로그램 개발	6. 대규모 국제 건축전 및 건축 비엔날레 개최	○	
	7. 타 홍보 전략과 연계한 전시 종합 시스템 운영		○
	8. 한국적 전시 주제 및 특성 있는 전시 아이템의 발굴 지원 사업	○	
	9. 건축 전시를 위한 자금 지원 사업	○	

86) 출판, 전시분야의 장·단기 추진과제 중 음영으로 채워진 부분은 단기과제로 음영으로 채워지지 않은 부분은 장기과제로 표시하였음

출판 · 전시 분야의 추진과제 4

1) 출판 분야

출판 1) 건축 역사 · 이론 분야의 포스트 닥터 과정 운영

□ 개요

출판 분야의 지속적인 콘텐츠 부족 및 집필진 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건축역사 · 이론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 단기적 과제로 포스트 닥터 과정을 운영한다.

□ 추진주체 및 방법

건축정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매년 3명 규모의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 테마를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여 최종적인 결과물을 제출하고, 그 결과물을 해외 주요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연계를 꾀한다.

출판 2) 건축 출판 분야의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통계 DB구축

□ 개요

현재 건축 출판 분야 사업에 대한 기초 현황 자료 및 관련 산업분야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기반사업 육성 방안과 효율적인 정책 마련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 추진주체 및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문화산업 백서에서 관련 분야의 통계를 산출하여 내도록 하거나 국토해양부 내 건축문화팀이 주관하는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적 제안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기초통계 DB를 구축하여 문화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출판 3) '가칭' 건축센터' 내 출판관련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 기본방향

기존의 대한출판문화협회, 국제출판협회 등과의 협조를 통하여 건축전문 도서 시장의 개척을 위한 협조 체계 방안을 모색하여 건축 전문 출판 분야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필요한 진출 국가의 시장 분석 및 자료를 제공한다.

□ 현황 및 문제점

현 상황은 해외 진출 과정에 대한 전문지식 부재로 인하여 해외 진출에 많은 제약 요소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국내 건축 전문 출판사들이 영세하여 과감한 해외진출을 고려하지 못하고 국내 시장에만 머무르게 되어 점점 더 영세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좋은 양서들에 대해서는 아시아 지역 및 해외 시장에 홍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유통망 및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

□ 주요사례

〈표 3-37〉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 개요

한국예술위원회에서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금, 시상, 레지던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작권 관련 사항, 해외진출 위한 컨설팅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르코지원컨설팅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음

출처 : <http://online.arko.or.kr/>

□ 세부과제(연구 및 사업)

- 매년 주요 지역에 대한 시장 및 여건 분석
- 출판 시장 정보 및 컨설팅 지원 시스템 구축
- 홈페이지 개설을 통한 웹서비스 개시

출판 4) 건축문화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사업(번역가, 비평가)

□ 기본방향

건축문화의 해외 홍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진출하려는 국가의 문화권을 구성하고 있는 언어적 문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도서이니 만큼 건

축분야에 대한 외국어 전문 번역 및 비평 인력이 필요하다.

□ 현황 및 문제점

국내에는 전문 도서 분야에 대한 해외 출판을 담당할 번역 및 비평 분야의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국내 콘텐츠를 해외에 홍보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으며, 현재 건축 도서 관련 전문 인력은 번역 전문가가 아닌 대학 교수들을 주축으로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 주요사례

우리나라 문학 분야에서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전문가 육성 사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3-38〉 한국문학번역원 : 전문번역가 육성 사업 개요

전문번역가 육성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되어 학위과정 장학지원, 단기번역연수지원, 번역가 레지던스 지원 등으로 진행되었음
- 학위과정 장학지원
: 외국인 및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국내외 대학의 한국학 관련 대학원 학위과정에 대해 등록금 및 체제비를 지급
- 단기번역연수지원
: 〈한국문학 번역가 과정〉 수강을 위한 지원신청으로 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 2008년 정식 부설기관으로 번역아카데미 설립을 통해 번역교육 강화 예정
- 레지던스 지원
: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문학 번역가에 대한 국내 체류 프로그램 운영

출처 : 2007 한국문학번역사업연감, 한국문학번역원

□ 세부과제(연구 및 사업)

- 건축 전문 번역 인력 육성 기본계획 수립
 - : 단기적으로는 전문 연구기관에서 건축 전문 번역 인력의 육성 방안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 매년 2-3개 도서를 선정하여 해외에 홍보
 - : 재외문화원 및 국제교류재단과의 연계를 통하여 각 지역의 거점(영어권, 유럽, 아시아권)으로 삼아 이에 대해 문화적 홍보를 진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 신진 번역가와 비평가를 발굴 사업

출판 5) 지속적인 출판 콘텐츠 발굴을 위한 (가칭)건축문화 아카이브 설립 · 운영

□ 기본방향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이 되는 건축문화 자체에 대한 정보, 자료의 수집, 보관이 필요하므로 ‘(가칭)건축문화 아카이브’를 설립하여 운영한다. 그리고 구축된 아카이브를 연구 자료로서 활용하면서 지속적인 도서 발간을 위한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에는 건축문화 분야에 대한 아카이브 및 정보 구축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연구를 하려고 해도 자료 확보를 위한 초기 단계인 자료 수집 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있다.

□ 주요사례

네덜란드 NAI에서는 램콜하스(OMA)건축가에 대한 자료를 수집·아카이빙하여 open model storage를 통해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연구 및 출판, 전시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세부과제(연구 및 사업)

- 자료 수집기능으로서의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분야의 사업을 시행한다.
- 아카이브 자료 해석을 위한 연구사업 공모 : 건축 아카이브 구축 이후 수집된 자료의 해석 및 콘텐츠 제작, 활용을 위해 관련 분야 연구인력 발굴을 위한 연구 사업을 공모한다.

출판 6) 출판 기획 및 비평 공모를 통한 신규 사업 발굴 및 지원

□ 기본방향

건축 전문 분야 출판사들의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새로운 기획 인력 양성을 위한 신규 사업을 공모함으로서 일반인 및 전문가들의 관심을 유도한다.

□ 현황 및 문제점

건축문화 출판 분야에 대한 다양한 사업 아이템 및 콘텐츠 개발이 부족하여 외국 서적의 번역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에서 건축양서가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시장 논리가 아닌 국가차원에서의 지원 및 사업 시행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국의 현대 건축을 우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평가하여 세계 속에서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세계적인 마인드를 가진 전문가가 부재하는게 국내의 현실이다.

□ 주요사례

〈표 3-39〉 심원건축학술상 개요

심원건축학술상
<p>건축역사와 이론, 건축 미학과 비평 분야의 신진 학자를 지원하기 위한 학술상 1년 이내에 출판 가능한 연구 성과물을 대상으로 매년 1편을 선정하여 단행본 출간과 저술 지원비를 후원하는 상으로 올해(2008년) 처음으로 개최되었음</p>
출처 : 심원건축학술상

□ 세부과제(연구 및 사업)

- **국내 건축 출판 기획서 공모전 개최를 통한 서적 출판**
: 국내 출판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건축 출판 기획서를 공모전을 통해 매년 2개씩 선정하여 관련 분야의 우수 콘텐츠를 발굴하여 제작하도록 한다.
- **한국 건축에 대한 해외 연구자 지원 사업**
: 국제 교류 기구등과 연계하여 국내 건축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필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 건축을 소재로 연구하는 해외 연구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한다.
- **신진건축가에 대한 작품집 브로셔 제작 배포**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진건축가 선정 사업을 통해 선정된 작가들을 해외에 홍보할 수 있도록 브로셔 제작 및 배포를 지원한다.
- **건축문화관련 기관에서 계간지 발간**
: 건축문화에 관련된 국내 소식들을 상업적 목적이 아닌 순수 학문적 입장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계간지를 제작하여 배포한다.

출판 7) 건축전문도서 전시회(bookfair) 개최

□ 기본방향

현재 국내에서는 전문 도서 관련 산업의 구체적인 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속적인 건축전문도서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관련 산업 동향 파악 및 일반인과 전문가들의 관심을 유도한다. 또한 다른 분야와 연계한 전시회 개최로 도서 이외의 건축문화와 관련된 분야가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건축 도서 관련 정보에 대한 공식적이고 통합적인 교류의 장이 없어서 각 출판사, 배급사 별로 획득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출판사가 해외에 진출하려면 정부나 기관의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개별로 시장을 개척해야 하기 때문에 판매를 위한 초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출판사들의 우수 성과에 대한 사례 발굴 등을 통하여 출판사들이 서로 연계되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는 한국 건축을 세계 속에 널리 홍보하며 그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주요사례

〈표 3-40〉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시회 개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시회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도서전으로
매년 10월에 개최되며 저작권 거래, 도서 전시가 이루어짐

□ 세부과제(연구 및 사업)

- 출판 기획서 공모를 통한 지원

: 민간단체 및 출판사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며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필진을 발굴할 수 있도록 기획서 공모전을 개최하고 시상한다.

- 건축 비평 공모전 실시를 통한 신진 비평가 발굴

: 민간단체 및 건축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비평 공모전 및 포럼 등을 개최하여 건축비평 분야의 지속적인 사업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 우수 건축도서 발굴 및 시상 제도 실시

: 건축 출판 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달 우수 건축도서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 **우수 건축도서 선정 주요도서관 및 기관 배포 지원**

: 선정된 서적들을 주요 도서관 및 관련 공공 기관에 배포함으로써 출판 사업의 활성화와 건축문화 관련 대국민 문화 향유의 기회를 높이도록 한다.

2) 전시 분야

전시 1) 건축 전시 기획 전문 인력 양성

□ 기본방향

건축에 대한 지식을 가진 전시 기획 전문가의 양성을 통해 건축 전시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 현황 및 문제점

전문가의 부재로 인해 건축가가 전문 큐레이터 역할을 대신하게 되어 인적 구성이나 전시 진행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고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모되는 상황이다.

□ 주요사례

네덜란드에서는 초기에 이론가로서 ‘올레이 부만’을 초청하여 외국 전시 시장을 개척하는 방식을 취했으며, OMA전시에서 동경을 기반으로 ‘Total Scape’ 전시를 기획하고 이러한 노하우를 통해 일본의 국제적 입지를 향상시키게 되었다.

□ 세부과제(연구 및 사업)

- 전시기획 전문인력 양성

: 국내 건축학과 내 건축 전시 기획 전문가 과정 개설 등을 통해 인력을 양성한다.

: 건축센터 내 큐레이터 전문 보수 교육 과정 신설을 통해 기존 건축가를 건축 전시 전문가로 육성한다.

- 건축 전시 전문가 해외연수 프로그램 지원

- 국제 건축전시 협업프로그램 진행

: 대규모 해외 건축 전시의 협업을 통해 큐레이터를 파견하거나 유명 큐레이터를 초빙한다.

- 건축 전시 전문 도슨트 교육 실시

전시 2) 건축센터 내 전시 지원 부서를 통한 건축 전시 관련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

□ 기본방향

건축 전시 관련 전담 조직의 신설을 통해 전시 자료의 축적, 공유 및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현황 및 문제점

건축 전시 전문 분야가 구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건축 전시를 전담하거나 장기적인 기획과 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세부과제(연구 및 사업)

- 종합 정보 홈페이지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해외전시 동향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개소하여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건축 해외 전시 전담부서 신설

: 향후, 건축센터 내 건축 전시 전담부서의 신설을 통해 해외 진출의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 해외전시 지원네트워크 구축

: 해외 주재 국가기관(대사관, 문화원 등)을 통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편의를 제공한다.

: 국제적 건축센터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제교류 시스템 구축 및 행사를 지원한다.

전시 3) 건축 전시 분야의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통계 DB구축

□ 개요

출판분야와 연계한 건축 전시분야의 사업에 대해 기초현황자료가 부족하고 관련 산업 분야의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도 부족하여 기반 사업 육성 방안 및 효율적인 정책 마련이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 추진 주체 및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 분야의 통계를 산출하여 내거나 국토해양부 내 건축문화팀이 주관하여 통계자료를 수집 활용토록 한다. 또한 정책적 제안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기초통계 DB를 구축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시 4) 건축 전시 진행 자문 및 지원 서비스

□ 기본방향

해외전시 관련 전문 인력 및 주요 전시장 현황, 전문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망을 구축하여 제공함으로써 건축 전시의 전문성을 보완한다.

□ 현황 및 문제점

대규모 전시의 경우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따라 예산 편성이나 기획절차가 상이하며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기획하는 전시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특히 해외 전시의 경우 국내 작가의 명성이나 국제적 인지도가 약한 실정이라 개인전보다는 기획전의 형태가 많으나, 전문적인 자문 및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참여 건축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에만 의존하게 됨으로써 추진 중 의견 조율이나 시행착오가 다수 발생한다.

□ 세부과제(연구 및 사업)

- 전시의 규모와 분류별 기획 절차 및 프로세스의 간소화·유형화
: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해외전시 지침서를 작성, 배포함으로써 해외 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건축 전시 전문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인력망 구축, 정보 공유
: 건축 분야 전문 인력들의 네트워크 체계를 민간차원에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향후 축적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전시 5) 해외 유명 전시장(또는 전시)과 연계한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 기본방향

해외 전시장과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다양한 해외 진출의 기회를 마련한다.

□ 현황 및 문제점

전시의 동기가 개인적인 친분에서 기인되거나, 전시 참여 조직이 임시로 구성되었다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함으로 인해 건축 관련자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교류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수의 순회전시를 하게 되지만 주로 교류하는 국가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 세부과제(연구 및 사업)

- **국내 국공립 미술관과 해외 주요 건축 전시장의 협정 체결**
: 별도의 건축 전문 전시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미술 분야가 선행하여 건축 전시장과의 교류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
- **해외 상설 건축 전시장 확보 및 각 국 공관을 활용한 전시 기획**
: 외교통상부, 국제교류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각 공관의 공간을 활용한 건축분야 전시회 개최를 검토하거나 유명 미술관 내 한국관 설치 작업과 연계하여 전시장을 확보한다.
- **국내 건축대학 졸업 전시회 해외홍보 지원**
: 국내 건축대학에서 매년 진행되는 작업들을 해외대학과 교류 전시함으로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실험적 생각들을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해외주재 국가 기관(대사관, 문화원 등)을 통한 지원시스템 마련**
: 건축에 대한 문화적 인식 고양을 바탕으로 해외 전시 진행 시 대사관 및 문화원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전시 아티템의 지속적 활용방안 마련**
: 전시를 위하여 만들어진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순회 전시가 가능하지만 현재, 시설 간의 네트워킹이나 관련 정보의 공유 등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유지 방안(예, 건축박물관 네트워킹 구축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시 6) 대규모 국제 건축전 및 건축 비엔날레 개최

□ 기본방향

동아시아 국가를 주 대상으로 하는 국제 건축비엔날레를 개최하여 동아시아의 건축 문화를 선도한다. 건축비엔날레를 건축문화의 대표적인 행사로 육성시켜 한국의 건축문화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한다.

□ 현황 및 문제점

지역별로 건축문화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나 중심성 없이 산발적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이렇다 할 건축 축제는 없는 상황이다.

□ 주요사례

〈표 3-41〉 베니스 건축비엔날레 개요

베니스 건축비엔날레	
· 시기	1980년 1회 건축전이 개최된 이후 2000년부터 매 짝수 년 마다 시행
· 장소	이탈리아 베네치아 카스텔로 공원(Giardini di Castello) : 국가관 전시 아르세날레(Arsenale, 구 해군기지) : 주제전
· 참여국	평균 60여 개국 200명의 전문가가 참여
· 구성	디렉터가 정한 주제에 의해 '주제전', '국가관전시', '특별전시' 로 구성
· 전시성격	5회까지 건축가 중심 혹은 공모작 중심으로 전시가 진행되었으나 6회 건축전 개최된 1996년부터 기획중심으로 변화되었음
· 역할	세계 문화계가 고민하는 패러다임에 대한 화두를 제시하고 방향을 이끌어냄으로서 베니스가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음

□ 세부과제(연구 및 사업)

- 비엔날레 기본계획 수립

: 국내외 사례를 통한 여건 분석 및 비엔날레 개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해외순회전 지속 개최

: 건축센터 주관의 건축, 도시, 조경에 관한 기획 전시 및 상설 전시를 운영하고 해외 순회전을 개최한다.

- 지역 건축축제 활성화 및 국제교류 지원

: 지역 건축문화 축제를 활용하여 국제적 규모의 건축전으로 발전, 육성시킨다.

전시 7) 타 홍보 전략과 연계한 전시 종합 시스템 운영

□ 기본방향

한국 건축의 해외 홍보라는 목표 아래 전시만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아카이빙-연구-출판-강연회 등과 연계된 종합적인 홍보 전략이 요구된다.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전시는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단순 작품의 전시보다는 공연, 퍼포먼스, 워크숍 등이 포함되는 종합적인 예술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시 자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홍보가 진행되면서 전시 이후에 지속성을 가지는 출판물, 전시회 중에 진행되는 주제 강연회 등이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전시 기간 이후에 전시의 주제가 지속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매체들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이 고려되어야 한다.

□ 세부과제(연구 및 사업)

- 건축문화 기반 육성계획 수립·시행
: 건축문화 기반 종합 사업(출판, 전시, 축제, 아카이브)육성 계획을 마련한다.
- 전시관련 교육자료 발간사업
: 건축센터 내 전시에 관련된 교육자료 발간 사업을 통해 전시의 해외홍보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건축수상제도와의 연계
: 다양한 건축 수상제도들과 연계하여 이를 전시 아이템으로 활용하고, 그에 대한 작품집을 수준 높게 만드는 사업을 시행한다.

전시 8) 한국적 전시 주제 및 특성있는 전시 아이템의 발굴 지원 사업

□ 기본방향

해외 진출 시 한국 건축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전시 주제의 다변화, 특성화를 통한 차별화 전략을 구축한다.

□ 현황 및 문제점

비엔날레와 같은 대규모 건축박람회 뿐만 아니라 단체주제전의 형태로 해외에 진출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한국 건축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해외 건축 전시의 경우 작가의 성향에 기댄 개인전 중심의 사례가 빈번했으나 작품의 주제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계적인 경향과 해외에서의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하면서도 한국적인 전시 주제의 확보 방안이 요구된다.

□ 세부과제(연구 및 사업)

- 건축도시연구소의 작가론, 한국 건축담론서 시리즈 출간 사업
: 건축 작가들에 대한 작가론 작업을 통해 이론적 담론을 형성한다.
- 건축도시박물관 및 아카이브센터 자료의 홍보활동 강화
: 건축도시박물관의 아카이빙 자료와 건축도시연구소의 연구 자료를 콘텐츠 자료로써 정기적으로 공지한다.
- 공모전을 통한 아이디어 활용 방안 공모
: 한국적인 건축문화에 관한 공모전과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 9) 건축 전시를 위한 기금 지원 사업

□ 기본방향

다양한 건축 관련 전시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 현황 및 문제점

건축가 스스로가 부담하기에는 전시 금액이 과중하며, 건축 전시를 전담하고 있는 지원 기관이나 관련 기구가 부재하여 해외 진출 시 마땅한 전시기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전시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전시 시장의 활성화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 기관의 지원 이외에도 친환경적인 이슈 등으로 세계적인 관점에서 브랜드 마케팅이 필요한 대기업과의 후원 같은 연계도 필요하다.

□ 주요사례

〈표 3-42〉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개요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기초예술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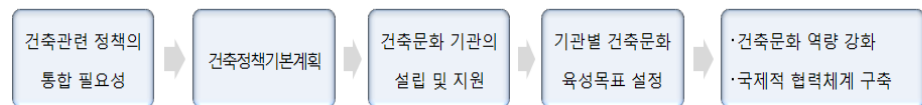
□ 세부과제(연구 및 사업)

- **기업의 건축문화 사업 참여 확대 방안 마련**
: 기업의 건축문화 전시 연계 사업을 실시하고 후원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건축 전시에 대한 확대 지원방안 모색**
: 문예진흥기금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금공모사업에 건축문화 분야를 활발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가칭)건축진흥재단과 연계방안 마련**
: (가칭)건축진흥재단을 통해 건축 전시와 연계된 강연회, 전문가 육성에서 장기적으로 전시장의 확보에까지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5 건축문화 해외 홍보를 위한 정책 방향에 따른 건축전문기관 설립에 관한 제언

1) 해외 홍보를 위한 정책적 방향 설정

해외 사례의 시사점에서와 같이 건축문화 해외 홍보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축기본정책에 기반한 건축문화 관련 전문 공공기관(자료수집 및 구축, 연구, 실행 기구)들을 설립하고 이들이 해외 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기본적으로 건축문화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장기적인 육성책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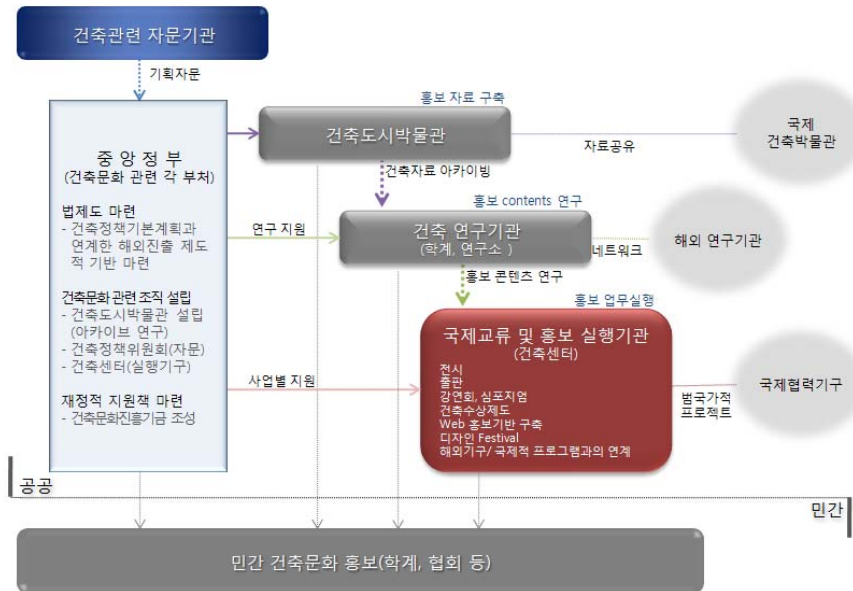


〈그림 3-10〉 건축문화 해외 홍보를 위한 정책적 방향

2) 건축문화 관련 전문 기관과 국제 교류 협력 시스템

각 정부 부처의 건축문화 관련 기획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통합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건축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수준높은 건축문화 형성을 위한 기반구축에 해당하는 법적 지원 방안과 관련 기관의 설립, 진흥재단 및 기금의 설치를 지원한다. 이를 위한 해외 홍보 및 국제 교류와 관련된 단계별 전략을 다음과 같이 1. 홍보 자료의 수집 및 구축, 2. 홍보 콘텐츠 연구, 3. 홍보업무 실행의 3단계로 구분하고 각각 건축문화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건축도시박물관, 건축도시연구소, 건축센터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진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또한 건축문화와 관련된 공공기관은 자국 내 건축문화 육성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인 건축문화 프로젝트나 국제적 기구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해외 교류 시 필요한 다양한 진출 창구를 마련한다. 한편, 민간차원에서 건축문화를 홍보하거나 국제적인 교류를 할 때는 중앙부처를 통해 제도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자문을 해주며 국가 간에 구축된 국제 협력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국의 건축문화가 해외에 대중화·일반화 될 수 있는 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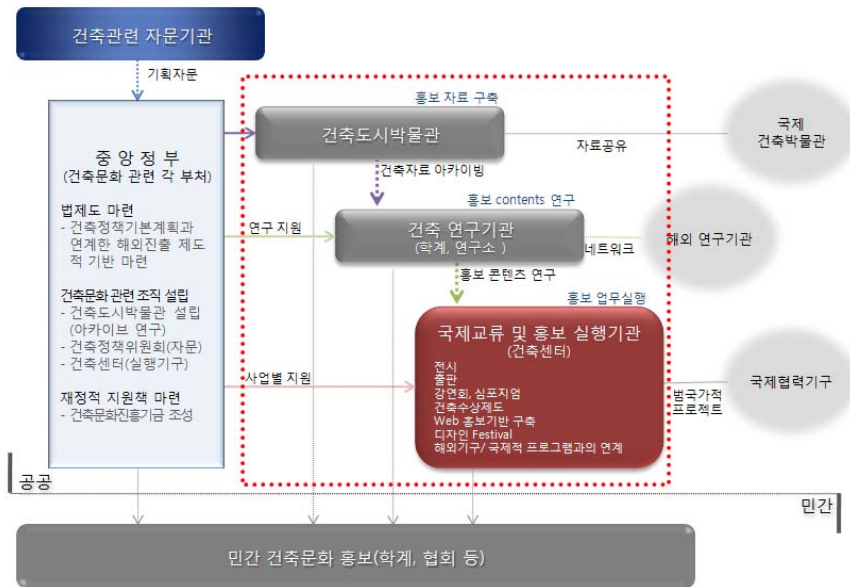
3) 국내 건축문화 관련 국가주도형 전문 기관의 설립 대안



〈그림 3-11〉 건축문화 홍보를 위한 관련 국가기관

건축문화 관련 국가 기관들의 설립에 있어 현재 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존재하고 향후 행정복합도시에 ‘도시건축박물관’의 설립이 확정된 상황에서, 네덜란드 NAI의 경우와 같이 건축센터로서의 기능을 보강하여 통합기관을 설립하는 대안1과, 기존의 시설과는 별개로 홍보 실행기관으로서의 독립적인 건축센터가 신설되어 운영되는 대안2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대안1은 통합된 기능을 하는 거대 조직으로서 강력한 조직력과 예산의 집중도가 높아 해외 홍보 프로그램의 운영과 실행력이 뛰어나며, 시너지 효과 극대화로 건축 관련 자료의 수집·보관, 출판·전시 등 일관된 홍보 프로그램이 가능함에 비해 큰 조직으로서 다양한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조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12〉 건축문화 홍보를 위한 관련 국가기관 1안 - 홍보 실행기관의 통합
※ 사례 - 네덜란드 NAi

대안2는 홍보만을 전담하는 실행기관으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자율적으로 현대의 빠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한 조직이며 다른 기관이나 협회 등과의 공조시스템의 역량에 따라 전체적인 능력이 차별화될 수 있다.



〈그림 3-13〉 건축문화 홍보를 위한 관련 국가기관 2안 - 홍보 실행기관의 이원화
※ 사례 - 스코틀랜드 The Lighthouse

IV.

결론

1. 연구의 성과 및 한계

(a u r i

결론

1 연구의 성과 및 한계

본 연구는, 건축 분야가 건설의 시대에서 건축문화의 시대 그리고 더 나아가 글로벌화시대로 확산된 현 상황에서 건축문화의 해외홍보 필요성이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외홍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문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그와 함께 국내 건축문화의 내적 역량 강화와 해외홍보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정 속에서 건축기본법 제정에 따른 새로운 전환기를 맞은 지금, 건축정책 기본계획에 필요한 건축문화 해외홍보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해외홍보 주요 분야별 추진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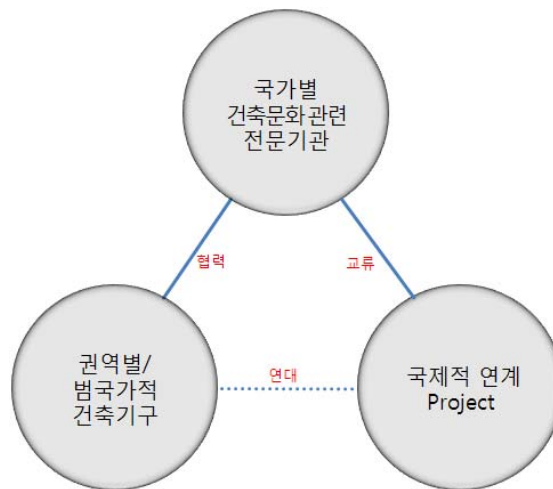
이를 위해 지금까지 국내의 문화 또는 건축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기관 및 단체 그리고 민간기관의 업무 내용과 및 역할분석을 통해 건축문화 해외홍보의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현재로선 건축 또는 건축문화의 해외홍보를 위한 국내기반이 매우 미약하고 체계적이지 못하지만, 건축기본법 제정으로 인해 국내 건축문화의 해외홍보를 주도할 주체로서 국토해양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다른 부처와의 관계 또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해외 선진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건축정책에 기반한 국가주도형 기구·기관 중심의 해외홍보, 그리고 국가 간 연계를 통한 해외홍보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아카이브와 전시관 및 도서관의 복합적

인 운영에 대해, 일반대중과 건축전공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효율적인 조합을 이루며 수집-보관, 전시, 연구-출판의 주요기능과 연계된 건축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네덜란드 NAI의 사례를 분석하여 건축 관련 자료수집, 연구, 홍보 실행 기능이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됨으로써 효율적인 홍보 업무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국가주도형 해외홍보는 기본적으로 국가 건축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행력을 가진 관련 기관을 설립하여 건축 관련 정보와 홍보 업무를 전문화·집중화함으로써 범국가적인 프로젝트와 연계하거나, 민간의 해외 진출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 국가 주도형 해외 홍보 모델

국내 현황의 문제점과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토대로 한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서는 첫째, 건축문화 전문 기관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해외 홍보 및 국제 교류 시 필요한 전문성과 차별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공공주체들이 상호 연계되어 종합적인 홍보 지원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국제교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둘째, 민간이나 공공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획에서 국제 교류에 이르기까지 진행 단계별 수행 전략과 실행 방안을 설정하여 해외 교류의 효율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홍보 진행 프로세스 전략을 수립하는 것, 마지막으로 국가적으로 진흥 및 육성할 수 있는 건축문화 교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이들 프로그램들을 긴밀하게 연계하여, 해외홍보가 단편적이고 일시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진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건축문화 지원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것 등을 제시한다.

또한 분야별로 구체적인 홍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현 상황에서 우선적인 육성을 통해 전략적·효율적으로 추진 가능한 홍보 유형을 탐색하고, 아직은 그 역량이 취약하나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육성할 경우 국제 교류에 있어 성장 속도나 기대 효과 면에서 상대적으로 과급력이 큰 홍보 분야를 분석한 결과로 ‘출판’ 과 ‘전시’ 를 선정하여 우선추진과제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현황 조사와 실천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로는 출판과 전시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하여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을 제시한데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로 출판과 전시에 대한 건축정책의 중점추진과제와 실천 과제를 우선 추진과제 및 중장기 추진과제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출판 분야의 아젠다

〈표 4-1〉 출판 분야 아젠다

추진 전략	추진 과제	단기	장기
시스템 구축	1. 건축 이론·역사 분야의 포스트닥터 과정 운영	○	
	건축정책위원회가 중심으로 되어 매년 3명 규모의 학생을 선발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해외 주요국가의 언어로 번역 배포		
	2. 건축 출판 분야의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통계 DB구축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문화산업 백서에서 관련 분야의 통계 산출, 국토해양부 내 건축문화팀이 주관하는 통계 자료를 수집 활용		
	정책적 제안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기초 통계 DB를 구축		
	3. (가칭)건축센터 내 출판 관련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
	매년 주요 지역에 대한 시장 및 여건 분석		
	출판 시장 정보 및 컨설팅 지원 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개설을 통한 웹서비스 개시		
	4. 건축문화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사업(번역가, 비평가)		○
	건축 전문 번역 인력 육성 기본 계획 수립		
	매년 2-3개 도서를 선정하여 해외에 홍보		
	신진 번역가비평가 발굴 사업 시행		
	5. 지속적인 출판 콘텐츠 발굴을 위한 (가칭)건축문화 아카이브 설립운영		○
	자료 수집기능으로서의 아카이브 구축 : 관련 분야의 사업		
	아카이브 자료 해석을 위한 연구사업 공모		

프로 세스 개선	6. 출판 기획 및 비평 공모를 통한 신규 사업 발굴 및 지원	o	
	국내 건축 출판 기획서 공모 개최를 통한 서적 출판		
	한국건축에 대한 해외건축 연구자 지원 사업		
	신진건축가에 대한 작품집 브로셔 제작 배포		
	건축문화 관련 기관에서 계간지 발간		
프로 그램 개발	7. 건축전문도서 전시회(bookfair) 개최	o	
	출판 기획서 공모를 통한 지원		
	건축 비평 공모전 실시를 통한 신진비평가 발굴		
	우수 건축도서 발굴 및 시상 제도 실시		
	우수 건축도서 선정 주요 도서관 및 기관 배포 지원		

□ 전시 분야의 아젠다

〈표 4-2〉 전시 분야 아젠다

추진 전략	추진 과제	단 기	장 기
시스템 구축	1. 건축 전시 기획 전문 인력 양성	o	
	국내 건축학과내 건축 전시 기획 전문가 과정 개설 등을 통한 인력 양성		
	(가칭)건축센터 내 큐레이터 전문 보수 교육 과정 신설		
	건축 전시 전문가 해외연수 프로그램 지원		
	대규모 해외 건축 전시의 협업 (큐레이터 파견 및 유명 큐레이터 초빙)		
	건축 전시 전문 도슨트 교육 실시		
	2. 건축센터 내 전시지원 부서를 통한 건축 전시관련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o	
	종합 정보 홈페이지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전담부서 신설		
	해외 주재 국가기관(대사관, 문화원)을 통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 제공		
	국제적 건축센터와의 긴밀한 관계유지를 통해 국제 교류 시 다양한 지원		
	3. 건축 전시 분야의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통계 DB구축	o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분야 통계 산출, 국토해양부 내 건축문화팀이 주관하여 통계자료 수집 활용		
	정책적 제안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기초통계 DB를 구축		
프로 세스 개선	4. 건축 전시 진행 자문 및 지원 서비스	o	
	전시 규모와 유형에 따른 프로세스 및 기획 절차 간소화, 유형화 (해외		

프로 그램 개발	전시 지침서 작성 및 배포)		
	건축 전시 전문가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인력망 구축 및 정보 공유 지원		
	5. 해외 유명 전시장(또는 전시)과 연계한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국내 국공립 미술관과 해외 주요 건축 전시장의 협정 체결		
	해외 상설 건축 전시장 확보 및 각 국 공관을 활용한 전시 기획		
	국내 건축대학 졸업 전시회를 해외 건축대학과 교환 전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해외전시 진행시 대사관 및 문화원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함		
	전시아이템의 순회 전시로서의 지속적인 유지 방안 마련		
	6. 대규모 국제 건축전 및 건축 비엔날레 개최		
	국내외 사례를 통한 여건분석 및 비엔날레 개최 기본계획 수립		
	건축센터 주관의 건축, 도시, 조경에 관한 기획 전시 및 상설 전시 운영과 해외 순회전 개최		
	지역 건축문화 축제를 활용하여 국제적 규모의 건축전으로 육성		
	7. 타 홍보 전략과 연계한 전시 종합 시스템 운영		
	건축문화 기반 종합 사업-출판, 전시, 축제, 아카이브-육성 계획 마련		
	건축센터 내 전시 관련된 교육 자료 발간 사업을 통해 전시의 해외홍보 효과 지속적으로 유지		
	다양한 건축 수상제도들과 연계하여 이를 전시 아이템으로 활용		
	8. 한국적 전시 주제 및 특성 있는 전시 아이템의 발굴 지원 사업		
	건축도시연구소의 작가론, 한국 건축 담론서 시리즈 출간 사업		
	건축도시박물관의 아카이빙 자료와 건축도시연구소의 연구 자료를 콘텐츠 자료로 정기적으로 공지		
	공모전을 통한 아이디어 활용 방안 마련		
	9. 건축 전시를 위한 기금 지원 사업		
	기업의 건축문화 전시 연계 사업 실시 및 후원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건축 전시에 대한 확대 지원 방안 모색		
	장기적으로 (가칭)건축진흥재단을 통해 전시와 연계된 전문가 육성		

본 연구는 또한 건축문화 해외 홍보를 위한 정책 방향의 한 일환으로서 건축 문화 전문기관 설립에 관한 제언을 하였는데, 해외홍보의 측면에서 바라본 전문 기관의 조직구성에 대한 대안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 건축문화의 해외 홍보 방안 중, 전시 및 출판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책의 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데 국한되며, 다

른 홍보 매체인 영상과 웹을 기반으로 하는 홍보나 기타 국제 세미나, 포럼 등에 대해서는 향후 후속과제를 통해 심도깊게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실제로 연구 추진 과정에서 많은 한계가 있었는데, 구체적 해외홍보 방안 연구를 위한 국내 출판과 전시 현황 통계자료 및 DB구축의 부재, 국내의 정부·민간기관과 출판 전시 관련 업체들의 예산 현황 및 해외 전략에 관한 객관적 자료 부족, 그리고 해외기관의 예산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습득의 한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 경험되었던 많은 어려움들은 본 연구의 내용에서 현황 및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외홍보 실천 과제의 일부를 연구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보다 실천적인 과제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참고문헌

· summary

· 부록

1. 각 분야 전문가 면담
2.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소개 책자 - 한국의 책
3. 건축 도서 분야별 현황 조사
4. 건축 전시 현황 조사(최근 5년간)

(a u r i

참고문헌

- 김효정, 2008, 「건축문화 중·장기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남소영, 2006.8, “건축전시, 50+1년” , 월간 건축인 포아
-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2007, 2007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백서
- 문대하 외 1인, “현대 건축 전시회의 기획중심 전시디자인에 관한 연구” ,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25권 제1호
- 백원근, 2007, 한국도서 해외진출전략 자료집 - ‘도서저작권 수출의 현황과 발전 방향’
- 문화관광부, 2007, 「2007 ARCO 주빈국 행사 평가보고서」
- 문화관광부, 2007, 「국제교류 업무 매뉴얼」
- 문화관광부, 2007, 「국제문화교류진흥을 위한 제도수립 방안 연구」
- 이상직, 2001.12, “전시산업 현황 및 무역전시회 육성 방안” , 월간 KIEN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 조임식, 2007.6, “건축의 미래를 위한 정책적 대안 : 건축은 모든 이들과 관련된 일이다, 네덜란드의 건축정책의 시사점” , 건축과 사회 통권 제8호
- 한국건축가협회, 2007, 「국가 건축문화정책의 방향 제시 및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부
- TTA, 2006, 「출판지식산업 육성방안」, 문화관광부

Arts Council of Finland/ Ministry of Education, 1998, The Finnish Architecture Policy, The Government's architectural policy programme 17 December 1988,

Minister for Tourism, Culture and Sport etc., 2006, 'Building our Legacy'-statement on scotland's architecture policy 2007,

Scottish executive, A policy on architecture for scotland

Promoting plans and proposing policies for public relations of Korean architecture

Cho, Jun Bae
Um, Woon Jin
Lim, Hyun Sung

This study After 21st century, the world is now having "Glocalization" age in which globalization and localisation is progressing at the same time over the global village. Demand of international exchange between countries and local governments is increasing and it is getting very competitive to enter overseas markets, so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has become very important. So as a survival strategy in this globalized and information-oriented age, global marketing has become very necessary more than in the past. Global marketing means connecting global networks between both countries and local governments so that they exchange and cooperate.

Therefore architectural culture policy lead by government is now establishing, not like in the past when the policy was considered more for construction itself, as a positive correspondent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in Korea. Developed countries like Netherlands, Finland and Scotland have already established this architecture policy to assure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architectural culture and the living environment. In Korea, the Architecture Foundation law established by proposal of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in 2007 is now developing political support and increasing interest in architectural culture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s welfare though promotion of architectural culture.

However, we do not have any architectural culture policies or projects regarding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ve projects in any government ministries. Even though the base of global marketing has been prepared by the establishment of architecture foundation law, there is no specific organisation or system. Therefore this report has the purpose of suggesting direction of policies from a systemic survey on current status and case study analysing architecture culture policies and to be aware of demand on arranging specific practical plans and policies for global marketing of architectural culture. So we analyse government ministries, organisations and associations which are related to international exchange on internal culture to find the current situation of global marketing on architectural culture and have studied the case of global marketing jointly with overseas developed countries and policies. We made the form of policies by searching problems and issue topics from analysing case studies and doing individual mapping. Also it suggests a plan for an international marketing project by selecting key divisions of architecture culture marketing and analysing its status and case. Research details are as below.

1. Analysing diplomatic policies current status and trends for international exchange of architecture culture.

We try to understand the problems from analysing political features and major work

status of Government ministrie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inistry of Economic Knowledg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which are in charge of the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field. Also we analyse major works and specialities to check the current global marketing situation and potential in 'Korean Foundation' regarding international exchange, 'Arts Council Korea' regarding cultural exchange support, 'Korean culture & Content Agency' regarding cultural contents development. As private organisations we worked with 'Korean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to understand its purpose and the major work that related to international exchange.

2. Case study on global marketing in overseas architectural culture

We have done global marketing case studies of the countries which have already established architectural policies (Netherlands, Scotland and Finland) to find marketing strategies and research the role of relative organisations. Also, we analysed international exchange work and its role which related to international joint project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tatus through international organisations.

3. Direction of the policies for global marketing

Through research, we analyse the strategy of diplomatic global marketing. Also set basic direction of policies by showing individual global marketing mapping.

4. Standard direction and plan of major work for global marketing

To suggest specific policies and work direction of global marketing at present, searching for possible effective marketing types from a primary source. Also select 'Publication' and 'Exhibition' as primary processing work which is expected to be a very effective marketing type with intensive support and seek a mapping and specific current situation.

Therefore standard directions of architecture and culture global marketing policies according to above research are suggested, firstly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professional organisation of architectural–culture to get distinction and professionalism which is needed in international exchange and global marketing. Also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exchange portal system which these organisations are mutually connected to, so it could perform total marketing support. Secondly to set up a step–by–step manual and effective practical programme from planning to international exchange, either private or public to be able to go overseas and establish a marketing process strategy to encourage international exchange. Lastly to develop an architectural culture exchange programme this could grow nationally and connect these programmes so that

overseas marketing does not just come to an end. It could lead to the entering of architectural culture industries in overseas by developing national architectural–culture support programme.

Basic direction of global marketing by ‘Publication’ is suggested to support overseas publication of organisations, building a distribution route and preparing a support system through establishing related centres and promoting manpower growth in related areas to maintain promoting industries and publication of contents continually. Also it mentioned that a publication plan should be arranged with different fields such as exhibition, archiving and study, as a portal planning process to reinforce its organisational ability and should be able to provide total information such as book themes, selecting critics and contact with the publication.

The basic direction of global marketing by ‘Exhibition’ is suggested to plan an architecture exhibition and increase expertise based on professional organisation by setting goals clearly on basic architecture policy planning to establish a systemic overseas exhibition system. Especially, it suggests preparing a total planning process for the architecture exhibition, so that it can provide related information (exhibition theme, finding of architects and contacting the curator, a guarantee of budget, former marketing and publication of the exhibition) on each procedure. As well as publication

it proposes total planning that connects with various marketing strategies under the goal of global marketing.

Accomplishment of this report is suggested through basic direction and promotion strategy based on publication and exhibition. Also it divides the primary promotion plan and middle–long–term promotion plan as a result. On the other hand as a direction of policy for overseas marketing, it proposes to establish the professional organisation to look at alternative plans as well, from the view of global marketing.

This report has focused on finding status and problems on publication and exhibition from various global marketing forms in domestic architectural culture. Strategy of other marketing forms will be covered by following subjects in the future, such as media, web based promotion, international seminar and forums. Henceforth we will possibly promote an actualised programme as a project of the institute and try to understan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through the practical programme which has been suggested in this report.

**keyword : architectural culture. public relations. architectural publication.
architectural exhibition**

부록 1.

각 분야 전문가 면담

- 자문위원 : 이재준 소장
- 장 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일 시 : 2008.09.03

□ 최근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전시 기획 일들

- 현재 입주하고 있는 연희동에 사무소와 건축·도시 분야 전문 갤러리 오픈을 김광수(이화여대)교수와 준비하고 있음
- 9월에 대형전시 3개(베니스비엔날레, 다음 커뮤니티전시, 디자인 올림픽 대회 참가-도시갤러리 컨테이너)가 예정되어 있고, N.GENE행사(서울건축학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표가 예정(9.25.목)되어 있어서 9월은 매우 바쁜 상황임

□ 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사항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

- 한국적 도시 공간 구현을 위한 도시설계 패러다임 연구와 건축문화 해외홍보방안 연구에 대한 소개
- 한국적이라는 것에 대한 고민과 해외에 우리의 무엇을 알릴 것인가는 유사한 논의를 가지고 있음
- 거칠게 이야기하면 가장 세계적인 보편성을 가진 한국적 요소를 발굴하여 소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초기 단계에는 개별 건축가보다는 역시 건축문화를 종합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할 것임. 그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더욱 더 그러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기존의 건축 관련 비엔날레 행사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한국건축 소개와 어떤 차별성을 둘 것인가는 고민해야할 부분임
- 전시는 짧게는 일주일 길어도 한 달이 지나면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그것의 파급효과라고 하는 것은 평론가들이나 언론을 통해 해석되어진 정보의 전달에 불과함
- 서적 출판 작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담론이 재생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 비엔날레 전시 준비 현황

-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는 ‘Beyond architecture’로 한국에서는 파주 출판도시를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함

- 현재 포스터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내주에 작품 발송이 이루어질 예정임
- 세계 각 국에서는 한국의 문예진흥원과 같은 기관의 담당자들이 지속적인 비엔날레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행착오보다는 내적인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임

□ S(e)OUL Scape관련 전시 관련

- 해외홍보를 대행하였던 image사는 일종의 에이전시로서 건축도시분야를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출판, 전시기획, 아카이브의 일들을 진행
- 국제전시를 위한 별도의 인력이나 컨택 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기획만 이루어지고 세부 실행적 일들은 해외기관 및 조직과의 네트워크로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
- 국내에는 image사와 같은 전문적인 조직 보다는 이벤트 및 행사 기획사 등을 통하여 전시가 진행되고 있음

□ 한국 건축비평계의 현황

- 1세대의 공간 이주연을 시작으로 이후 세대로 전진삼과 이종건으로 대변되는 비평계의 논의는 최근 김정후⁸⁷⁾(런던정경대 사회학 박사과정), Anu(건축웹사이트 아키누드 운영)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됨

□ 공간에 대한 태도

- 기본적인 태도에 대한 문제로 건축과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인간을 위한 공간 만들기라고 생각됨
- 공간환경디자인, 공공디자인 등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디자이너는 개념이 정해지면 그 다음은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건축과 경쟁할 수 없다고 생각됨

87) 유럽건축 뒤집어 보기, 작가정신이 빛나는 건축을 만나다의 서적을 출간하였고, 최근 국토지에 원고를 연재하고 있음

- 자문위원 : 신승수 소장
- 장 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일 시 : 2008.09.03

□ 해외지원 사업의 현황에 대한 것

- 지원과 홍보는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지원’은 회사가 외국에 진출하였을 때 실제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홍보’는 단순히 해외에 소개하면 되는 것으로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문을 진행

□ 건축가 해외 지원방안 사례

- Nedeco : 비영리 독립 재단(independent non-profit foundation)으로 워터프론트 개발 등에 대한 컨설턴트들이 모여 있는 그룹으로 한국에 특색화 되어있는 토지공사 등의 네덜란드의 특색화하여 해외개척의 지원그룹
- Mipim : 부동산 관련 엑스포로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을 개발업자, 건축업자가 참여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상업적 측면은 mapic이라는 조직이 진행 중 임
- 해외마켓 개척을 위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언급되는 것은 현지의 건축 관련 협회 등에 접촉하여 사전에 협조를 구하는 식의 창구를 개척하는 것이 지속적인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됨

□ 대사관에서의 건축에 대한 홍보를 기대

- 네덜란드의 경우, 자국의 건축 문화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대사관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협조를 받을 수 있으므로, 건축을 문화로 인식하여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해외의 주요건축가 그룹

- “wonderland” : 유럽 출신의 건축가들이 11개 국가들을 돌아다니면서 건축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난 후, 출판물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최근, 건축가가 부딪히는 문제들을 이슈로 현재까지 3권의 책을 발간하였음
(<http://www.wonderland.cx/concept.html>)

〈부록표 1-1〉 wonderland발간서적 현황

	주요내용
1권 : "getting start"	건축을 시작할 때 생기는 소재들
2권 : "making mistake"	건축을 하면서 저지르는 실수들에 대한 것
3권 : "going public"	건축가가 유명해 지려는 방식에 대한 고민 - 왜 PR을 하지 못하는가 등에 대한 질문으로 시간과 돈의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음 *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듯함

- 글을 쓰는 사람들이 유명인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주요한 컨텍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건축가는 스스로 홍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이 홍보, 기획이 필요함

- 건축분야에 있어서 큐레이터, 중재자의 역할이 필요
- 건축가들 스스로 홍보자료를 만들 시간이나 여건이 부족하여 그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사람도 필요하지만, 전시코디네이터나 콘텐츠를 기획하는 사람들로 비평가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홍보 대상은 아시아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함

- 동경, 홍콩 등을 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함
- 미디어를 관장하고 분배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의 리스트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NAI에서 “POWER“라는 주제로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가 기획하였던 것은 세계적인 큐레이터, 시장 등이 건축을 움직이는 사람으로서 그들에 대한 지형을 그리는 것으로 지속성을 확보하는 기획 강연이었음

□ 형식적 측면에서는 대기업의 후원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글로벌한 관점에서 판단을 경험하고, 세계적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친환경적인 것 등의 글로벌 이슈를 주제로 세계적 무대에 진출하는 것이 좋을 듯함
- 단순히 한국 건축만으로 진출하기에는 제한이 있음

□ 연구소의 초기의도에 대한 설명과 방향

- 연구소에서 추진하고자 하였던 것은 진출의 측면보다는 동일한 상황의 문제에 대하여 한국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던 것을 ‘한국적인’ 것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애초의 목표였음

- 기반작업(인프라 구축), 홍보작업, 지원체계를 제도를 마련하여 건축가를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3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하고자 함

□ 제도와 관련하여 네덜란드 건축정책에서 NAI 이 외 조직 등의 사례가 있는지?

- 제도나 조직은 지원조직일 뿐이고, NAI가 아카이브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게 된 것은 NAI Prize를 통해서 신진건축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네덜란드를 바탕으로 한 작업(work)으로 진행하고 있음
- 해외에 홍보한다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라 생각되고, 일방적인 진출에는 제한이 있을 것이라 생각됨
- 다른 시각에서 한국적인 중요한 요소를 찾는다면 외국의 큐레이터가 기획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듯함
- NAI Prize를 통해서 진행한 것은 수상한 작가들을 계속 관리하면서 홍보를 진행함과 동시에 아카이빙 자료에 드는 비용의 문제를 절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초기에 이론가로서 ‘올레이 부만’이나 미국의 큐레이터 ‘엘렌 크리치’를 초청하여 외국 시장을 개척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음

□ 연구소에는 NAI의 역할이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외경쟁력강화 분야에서 제안하려고 함

-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는 지표를 설정하고 계량화하여 목표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진행하여야 하여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에너지 등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제한적일 것이고 전시회 횟수나 큐레이터 수 증가 등이 가능하리라 생각됨
- 단체와 조직 간의 교류 협정 체결 등의 실례로는 건축가 카운슬러 그룹 (Architects council of europe)으로서, UIA와 비슷하게 유럽분야의 카운슬러 그룹은 협정이 체결

□ 일본건축이 네덜란드의 토탈스케이프라는 전시를 진행

- 전시를 준비하면서 인력을 파견하여 큐레이터로 양성하는 방식을 진행

□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는 지원시설이 필요하고 디자인 풀을 양성하는 것으로 전시, 홍보, 아카이빙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함

- 지원과 동시에 자생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음
- 지원시설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학회나 조직에서도 진행하기는 하였지만, 의욕적으로 일을 진행하기에는 제한이 있음

□ 중요한 것은 주고받는 방식일 것이라 생각됨

- 김영준이 대표적이라 생각되는데 해외의 건축가가 작품을 하나 한다면 우리도 하나 작품이 나가는 방식을 진행
- 국내 건축가를 홍보하기 위해서 솔직하게는 해외건축가를 초청하고 자국건축가를 조인하면 육성이 가능하리라 생각됨
- 작은 프로젝트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동연구 등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 기타의견

- 국제학교 설립 등을 통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를 극대화함으로서 동아시아 권역에 어필할 필요가 있음
- 공모 등을 통하여 프로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줄 필요도 있음

- 자문위원 : 김영덕 대표
- 장 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일 시 : 2008.09.03

□ 프랑크푸르트 북전시(Bookfair)에 대하여

- 국가관이 있고, 별도의 개인 출판사 부스가 존재함. 기존에는 국가관에서 부스를 얻어서 진행하였으나 현재는 자체 역량이 되어서 개별 부스를 신청하여 진행하고 있고 국가관 같은 경우에는 출판협회를 통하여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음
- 매년 10월 두 번째 주에 진행됨(10.14~10.19)
- 이때는 축제기간으로 각국의 출판사들이 참여하여 출판 경향 및 소식들을 공유하는 장소임

□ 도서 판매망(도서 배급 시스템)

- 메가시티 네트워크의 경우, Jovis 출판사에서 발간되었으나 생각에는 두 단계 정도 디자인이 떨어진다고 생각됨. 책을 만든다면 국내에서 만들어서 도매상을 통하여 루트가 있음
- DD(담디출판사)는 해외에서 반응이 매우 좋음. 엘 크로키 다음으로 반응이 좋고 대규모 출판사에 공급되어 있음. 이것은 네덜란드의 책 전문도매상으로 ‘아이디어북’에서 배급이 이루어짐
- 아이디어북홈페이지 : <http://www.ideabooks.nl/>
- 주요서적의 분류 : 예술, 건축, 사진, 패션, 그래픽디자인, 인테리어, 공연예술, 장식예술, 기타

〈부록표 1-2〉 idea book 소개

1976년 'idea book'은 동시대의 건축, 예술, 디자인, 사진, 그리고 영화분야의 전시 카달로그와 책자에 대한 전문적인 공급자(Specialist distributor)로 설립되었다.

우리의 영역은 국제적이다. 우리는 많은 국가로 부터의 출판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 Netherlands, Spain, Japan, the USA, and Australia.- 그들의 책을 공급하기 위하여 개척하고 있다. - Europe, N. America, Japan and Asia, Australasia, and parts of Latin America.

우리의 주요고객은 서점과 박물관의 상점, 인터넷 거래상, 국가 자체의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지역 도매상들이다. 프랑크푸르트와 런던, 미국에서의 국제 서적 전시회에 참석하고 있다.

우리는 암스테르담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우리는 물리적인 분배, 배송이 진행된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에 지점(local stocking)을 가지고 있다..

아이디어 북은 business-to-business 회사이다. 우리는 출판가나 출판사의 문의를 환영한다. 책판매상은 견본을 요청할 수 있고, 도서관과 일반적인 공공은 특별한 책 거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문을 요청할 수 있다.

출처 : idea book 홈페이지 소개

- 기본적으로 해외수출에는 1,500부가 기본인데 그들의 선택에 따라 배급망의 상제한 범위가 정해지게 됨. 아이디어 북과 거래하는 국내 업체는 3개로 C3korea, 공간, DD(담디출판사)임. 이들을 거치지 않고 별도로 유통망을 개척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됨
- --> 담디출판사 홈페이지 : <http://damdi.co.kr/>

〈부록표 1-3〉 담디출판사 출간서적

- 담디출판사 출간서적
- DD시리즈 : 국내외의 신진건축가를 중심으로 다이어그램 및 개념을 위주로 한 작품집 형태로 출간되고 있고 현재까지 28권이 출간되었음
- 국내건축가는 김현, 구승민 등이 다루어졌음

- 공간은 대형 사무소로서 출판자체에 역량을 집중하기에는 제한적이어서 추천을 한다면 C3korea나 DD가 매우 적극적이라 생각됨
- 아마도 진행도 그쪽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진행방식은 대략적인 디자인 안이 나오면 아이디어북에 보내서 배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서 대학도서관에도 납품이 진행됨
- 건축세계 등은 중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C3korea는 중국,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지역에 배급망을 가지고 있음, Jovis는 연감 등을 몇 권만 진행하는 형식으로 건축전문 출판사가 아니어서 자체망으로 배급을 하다 보니까 홍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

□ 아이디어 북 등의 책 도매상 이외에 해외건축분야의 출판사와 연계 방안

- 지명도 있는 출판사는 Tashcen, Phaidon, Actar 등이 있는데 중국시장에는 의뢰를 진행하였고, 인사이드 아시아라는 skira라는 출판사에서 책이 나오기도 하였음. 타센의 경우는 각 국에 특색화하여 진행한바 있음
- 김영섭 선생님이 작업하였던 image(호주출판사)는 책을 몇 부 구매하면 출판을 진행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럽시장보다는 아시아시장에 배급망이 있고 편집을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음
- 좋은 출판사는 편집에 계속해서 개입하려고 할 것임

□ 홍보효과가 좋은 책의 기획방향 (작가론 출판, 건축문화를 소개하는 방식 등)

- 국내 건축가를 소개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유걸, 조민석 등은 공간에서 발간한다면 이슈가 될 수 있을 듯함
- 젊은 건축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4-5명에 집중하거나 외국 잡지에 소개되고 있는 건축가 몇몇을 선정하였으면 함
- 작가집보다는 테마서적이 많이 판매됨
- 작가집을 만드는 것은 과정도 어렵고 판매도 부진함. 엘크로키 같은 경우에도 건축가를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DD는 아주 신진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음
- c3korea에서는 한국을 **테마별, 용도별**로 소개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큰 성과가 없이 해외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초기에 **많은 자본이 투입될 필요**가 있어서 망설이고 있음. 수출은 가능할 수 있지만, 수요에 대한 문제로 이윤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됨
- 출판 분야에서 건축가를 소개하여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표일 것인데 그것을 잘하는 곳이 일본일 것임(GA사례)
- DD에서도 한국건축가를 홍보하고 싶으나 작가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

□ 기타

- 기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되므로 책이 국내에서 제작되면 문화관광부 등에 접촉하여 각 국가의 한국문화원에 배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진행함

- 자문위원 : 이우재 편집장
- 장 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일 시 : 2008.09.10

□ C3korea의 국제 분야 진출 현황

- 한국의 건축가 작품집을 만들어 유럽에 배포하는 게 꿈이어서 그 작업을 위하여 15년 전 부터 사진과 자료를 확보하고 있음
- 유럽이 (건축)책 시장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책을 만들 땐 돈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도록 상업적이어야 함 결국 컨텐츠가 중요하며 책을 갖고 싶도록 만들어야 함
- 책을 찍을 때 수익을 내려면 최소 2000부를 찍어야 단가를 맞출 수 있고 2~3000부를 판매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중 최소 1000부가 국내에서 팔려야 해외로 책을 내보낼 수 있음. 하지만 국내에선 책이 1000부 이상 팔리지 않는 것이 현실
- 승효상 건축가의 작품집 경우 총 2000부를 찍었는데 국내에선 500부 정도만 나갔고 오히려 유럽에서 꾸준히 더 많이 나가고 있음
- 유럽시장에서 ideabook이 최고의 딜러이며 유럽시장의 총 보급망
- 본인 생각으론 새만금 프로젝트나 무주 태권도공원 프로젝트도 이렇게 만들면 잘 팔릴 것 같음

□ 세계 시장에 대해서 유럽, 아시아, 미국 등의 차이점

- 유럽시장을 제외하면 미국이나 아시아 시장 모두 저급 유럽에선 비싸고 고급스럽게 잘 만든 전문서적이 팔리지만 미국만 해도 그런 책들의 수요가 소수에 불과, 특히 아시아시장은 무조건 싸야 잘 팔림. 내용보단 값인데 아시아시장 중 일본은 예외적으로 고급시장이고 현재 c3korea는 일본 내 20여개의 서점에 직접 책을 공급하고 있음. 일본은 현재 진출할 만 한 큰 시장임
- 유럽 중에 이베리아반도(스페인, 포르투갈 쪽)는 굉장히 진출하기 힘든 시장으로 텃세도 심하고 잘 받아주지 않음. 제일 힘든 시장은 남미 쪽으로 IDEABOOK도 남미시장을 어려워함. 책 팔기 매우 힘든 편임
-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으로 통하는 요즘 결국 c3korea의 타겟은 유럽시장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 아시아 시장의 접근성

- 아시아 쪽엔 c3korea책이 고급서적으로 인기 많으나 가격을 낮추는 게 관건, 아시아 시장에선 한국 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고 수요도 꽤 있지만 가격의 갭이 커서 유럽시장용으로 만든 책을 그대로 팔 수 없음. (동시출간 불가) 할 수 없이 하드커버를 페이퍼 북으로 커버만 바꿔서 조금 싼 값에 내놓고 있지만 비싼 제작비를 들이고 낮은 가격에 팔기엔 회사부담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같은 책을 유럽용과 아시아용 두 가지 버전으로 출간할 예정
- 특히 중국시장은 불법이 난무하기 때문에 c3korea에서 책이 발간되면 2주 뒤에 복사판이 헐값에 퍼지는데, 그것을 방지할 방편으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출판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해서 불법 책들의 배포를 막고 있음. 중국시장은 매우 특수하고 관세가 너무 높아서 수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모든 책들을 라이선스로 계약해야 함. (엘크로키 같은 회사도 수출이 아닌 라이선스로 계약할 정도) 중국은 가격만 낮출 수 있으면 좋은 시장임
-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에선 싱가포르와 홍콩이 그나마 좋은 시장이라 볼 수 있으며 현재 c3korea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아시아를 타겟으로 진출할 예정인데 한국건축가의 작품집이 아시아에선 도전해 볼 만함. 하지만 유럽에서는 아직 미흡하고 개인적으로 로컬적인 냄새가 나는 작품집 정도는 유럽에서 통할 것 같다고 생각
- 책을 출판할 때 출판사의 지명도가 중요한데 c3korea가 잡지를 국제적으로 완전 개편한 뒤 회사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동안 유럽의 건축들만 다뤘음. 좋은 콘텐츠로 우선 잡지의 질을 높인 뒤 지명도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한국 건축들을 조금씩 삽입하고 있음. 앞으로 한 달에 한 권씩 작품집을 출판할 예정인데 1년에 12권의 작품집을 낸다면 그 중에 2~3명을 한국 건축가의 작품집으로 내는 것이 목표

□ 국가정책에 대한 제안

- 일본의 책들을 살펴보면 스폰서 시스템이 매우 잘 되어 있어서 국제적인 건축 자재 회사들이 전략적으로 스폰서가 되기 때문에 책을 제작하거나 보급하기가 쉬움. 한국에도 이렇게 큰 회사들이 스폰서가 되어주면 좋을텐데 한국에선 이런 사례가 없다고 보면 됨. (이유는 회사들이 그런 사례를 잘 모르거나 국내에서 책들이 거의 소비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 한국의 시장은 매우 열악해서 1000부를 판매하기가 매우 힘들고 승효상씨 책 같은 경우는 정가로 500부를 팔기로 미리 수요확보를 했기 때문에 출판할 수 있었음. 결국 국내시장 수요확보가 안되므로 해외에도 나갈 수 없는 것이 현실

□ 작가집의 제작비 단가

- (우리북 김영덕) 이미 출판된 8개 시리즈 책(c3topic)을 1200부 만드는데 2억 정도 들었던 듯. 계산해보면 책 1권 1200부 만드는데 2천500만 원정도 소요되는 것 같고 한국건축가 10명~12명 작품집 만든다면 2~3억이면 충분함

□ 해외출판 가능한 한국 건축 작품집의 주제

- ‘YOUNG ARCHITECTS OF KOREA’ 라면 충분히 될 것이고 해외에서 실무하고 있는 건축가들 모아서 내도 좋을 것 같음. 본인은 콘텐츠가 매우 많지만 여건이 안돼서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콘텐츠 선정에 있어 너무 ‘한국’에 집착하면 콘텐츠도 미흡하고 해외 시장에서 관심 있어 하지도 않음. 오히려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건축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서 한국 건축을 알리는 게 더 효과적일 것

□ 아카이브에 관한 자료 요청 시 제공 의사

- 건축문화에서 어떤 식으로 허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진과 같은 저작권과 관련해서도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므로 불가능함

□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 사진의 저작권 처리방법

- 민감한 문제인데 사진이 매우 비싸고 저작권 문제가 복잡함. 책을 낼 때 사진을 사는 것이 아니고 사진의 1번 사용권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이나 개정판을 낼 때는 각 사진마다 저작권료를 다시 내야하고 또한 작가마다 저작권 처리가 조금씩 다름 (c3korea에서 계약한 작가는 3~4명 정도)
- 문제는 사진이 아니고 필자가 없다는 것. 한국의 가장 큰 문제이며 해외나 국내 건축들을 한국적인 시각으로 해석하고 풀어 줄 비평가가 아직 한국엔 없음
- 일본의 경우 무라마쓰라는 세계적인 비평가가 있는데 일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오래전부터 키운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게 비평가를 키우면 세계적 무대에서 자국 중심으로 건축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적 입지에서 매우 유리하므로 아시아 건축에 대해 건축식민지화를 꿈꾸고 있는 일본정부의 의도가 보임. 일본은 10~20년 전부터 비평가를 키워왔는데 한국도 한국적인 마인드로 건축을 비평해주고 해석해 줄 수 있는 필자를 육성해야 함

□ 유럽의 출판 현황에서 가능한 한국 건축의 콘텐츠

- 굵직한 프로젝트 유럽시장에 통할만한 것으로는 동대문, 새만금, 한강, 태권도 공원 등이 있고 작품집으로는 젊은 신진건축가들이 승산 있지만 현재 한국의 상황으로는 한국에서 좋은 기사를 써도 그것을 영어로 번역해 줄 만한 마땅한 번역가가 없다는 게 문제임. 게다가 필자도 없지만 번역가도 없음 건축전문 번역가가 아직 한국에 없음 해외 출판에 대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니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

- 장기적인 전략으로 한국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것이 제일 시급하고 향후 10년 후를 고려하면 지금부터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중요함
- 보통 출판을 할 때 목표량을 설정하는데 단가가 비싸서 1,000부로는 단가가 맞지 않고 최소 2,000부를 찍어야 단가가 맞기 때문에 2,000부만 확보된다면 책을 부담없이 출판할 수 있음 3,000만원 정도면 매우 좋은 편임

□ 인터넷 서점사이트와 실제 출판 현황과의 차이점과 도서 해외 수출 방식

- AMAZON이나 인터넷 서점은 공급 방식 상 오프라인으로 다 팔린 책이나 너무 안팔려서 온라인으로 팔려는 책들이 올라오므로 출판된 지 얼마 안 된 책들은 거의 인터넷으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으로 출판 현황 파악하기는 힘들 듯 함. 회사 측에서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니 요청하면 제공해 줄 수 있음
- 책을 해외로 수출할 때, 분기별로 나가며 현재 해외 진출된 건축 관련 출판사는 c3korea, SPACE, DD 이 세 곳 밖에 없음. 해외로 보낼 때 동시에 선적되므로 수출량을 비교할 수 있는데 대충 선적량은 c3korea > DD > SPACE 순위
- 이베리아 반도로는 배가 가지 않기 때문에 수출하기도 어려움 (ACTAR, Birkhauser언급)

□ 한국이론서의 해외 보급 현황과 가능성

- 해외로 수출된 한국 건축 이론서는 한 권도 없는 것 같음. (임석재씨를 언급했더니)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데 한국은 유럽과 달리 출판망이 너무 중구난방식이고 정리되지 않아서 어디서 뭐가 어떻게 나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므로 그런 소규모 출판사들의 출판현황을 알기 어려운 게 지금 현실

□ 월간 잡지 JA처럼 KA시리즈의 해외 가능성

- 본인 생각으로는 아직 미흡하다고 봄. 한국 건축의 수준이 아직 그 정도는 아닌 듯
- c3korea가 2007년 1월부터 현재의 잡지 형태로 국제화 출판을 시작했고 점점 국제적인 입지를 넓여가면서 한국 건축을 소개하려 하지만 (잡지번호 289권의 190페이지 서울시의 '도시갤러리' 선정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도 안되는 걸 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고 큰 문제라고 생각함
- 글로벌화 될 수 없는 LOCAL ARCHITECTURE가 한국에 아직도 많고 이것이 한국 건축의 커다란 문제점 이라고 생각

- 자문위원 : 채은영 큐레이터
- 장 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일 시 : 2008.10.02

□ 문예진흥위원회에 관련되어 자금이라던지 예산 조성

- 전시의 유형으로는 크게 공공기관 지원의 대규모 전시와 민간의 소규모 전시로 나눌 수 있음.
- 예산편성 : 공공기관 전시는 기획할 때 이미 자체적으로 내부 기준과 조례 등으로 프로세스에 대한 조항들이 정해져있으므로 그 사항에 따라서 전시를 기획해야 함. 추진기관에 따라 조항이 많이 다르므로 예산 편성 등에 대해 접촉점이 다른데 실제로 유관기관이 주도하는 대형 전시일 경우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고 알고 있음.(ex. 베니스비엔날레) 공동주최의 경우 기관 대 기관으로 매칭펀드를 조성하기도 함.
-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예술 사업들에 대해 예산 분배를 하는데 아무리 국제교류라 해도 전시명목으로는 예산이 2000만원 넘기 어려움(최고액 2500만원)
- 억 단위 프로젝트는 지원해주는 관련단체가 있어야 함
- 현재 문예진흥기금을 가지고 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기금을 집행하는데 위원회 조성은 3년마다, 지금 바뀌었지만 건축위원회는 없고 건축분야 전시는 시각예술위원 쪽에서 담당할 듯.
- 위원회아래 소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소위) 안에서 분야를 나누어 기금을 집행하는데 국내예술 창작, 국제교류, 예술정보화, 학술관련 등으로 나뉘어 있음
- 소위에는 시각예술, 문학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새롭고 신선한 활동 & 공공예술)이 있음.
- 시각소위에 분야별로 1명씩 6~7분이 계시는데 소위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은 편당이 쉽고 홍보 진행 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으며. 일반공모 지원으로는 개인, 민간 등의 소규모 사업이 대부분.
- 기금은 위원회 기금과 지역재단(서울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기금에서 지원받아 사용하는데 지역재단은 치적사업의 경향이 많음. 재단에서 기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때 공공기관의 전시는 모양새 있게 구색을 잘 맞춰서 신청해야하는 경향이 있고 각 재단들도 색깔과 방향성이 있으므로 그 방향을 알고 접근해서 신청하면 될 것.

- 매칭펀드의 예) 국제교류전시를 할 경우 각 나라 공관이나 문화원에 지원을 요청함. (일본의 경우 japan foundation 이란 비공식적 국제교류재단에서 비공개적으로 기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음) 보통 문예진흥기금을 중앙기금이라 하고 지역재단의 기금을 지역기금이라 칭하며 전시, 출판, 정보, 신진작가 등의 분야별로 지원됨
- 기금 편성에서는 미술, 디자인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건축의 전시라고 한다면 정통 건축분야 전시와 artistic 건축 전시가 있을텐데 artistic 건축 쪽이 기금 받기 쉬울 듯 하며 개인이 기금을 받기는 어려움

□ 기획전의 지원 절차

- 문화사업을 기획하면 기본적으로 몇 개의 재단에 신청서를 제출함. (국제교류재단, 서울문화재단, 민간재단 등) 전시 뿐 아니라 워크샵이나 각종 프로젝트 사업도 많은데 요즘은 레지던스(어느 장소에서 집단으로 예술가들이 거주하면서 공동으로 작업하거나 문화적으로 교류하는)가 대세.
- 한국에서는 미술창작스튜디오(일종의 레지던스)라고 있는데 다원예술 쪽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online.arco.or.kr)
- 외국에서는 이런 레지던스에서 다원화된 총체적 예술분야의 교류를 지원하고 있음
- 작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레지던스로는 네덜란드 왕립 아카데미가 있고(2년제. 예술활동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 레지던스는 전시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예술적 교류와 소통의 장소로서 인적 네트워크를 생성하는데 더 큰 목적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도 지역별로 레지던스가 생성되고 있는 추세인데(다원예술, 소위원회에서 작게나마 지원, 국제교류재단은 별도) 해외 커넥팅이 미리 갖춰져 있어야 레지던스에 선발되기 쉬움.
- 미술 쪽 레지던스는 꽤 있지만 건축 쪽으로도 레지던스가 있는지는 모름

□ 건축이 소외된 이유

- 우선 건축에서 이 분야로 활동하는 사람이 없고, 특히 예술 쪽과 연관된 artistic 건축가가 한국에선 거의 없는 듯. 요즘 트렌드가 다원예술이기 때문에 공간을 디자인할 만한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artistic 건축가가 없어서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도 진출해서 작업하려고 하며 젊고 예술적인 감각을 지닌 건축가가 필요한 상황.
- 건축 분야 전시를 기획한다면 정통 건축 전시보다는 다원화 예술 쪽으로 결합하여 방향을 잡는 게 나을 것이라고 생각됨. 건축 분야 재단을 만드는 것이 시

급하다고 보며 작년에 디자인문화재단이 생겨서 디자인 분야의 국내 아카데미나 세계 디자이너 초청 세미나 등의 사업을 진행했음. 재단이 생기면 인프라-인력-아카데미(교육)-교류의 구축점이 생기는 것이므로 안정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되므로 (국토해양부나 문화관광부에 요청할 순 없는지...) 재단을 가지고 있어야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음.

□ 요즘 전시의 주요 유형

- 개인전보다는 기획전이 다수인데 개인전을 하려면 작가역량이 세야하고 국제적 기반도 있어야하므로 많지 않음. 기획전은 전적으로 큐레이터가 기획해서 전시를 진행함

□ 기획전시에 있어 큐레이터의 역할

- 큐레이터가 전시 컨셉 설정, 작가 섭외, 출판 콘텐츠 지정, 에디터 선정, 디렉팅 결정 등 모든 과정을 총체적으로 지휘하기 때문에 큐레이터의 역량과 기획력이 매우 중요해서 큐레이터의 name value가 심사 결과에 많이 영향을 줌.
- 큐레이터가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획하는 게 40%, 그밖에 예산관리, 일정관리, 사람관리 등에 나머지를 할애함. 작가들 간의 문제 조정, 감사도 큐레이터의 몫이며 하는 일이 매우 많기 때문에 항상 코디네이터와 assistant 큐레이터를 대동하고 다님. 큐레이터는 모든 주도권을 잡고 조정을 하는 총 매니지먼트를 하고 실제적이고 실무적인 소소한 일들은 assistant 큐레이터들에게 맡김. 작가들과의 예산 dealing도 큐레이터가 하지만 사업비가 억 단위를 넘어가면 보통 사무국을 따로 창설하여 모든 행정 및 예산 업무를 분리함.

□ 국제교류전시 예산 운용

- 보통 해외 업무를 위한 경비의 경우 비행기 좌석부터 체류기간 등의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 및 제약을 두지만 그래도 예산집행에 가장 큰 비율은 인건비(사무국 운영예산)로서 보통 전체 예산의 30%정도 차지함. 예산 집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류비, production cost, artist fee, 장소사용료, 운송, 홍보, 출판 등으로 볼 수 있음.
- 요즘은 전시를 통한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이슈를 던지는) 출판이 대세이며 전시 중 워크샵, 교육 프로그램, 세미나 등도 동시에 개최하는 추세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객을 동원하는 것으로 전시를 사람들이 알아야 전시가 잘 되든 못되든 이슈화가 되는데 관객이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음. 홍보를 위해 대규모 전시는 기자 간담회를 열기도 함.

□ 홍보 방법

- 보통 홍보는 전시 2달 전 부터 시작하는데 3달 전에 홍보대상 list up 시작하여 홍보 tool을 제작하고 관련 잡지 리서치, 관련 기자 리서치를 통해 언론기관 별 가이드라인과 기사 section을 파악하고 마감일에 맞춘 time table을 제작함. 언론사별 성향, 경향, 세세 사항을 파악해서 기사문구까지 다 만들어 보내며 최소 2달 전에 위의 일들을 실행하고 1달 전에 다 갖춰진 홍보자료를 기자들에게 제시해야 겨우 다뤄주는 실정임. 관객동원에 있어서 언론기관별 편차는 매우 심해서 (예로 조선일보 1번이 한겨레신문 10번보다 파급효과 크다) 특히 라디오나 방송매체 관련프로그램에 노출이 되는 것이 매우 좋고 일반 대중보다는 관련 학생들의 관심이 더 크기 때문에 타겟을 설정해서 학교 쪽에도 많이 홍보함.
- 오프닝 리셉션도 재밌게 잘 준비해야 함. 초청할 인사들의 급을 나눠서 초청장 돌리며 고위분들이 오실수록 언론에 더 노출이 잘 됨.
- 전시는 짧고 일회성이기 때문에 전시를 통한 연계활동과 파생 작업들을 기대함
- 현대에 들어 전시는 종합적인 구성으로 공연, 퍼포먼스, 워크숍 등이 기본적으로 전시 안에 포함되고, 전시를 기획할 때 전시 안에 도슨트 프로그램, 교육, 강연 등을 구성하기 위해 조직 안에 기획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두어서 학교와 연계하려 함. (교수님 제외)
- 대중적으로 홍보하려면 대중화된 컨셉을 잡아내서 '매체'를 뚫어야 함.
- 장소 섭외에 있어서 공공시설보다 미술관 쪽이 더 다양한 대상을 포섭할 수 있음(어린이부터 전문가까지)
- 결국 전시는 종료할 때까지 홍보함. 잡지에 리뷰가 실리려면 고위분이나 기자들이 와야 가능하기 때문에 전시 내내 끊임없이 섭외하려고 노력함

□ 전시 마무리

- 전시를 마치면 정산하고 전시품 반출하고 마무리하는데 예산집행에 있어 위원회가 전시를 협조해주는 것은 하지만 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 연구소에서 전시를 진행하려면 기획은 같이 할 수 있어도 실행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음. 담당자를 섭외에서 같이 조인하여 진행해야 함.

□ 연구소에서 전시를 주관하는 경우에 대한 조언

- 담당자로는 건축에 관심이 많은 큐레이터에 어시스턴트로 건축 전공자를 붙이면 가능할 듯.
- 기획부터 큐레이터와 공동으로 기획해야 할 텐데 전시 컨셉이나 작가선정은 공동으로 진행하고 큐레이터에 힘을 실어줘서 기획과 실행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함.

- 현재 위원회 기금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업공간으로 아르코와 인사미술공간이 있는데 아르코는 정보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편이고 인사미술공간은 실험적인 작업이 활발하며 국제교류도 활발하며 아카이브가 잘 갖춰져 있고 레지던스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다원예술소위에서 주관하고 있는 다원예술 매개공간(홍대에 있음)도 있는데 예술 분야 연구와 조사를 하고 있음.
- 간접지원 방법으로는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지역 간의 연계추진, 홍보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심점이 될 만한 센터 건립 등이 필요할 듯.

□ 인사미술공간의 아카이브에 관해

- 현대미술 쪽 아카이브. 도록부터 아티클도 보유하고, 싱글 채널(시청각자료)의 정기상영, 외국 배급담당도 하고 있음. 아카이브는 1년 단위로 update되며 자립하지 못한 작가들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외국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해외 교류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 큐레이터 추천을 받은 신진 작가들이 레지던스에 들어가 1년 동안 워크숍을 통해 역량을 키우며 성장하고 있음.

□ 심사에 대한 시비는 없는지

- 거의 없다고 봐야 함. 큐레이터 성향에 따라 추천 작가가 갈리는 정도며 기획 공모와 공개공모를 통해 모집함.

□ 전시를 준비하기 위해선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

- 대략 5개월을 잡고 전시 5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그 중 전시 진행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1개월 이상 소요됨.

부록 2.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소개 책자 - 한국의 책 100

1) 행사 및 사업 개요

‘한국의 책 100’은 한국이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으로 초청된 것에 대비하여 ‘2005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조직위원회’가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해외의 일반 독자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도서들을 선정하여 새로 번역함으로써 출판을 통한 우리의 문화를 폭넓게 홍보하려는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선정된 100종의 도서는 일정 부분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도서의 특성과 진출 대상 지역을 감안하여 영어, 독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등 6개의 주요 외국어로 번역 출판되어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전시되었다. 100종의 도서는 철학/사상, 역사/지리, 종교/민속/언어, 예술/문화, 사회과학, 과학기술, 문학, 아동도서 등 8개 분야에서 우리 문화의 전통과 현대적 경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도서를 중심으로 선정하였고 도서 선정 작업은 비교적 짧은 번역 기간뿐만 아니라 학문적 가치와 가독성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이미 여러 외국어로 번역 출판된 우수한 다수의 저서들은 여러 부스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시될 예정이므로 이번 선정 도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출처]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대비 한국의 책 100

2) 100종의 서적 중 건축 관련 서적

- 한국의 도시(한국도시지리학회 · 법문사 · 영어)
- 궁궐의 우리 나무(박상진 · 놀와 · 일어)
- 시대를 담는 그릇(김봉렬 · 이상건축 · 영어)
- 한국의 정원(허 군 · 다른세상 · 영어)
- 한국현대건축비평(임석재 · 예경 · 독어)

3) 전체 서적 리스트

- 선비의 나라, 한국유학 2천년(강재언 · 한길사 · 영어)
- 퇴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김영두 · 소나무 · 영어)
- 유교 담론의 지형학(이승환 · 푸른숲 · 영어)
- 원효의 대승기신론 소 · 별기(원효 · 일지사 · 영어)
- 지눌의 선사상(길희성 · 소나무 · 독어)
- 선가귀감-깨달음의 거울(서산 · 동쪽나라 · 영어)
- Korean Buddhism: Tradition and Transformation(심재룡 · 지문당 · 독어)

- 한국선시(김달진 · 열화당 · 영어)
- 한국의 도교사상(차주환 · 동화출판공사 · 중국어)
- 동양과 서양, 두 지평선의 융합(이광세 길 · 영어)
- 동아시아 여성의 기원(이화중국여성문학연구회 · 이화여대출판부 · 중국어)
- 열하일기-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고미숙 · 그린비 · 불어)
- 니체가 뒤흔든 철학 100년(김상환 외 · 민음사 · 독어)
- 심리철학(김재권 · 철학과현실사 · 독어)
- 한국역사(한국역사연구회 · 역사비평사 · 영어)
- 고쳐 쓴 한국 현대사(강만길 · 창작과비평사 · 영어)
- 한국 1950 전쟁과 평화(박명림 · 나남출판 · 영어)
- 전쟁과 사회(김동춘 · 돌베개 · 영어)
-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이병천 외 · 창작과비평사 · 영어)
- 오월의 사회과학(최정운 · 풀빛 · 영어)
- 흔들리는 분단체제(백낙청 · 창작과비평사 · 영어)
- 우리 옛 지도와 그 아름다움(한영우 외 · 효형출판 · 영어)
- 국토와 민족생활사:한국역사지리학 논고(최영준 · 한길사 · 영어)
- 땅의 논리, 인간의 논리(최창조 · 민음사 · 일어)
- Korea. The Land and People(Geographic Congress · 교학사 · 불어)
- 한국의 언어(이익섭 외 · 신구문화사 · 독어)
- 한글의 역사와 미래(김정수 · 열화당 · 영어)
- 현대국어 통사론(남기심 · 태학사 · 영어)
- 풍류도와 한국의 종교사상(유동식 · 연세대출판부 · 서어)
- 한국민속학개설(이두현 외 · 일조각 · 영어)
- 민속문화의 탐구(임동권 · 민속원 · 영어)
- 한국의 문화코드 열다섯 가지(김열규 · 마루 · 영어)
-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전호태 · 사계절 · 불어)
- 놀이와 풍속의 사회사(이이화 · 한길사 · 영어)
- 한국가면극 그 역사와 원리(전경욱 · 열화당 · 영어)
- 굿(조홍윤, 이보형 · 열화당 · 영어)
- 한국과학사(전상운 · 사이언스북스 · 일어)
- 한국사에도 과학이 있는가(박성래 · 교보문고 · 영어)
- 자연사박물관시리즈 5(동굴)(우경식 · 지성사 · 영어)

- 현산어보를 찾아서(2)(이태원 · 청어람미디어 · 일어)
- 원용과 조화(강우방 · 열화당 영어)
- 풍경과 마음(김우창 · 생각의 나무 · 영어)
- 한국미의 조명(조요한 · 열화당 · 독어)
- 한국미술의 역사(김원용 외 · 시공사 · 영어)
- 우리 옛 그림의 아름다움(이동주 · 시공사 · 영어)
- 겸재 정선 진경산수화(최완수 · 범우사 · 영어)
- 단원 김홍도(오주석 · 열화당 · 영어)
- 완당평전(유홍준 · 학고재 · 일어)
- 백제금동대향로(서정록 · 학고재 · 일어)
- 토기/청자(최 건 외 · 예경 · 독어)
- 백자/분청사기(김재열 · 예경 · 독어)
- 금속공예(최응천 외 · 솔 · 독어)
- 한국전통문양집(안상수 · 안그리픽스 · 독어)
- 종묘(배병우 · 삼성문화재단 · 독어)
- 매화(이어령 · 생각의 나무 · 영어)
- 우리 옷과 장신구(이경자 외 · 열화당 · 영어)
-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김치 100가지(한복려 · 현암사 · 일어)
- 20세기 한국미술(김영나 · 예경 · 영어)
-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와 예술(임영탕 · 문학과지성사 · 불어)
- 일지매(고우영 · 우석 · 중국어)
- 간판스타(이희재 · 글논그림밭 · 중국어)
- 부자의 그림일기(오세영 · 글논그림밭 · 영어)
- 구르플 버서난 달처럼(박홍용 · 바다그림판 · 중국어)
- 민통선 평화기행(이시우 · 창작과비평사 · 독어)
- 숲 속의 방(강석경 · 민음사 · 중국어)
- 무진기행(김승옥 · 나남출판 · 불어)
- 칼의 노래(김 훈 · 생각의 나무 · 서어)
- 먼 그대(서영은 · 둥지 · 일어)
- 말뚝(서정인 · 작가정신 · 서어)
- 슬픔도 힘이 된다(양귀자 · 문학과지성사 · 영어)
- 돈황의 사랑(윤후명 · 문학과지성사 · 영어)

- 아홉켈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윤홍길 · 문학과지성사 · 독어)
- 해파리에 관한 명상(이순원 · 작가정신 · 서어)
- 생의 이면(이승우 · 문이당 · 서어)
- 초식(이제하 · 문학동네 · 불어)
- 아버지의 땅(임철우 · 문학과지성사 · 영어)
- 지상에 손가락 하나(현기영 · 실천문학사 · 독어)
- 무사와 악사(외)(홍성원 · 두산동아 · 독어)
- 앞속의 검은 잎(기형도 · 문학과지성사 · 서어)
- 거대한 뿌리(김수영 · 민음사 · 독어)
- 중심의 괴로움(김지하 · 숲 · 독어)
- 농무(신경림 · 창작과비평사 · 독어)
- 사랑의 감옥(오규원 · 문학과지성사 · 독어)
- 남해금산(이성복 · 문학과지성사 · 불어)
- 주막에서(천상병 · 민음사 · 독어)
-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것인 나(최승호 · 열림원 · 서어)
- 훨훨 간다(권정생 · 국민서관 · 영어)
- 수일리와 수일이(김우경 · 우리교육 · 영어)
- 64의 비밀(박용기 · 바람의 아이들 · 영어)
- 귀머거리 너구리와 백석 동화나라(백 석 · 웅진닷컴 · 독어)
- 마지막 박쥐공주 미가야(이경혜 · 문학과지성사 · 불어)
- 반쪽이(이억배 · 보림 · 독어)
- 쥐돌이는 화가(이호백 · 비룡소 · 불어)
- 비가 오는 날에(이혜리 · 보림 · 불어)
- 나쁜 어린이표(황선미 · 웅진닷컴 · 영어)

부록 3.

건축 도서 분야별 현황 조사

1. 해외 출판사 ACTAR, NAI Publishers에서 출판되는 건축 도서의 소재국가 분포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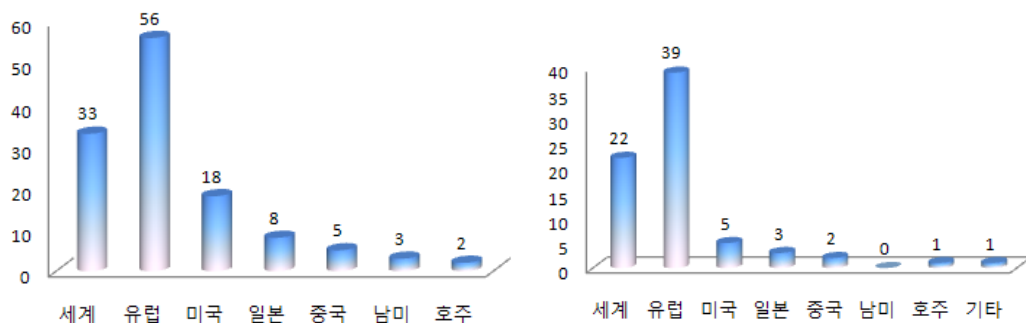
두 출판사인 ACTAR, NAI Publishers에서 건축 책들이 어떤 나라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지 조사하고 분석하여 표로 작성하였고 조사는 각 출판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현재 소개되어 판매 중인 책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ACTAR, NAI Publishers에서 출판되는 건축 책들은 주로 유럽의 건축을 소재로 다루고 있었다.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고 아래 표의 왼쪽 세로줄은 출판사별 도서 분류 목록, 맨 윗줄의 국가 명은 주요 소재로 다뤄진 나라이다.

〈부록표 3-1〉 ACTAR에서 출판되는 건축 도서의 소재국가 분석 (숫자는 도서 수량)

ACTAR (스페인)	세계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남미	호주	기타	전체
Architects	1	27	4	3	2	2			37
Urban Design	6	10	7		1				24
Housing	6			2					8
Buildings	5	8	3	3	1	1	1		22
Landscape	5	4	1						10
Theory, analysis, history	10	7	3		1		1		22
합계	33	56	18	8	5	3	2		123

〈부록표 3-2〉 NAI Publishers에서 출판되는 건축 도서의 소재국가 분석

NAI Publishers(네덜란드)	세계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남미	호주	기타	전체
Dutch Architects		13							13
Foreign Architects	11			2					13
Urban Design	5	3	2				1		11
Garden & landscape	3	10	1						14
Theory & history	3	4	2					1	9
Cities & countries		9		1	2				12
Constrction, materials, typology									16
합계	22	39	5	3	2	0	1	1	88



〈부록그림 3-1〉 주요출판사의 연구대상 국가 (좌 : ACTAR, 우 : NAI)

□ ACTAR 최근 출판 도서 목록

- ARCHITECTS

- Design Engineering (Adams Kara Taylor)
- MAD Dinner : The First Book from MAD, China's Hungriest Architects (Ma Yansong, Yosuke Hayano, Dang Qun)
- Engaged with reality (Pich-Aguilera Architects)
- Positions (Portrait of a New Generation of Chinese Architects)
- Ant Farm : Living Archive 7 (Felicity Scott)
- Casas y habitantes (Carlos Ferrater)
- Looking for Mies (Ricardo Daza)
- Leaf, Flame, Crystal (Alberto Cecchetto)
- SANAA Houses (Kazuyo Sejima, Ryue Nishizawa)
- Pro Domo (Yona Friedman)
- Formula New Ljubljana (Sadar & Vuga Arhitekti)
- Victor Rahola
- Translation (LAR/Fernando Romero)
- KM3 Excursions on Capacities (MVRDV)
- Mies Van Der Rohe Award (European Union Prize for Contemporary Architecture 2005)
- Victor Gruen : From Urban Shop to New City (Alex Wall)
- Net.It : A Snapshot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Design and Photography in Italy
- Phylogenesis : FOA's Ark (Foreign Office Architects)
- Sendai Mediatheque (Toyo Ito)
- Frames (Massimiliano Fuksas)
- Architecture in Europe : Mies van der Rohe European Union prize for contemporary architecture 2003
- Velodrome and Swimming Pools in Berlin (Dominique Perrault)
- Kazuyo Sejima in Gifu (Metropolitan Housing Studies)
- Architecture Described (Batlle i Roig, Architects)
- Jorge Oteiza : Animal Fronterizo (Gillermo Zuaznabar)
- Poch & Moliner (On the Limits)
- Recycling Madrid (Abalos and Herreros)
- Carlos Ferrater (Works and Projects 1980-2000)
- AMP Arquitectos
- Soriano & Palacios : It's small, It Rains and with Ants
- Dominique Perrault (With)
- MVRDV at VPRO
- Fabrications
- Carme Pinos : Projects since 1991 (Carme Pinos)
- Sert: Architect in New York
- Treffpunkt Barcelona

- URBAN DESIGN

- The Infrastructural City : Networked Ecologies in Los Angeles
- Shanghai Transforming
- GeneroCite : Generous versus generic. A new culture of More in French contemporary architecture
- Expo Urbanism :The Accompanying Plan
- In the Chinese City : Perspectives on the Transmutations of an Empire
- Verb Crisis
- Project Zagreb : Transition as Condition, Strategy, Practice (Eve Blau, Ivan Rupnik, Harvard Graduate School of Design)
- Proyecto BCN : Manual de arquitectura colectiva contemporanea en Barcelona (Giacomo Delbene)
- Skycar City : A Pre-emptive History (MVRDV ,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 Spacefighter : The Evolutionary City (Game:) (MVRDV , Delft School of Design)
- Multi-National City : Architectural Itineraries (Reinhold Martin, Kadambari Baxi)
- Building Barcelona : A second Renaissance (Peter G. Rowe, Harvard Graduate School of Design)
- KM3 Excursions on Capacities (MVRDV)
- Victor Gruen : From Urban Shop to New City (Alex Wall)
- Verb Conditioning
- The (un) common place : Art, Public Space and Urban Aesthetics in Europe
- Verb Connection
- Verb Matters
- Milan, Berlin, Valencia (Gabriele Basilico)
- Stalking Detroit
- Mutations (Rem Koolhaas, Stefano Boeri, Sanford Kwinter, Daniela Fabricius, Hans Ulrich Obrist, Nadia Tazi)
- Costa Iberica : Upbeat to the Leisure City (Winy Maas, Jacob van Rijs)
- Canadians in Barcelona
- Barcelona Metapolis
- Present & Futures : Architecture in the Cities

- HOUSING

- Global Housing Projects : 25 buildings since 1980
- Collective Housing: A Manual
- SANAA Houses (Kazuyo Sejima, Ryue Nishizawa)
- Self-Sufficient Housing : 1st Advanced Architecture Contest
- Sociopolis : Project for a City of the Future
- Housing + Singular Housing (Manuel Gausa, Jaime Salazar)
- Kazuyo Sejima in Gifu : Metropolitan Housing Studies
- Singular Housing

– BUILDINGS

- Design Engineering (Adams Kara Taylor)
- Expo Architecture 2008 : Zaragoza, an urban project
- Armani Ginza Tower (Massimiliano Fuksas, Doriana Mandrelli)
- The Function of Ornament (Farshid Moussavi, Michael Kubo, Harvard Graduate School of Design)
- Casas y habitantes (Carlos Ferrater)
- Patent Constructions (New Architecture Made in Catalonia)
- MPreis (Jordi Bernado, Dominique Perrault)
- Synchronizing Geometry : Landscape, Architecture & Construction / Ideographic Resources (Carlos Ferrater, Borja Ferrater)
- Buy Me a Mercedes-Benz : The Book of the Museum (UN Studio)
- New Milan Trade Fair (Massimiliano Fuksas)
- Ferrari Research Center (Massimiliano Fuksas)
- Seattle Public Library (OMA/LMN)
- Rathaus Innsbruck (Jordi Bernado, Dominique Perrault)
- CCIB (Josep Lluís Mateo, MAP Architects)
- The Yokohama Project (Foreign Office Architects)
- Emporio Armani Hong Kong (Massimiliano Fuksas, Doriana Mandrelli)
- Sendai Mediatheque (Toyo Ito)
- Velodrome and Swimming Pools in Berlin (Dominique Perrault)
- Verb Processing
- 2nd Mies Van der Rohe Award : Latin American Architecture 2000

– LANDSCAPE

- Creating Environments (The World of Andre Jordan)
- Natural Metaphor : Architectural Papers III
- El efecto Albacete : Una investigación territorial (Jose Miguel Iribas)
- Verb Natures
- Synchronizing Geometry : Landscape, Architecture & Construction / Ideographic Resources (Carlos Ferrater, Borja Ferrater)
- Four Elements : Campo Catino (Giacomo Delbene, Massimiliano Floridi, Lala Meredith-Vula)
- Desert America : Territory of Paradox
- Re-Envisioning Landscape Architecture
- Coming from the South (Eduard Bru)

– THEORY, ANALYSIS, HISTORY

- In the Chinese City : Perspectives on the Transmutations of an Empire
- The Function of Ornament (Farshid Moussavi, Michael Kubo, Harvard Graduate School of Design)
- Ant Farm : Living Archive 7 (Felicity Scott)

- Looking for Mies (Ricardo Daza)
- Far from Equilibrium : Essays on Technology and Design Culture (Sanford Kwinter)
- The Metapolis Dictionary of Advanced Architecture
- Proyecto BCN : Manual de arquitectura colectiva contemporanea en Barcelona (Giacomo Delbene)
- Mies Van der Rohe Award 2007 : European Union Prize for Contemporary Architecture
- Multi-National City : Architectural Itineraries (Reinhold Martin, Kadambari Baxi)
- Blue Monday : Stories of Absurd Realities and Natural Philosophies (Kazys Varnelis, Robert Sumrell)
- Domesticity at War (Beatriz Colomina)
- Pro Domo (Yona Friedman)
- Building Barcelona : A second Renaissance (Peter G. Rowe, Harvard Graduate School of Design)
- KM3 Excursions on Capacities (MVRDV)
- OPOP : Operative Optimism in Architecture
- Architecture Guide to Barcelona : 1860-2002 (Manuel Gausa, Marta Cervello, Maurici Pla)
- Arquitectura en Austria. : Una vision del siglo XX
- Three on the Site (Eduard Bru)
- Areas of Impunity (Juan Herreros, Inaki Abalos)
- Escritos Colegiales (Josep Quetglas)

□ NAI Publisher 최근 출판 도서 목록

- Dutch Architects

- Inside Outside - Petra Blaisse (Kayoko Ota (ed.) en Petra Blaisse (text); essays from Sanford Kwinter, Cecil Balmond, Renz van Luxemburg, Gaston Bekkers, Chris Dercon et al.)
- At work / Neutelings Riedijk Architects (Willem Jan Neutelings, Michiel Riedijk)
- Prototypes. The Work of cepezed (Piet Vollaard)
- Onix / Awaiting Signification. Towards an authentic architectural experience
- P.J.H. Cuypers 1827-1921. The Complete Works (Jan Bank, Hetty Berens, Loes van Harreveld, Ida Jager, Barbara Laan, Wilfred van Leeuwen, Jan De Maeyer, David Mulder, Mariet Willinge)
- SeARCH (Bjarne Mastenbroek)
- Frits van Dongen / Designing for Culture Bouwen voor cultuur (Els Brinkman, Fred Feddes, Allard Jolles)
- Buy me a Mercedes-Benz / The book of the museum (UNStudio and HG Merz)
- EEA) Erick Van Egeraat Associated Architects /10 years realised works (Erick Van Egeraat, Philip Jodidio)
- VMX Architects Agenda (Olv Klijn, Don Murphy, Leon Teunissen)
- Aldo van Eyck Writings 1 & 2 + DVD (Vincent Ligtelijn, Francis Strauven)
- West 8. Mosaics (Hans Ibelings, Adriaan Geuze, Chidi Onwuka)
- Situation / KCAP Architects & Planners (Kees Christiaanse, Han van den Born, Ruurd Gietema, Irma van Oort)

– Foreign Architects Ando / Complete works (Jodidio, Philip)

- Hans Kollhoff / Kollhoff & Timmermann architects (Jasper Cepl)
- Ove Arup / Masterbuilder of the Twentieth Century (Peter Jones)
- Adolf Loos / Works and Projects (Ralf Bock)
- Bow-Wow from POST BUBBLE CITY (Atelier Bow-wow)
- Jean Prouvé / The Poetics of the Technical Object (Alexander Von Vegesack)
- Yona Friedman / Pro Domo (Yona Friedman)
- Sauerbruch Hutton / Archive (Matthias Sauerbruch, Louisa Hutton)
- Herzog & de Meuron / Natural History (Edited by the CCA, Montreal and Philip Ursprung)
- Thinking Architecture / second, expanded edition (Peter Zumthor)
- Louis I Kahn (Robert McCarter)
- Alison and Peter Smithson / From the House of the Future to a house of today (Max Risselada and Dirk van den Heuvel, translation D'Laine Camp)
- 2G Books: Lacaton & Vassal (Andreas Ruby, Ilka Ruby)

– Urban Design

- The Endless City (Ricky Burdett, Deyan Sudjic)
- Atlas of Shrinking Cities - Atlas der schrumpfenden Städte (Philipp Oswalt, Tim Rieniets, Elke Beyer)
- Atlas of the Dutch Urban Block (Susanne Komossa, Han Meyer, Max Risselada, Sabien Thomaes, Nynke Jutten)
- New Public Spaces (Sarah Gaventa)
- Metropolitan World Atlas (Arjen van Susteren, Joost Grootens (design))
- Talking Cities. The Micropolitics of Urban Space - Die Mikropolitik des urbanen Raums (Francesca Ferguson, urban drift)
- European 8 / European Urbanity and Strategic Projects (Hans Ibelings, Olof Koekebakker, Bert van Meggelen, Anna Vos, catja Edens, Ben Maandag, Emmie Vos)
- Sprawltown. Looking for the City on its Edges (Richard Ingersoll)
- Drosscape / Wasting Land in Urban America (Alan Berger)
- Catalogue of European 8 results / European Urbanity
- Principles of Urban Structure (Nikos Salingaros)

– Garden & landscape

- New Landscape Architecture (Nicolette Baumeister)
- Avant-Gardeners: Fifty Visionaries of the Contemporary Landscape (Tim Richardson, Martha Schwartz)
- Fieldwork / Landscape Architecture Europe (Lisa Diedrich, Robert Holden, Eric Luiten)
- Detail in 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e (Virginia McLeod)
- Groundswell / Constructing the Contemporary Landscape (Peter Reed)
- Architecture and Landscape / The Design Experiment of the Great European Gardens and Landscapes (Wouter Reh, Clemens Steenbergen)

- Sensations / A Time Travel Through Garden History (Nadine Olonetzky)
- The Landscape Urbanism Reader (Charles Waldheim)
- The same landscape / Ideas and interpretations (Teresa Galí-Izard, Jacques Simon)
- Lexicon of Garden and Landscape Architecture (Meto J. Vroom)
- Artsapes / Art as an approach to contemporary landscape (Luca Galofaro)
- Sculptures Parks in Europe / A Guide to Art and Nature (Raúl Rispa Varas, Jimena Blazquez Abascal, Raul Rispa Varas)
- The Invented Land - Het verzonnen land / A bird's-eye view of Dutch landscape architecture (Peter van Bolhuis, Tracy Metz, Gerrit Smienk, Frank de Josselin de Jong, Klaas Kerksta, Eric Luiten, Anja Guinée)
- Vertical Gardens. Bringing the City to Life (Anna Lambertini)

- Theory & history

- The Body in Architecture (Deborah Hauptmann)
- Non-places / Introduction to an Anthropology of Supermodernity (Marc Auge, translation by John Howe)
-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and How It's Transforming Work, Leisure, Community and Everyday Life (Richard Florida)
- Planet of Slums (Mike Davis)
- Living in the Lowlands / The Dutch Domestic Scene 1850-2004 (Aaron Betsky, Hans Ibelings, Jean-Paul Baeten, JaapJan Berg, a.o.)
- Utopia Deferred. Writings from Utopie (1967-1978) (Jean Baudrillard)
- Mediapolis. Popular Culture and the City (Alex de Jong, Marc Schuilenburg)
- Back from Utopia. The Challenge of the Modern Movement (Hubert-Jan Henket, Hilde Heynen)
- Theoretical Anxiety and Design Strategies in the Work of Eight Contemporary Architects (Rafael Moneo, Gina Carino (Translator))

- Cities & countries

- Architecture in the Netherlands - Architectuur in Nederland / Yearbook 2005>06 - Jaarboek 2005>06 (Daan Bakker, Allard Jolles, Michelle Provoost, Cor Wagenaar)
- The Phaidon Atlas of Contemporary World Architecture / Travel Edition
- Belgium new architecture 4
- Architectural Guide to the Netherlands 1900 - 2000 / Architectuurgids Nederland 1900 - 2000 (Paul Groenendijk, Piet Vollaard)
- A+U Special 05:05 Beijing Shanghai Architecture Guide
- Amsterdam Architecture / A guide (Guus Kemme, Gaston Bekkers)
- AV Monographs 109/110 CHINA BOOM / Growth unlimited
- ARCHILAB 2006 JAPAN / Nested in the City
- Along Amsterdam's waterfront / Exploring the architecture of Amsterdam's Southern IJ Bank (Sabine

Lebesque, Maarten Kloos, Ingrid Oosterheerd, Evert Verhagen a.o.)

- Wallpaper City Guide: Stockholm
- Swiss Made (Steven Spier, Martin Tschanz)

– Constrction, materials, typology

- Constructing Architecture / Materials, Processes, Structures, a Handbook (Andrea Deplazes)
- Spacecraft. Fleeting Architecture and Hideouts (Robert Klanten, Lukas Feireiss)
- Rooftop Architecture / Building on an elevated surface (Ed Melet, Eric Vreedenburgh)
- Neufert / Architects' Data, Third edition (Ernst Neufert, Peter Neufert, Bousmaha Baiche en Nicholas Walliman)
- Construction Materials Manual (Hegger, Auch-Sewelk, Fuchs, Rosenkranz)
- Floor Plan Manual: Housing (Friederike Schneider)
- Key Houses of the 20th Century / Plans, Sections and Elevations (Colin Davies)
- In Detail: Building Skins / new enlarged edition (Christian Schittich, Werner Lang, Roland Krippner)
- The Intermediate Size / A handbook for collective dwellings (Like Bijlsma, Jochem Groenland)
- Materials for Architectural Design (Victoria Ballard Bell, Patrick Rand)
- Density Projects. 36 New concepts on collective housing (Aurora Fernandez Per, Javier Arpa)
- Organic Architecture / The Other Modernism (Alan Hess)
- a + t Density condensed edition / New Collective Housing (Javier Mozas, Aurora Fernandez Per)
- Transmaterial / A Catalogue of Materials that Redefine Our Physical Environment (Blaine Brownell)
- Transmaterial 2 / A Catalog of Materials That Redefine Our Physical Environment (Blaine Brownell)
- The Architecture of Hospitals (Cor Wagenaar (ed.), Abram de Swaan, Stephen Verderber, Charles Jencks, Aaron Betsky, Roger Ulrich a.o.)

2. 한국 건축문화 해외소개 출판사 현황

(1) 이화여대출판부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시리즈는 우리 문화의 근원을 탐색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2009년까지 총 100종(국문 50종, 영문 50종)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시리즈는 문학, 역사, 음악, 미술, 공예, 가구, 음식, 의복, 건축, 놀이 등 한국의 전통 문화를 이루고 있는 주요 영역들을 세부적으로 천착해 들어감으로써, 일반인들이 우리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전문성을 띠는 것이 그 특징이다. 또한 작은 판형과 풍부한 시각적 자료들을 위주로 한 구성으로 독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2005년 상반기에 출간이 예정되어 있는 국문판 10종과 영문판 10종은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출품될 예정이다.

□ 이화에서 출판된 건축 관련 서적들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의 주제로 임석재 교수가 한국 전통건축을 알리는 서적에 국한되었다.

- The Traditional Space: A Study of Korean Architecture
- Roofs and Lines: A Study of Korean Architecture
- Floral Lattices, Columns and Pavilions: A Study of Korean Architecture
- Stone, Walls and Paths: A Study of Korean Architecture
- Windows and Doors: A Study of Korean Architecture
- 2008 Ewha Photo Diary - Traditional Korean Houses

(2) 한림출판사

□ 해외수출용 대중적 한국학 도서

자체 개발 및 각급 기관과의 협력 개발 도서 등 200여종을 미국현지법인 Hollym International Corp.과 동시 발행으로 출간하여 미국의 ISBN과 LC#(Library of Congress Catalog Card Number)를 받음으로써 각종 정보자료에 자동으로 등재되어 세계적인 홍보와 리뷰를 받으면서 15개국 20여 Distributor를 통하여 수출을 하고 있다. 최근에 해외 우수대학의 교과서 채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대중화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 회사연혁

- 1977년 미국 뉴저지주 한림인터내셔널 설립
- 1978년 부산 한림지사 설립
- 1987년 한림출판사 법인전환
- 1988년 일본 삼수사(三修社) 일본어판 김치 외 8종 수출 시작
- 1989년 일본 福音館書店과 공동으로 그림책 강연회
- 1990년 ~ 1992년 독일 Gotzky 김치와 전통요리 독일어판 수출
- 1991년 ~ 2006년 일본 백제사(白帝社) <日韓・韓日 소사전> 수출계약
- 1993년 문화관광부와 서울대학교어학연구소에서 개발한 한국어교재(영어권) 3종 발행
- 1999년 주한 67개국 대사관과 협력 <대사와 함께 만찬을> 출간
- 2000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음식대관 1~6권> 출간
- 2001년 문화재청 <한국의 무형문화재 1~3권> 영문판으로 출간
- 2002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학총서 1~6권> 영문판으로 출간
- 2004년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달맞이 창간
- 2005년 한국어세계화재단 <초급 한국어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 출간
- 2005년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문화 시리즈 9권> 영문판으로 출간

□ 한림에서 출판된 건축 관련 서적들

주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고건축에 한정되어 있고 주요 집필진은 이상해 교수, 김성우 교수, 김동욱 교수 등이다.

- Seowon:The Architecture of Korea's Private Academies(Korean Culture Series #2)
- Palaces of Korea (Korean Culture Series #3)
- Buddhist Architecture of Korea (Korean Culture Series #9)
- Korean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한국조경학회)
- Seoul Sketches (Charlotte Rountree, Drawings by Joyce Ryan)
- Hanoak: Traditional Korean Homes (전진희)

□ Saffron Books (영국)

-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제3국가나 아시아권의 문화, 예술,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출간하고 있는 출판사로서,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을 계기로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시리즈를 출판하고 있다. 전통분야에 한정된 건축 관련 문화에 대한 4권의 책이 출판되었다.

□ Saffron Books 에서 출판된 건축 관련 서적들

- KOREAN TRUE-VIEW LANDSCAPE: Paintings by Chong Son (1676-1759)
Ch'oe Wansu, Translated and edited by Pak Youngsook and Roderick Whitfield
- THE SECRET SPIRIT OF KOREAN ARCHITECTURE
Kim Bongryol, translated by Lee Yongsuk, Photographs by E Inmi
- GARDENS OF KOREA: HARMONY WITH INTELLECT AND NATURE
Heo Kyun ('Huh Gyun'), translated by Don L Baker, Photographs by Lee Gapcheol
- MAEHWA THE PLUM BLOSSOM: READING THE CULTURAL CODES OF
KOREA, CHINA AND JAPAN
I Eo-ryeong, translated by John Frankl

부록 4.

건축 전시 현황 조사 - 최근 5년간

〈부록표 4-1〉 일반전시

구분	행사 구분	행사명	기간	행사개요	장소	주최	주관
국내	전시	코리안모던 스타일'의 공간적 제시	2007.12	삼성건설래미안에서는 전통적인 형태를 넘어서 차별화된 '코리안 모던 스타일' 을 선보였다.12월에 열린 '디자인코리아2007'의 월드베스트디자인 베스트전에 전시되었던 작품,'코리안 모던 스타일'의 전시공간은 수상되었던 제품을 전시하기 위한 단순한 공간이 아닌 전시공간 자체가 또 다른 한국적 주거문화의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			
국내	전시	한국전통 건축 드로잉전	2008.02.18~2 008.02.29	건축가 김석환의 두번째 전시. 그의 저서'한국전통건축의 좋은 느낌'에 수록된 스케치를 비롯하여 틈틈이 답사를 다니며 드로잉한 작품들 중 선별해서 전시	영풍문고 종로본점 북갤러리		
국내	전시	이희전 건축전 '지속과 변화'	2008.02.29~ 2008.03.04	지속과 변화-중심의 형태와 현실화'라는 주제로 작가의 건축모형과 도면, 이미지 전시	한기숙갤 러리		
국내	전시 ,세 미나	임정의 사진전 '르 꼬르뷔지에 르 보다'	2008.03.07~ 2008.04.13	파주시헤이리 마을 갤러리 소소에서 3월7일부터 4월13일까지 임정의 작가의 사진전 열림.2007년 9월에 발간한 작가의 사진집 '르 꼬르뷔지에를 봐'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전시. 사진집에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전시되며,빛과 자연 지형이 응용된 소소의 공간을 통해 다각적인 모습으로 제시될 예정.3월38일 '르 꼬르뷔지에가 남긴 다섯 가지 문제들'이라는 주제로,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정진국 교수의 세미나를 진행	갤러리 소소		
국내	전시	삶의 형상을 찾아서200 8정동' 전	2008.03.27~ 2008.04.02	구가 도시건축이 설계한 한옥을 중심으로 그 동안의 작업을 전시.'우리 삶과 가까운 보편적인 건축의 탐구'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진행해온 여러 프로젝트들도 소개.	정동경향 갤러리		
국내	전시	문화따라 흐르는 여수예술도 시 전	2008.03.24~ 2008.04.10	세오갤러리에서 '2008세오 특별기획 문화따라 흐르는 여수예술도시 전'을 개최.이번 특별전은 갤러리의 모기업인 (주)바호그룹이 그 동안 준비해온 여수 극동항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도시,건축,예술리 복합적으로 융화된 이상적인 건축프로젝트를 선보이는 전시	세오갤러 리		
국내	세미 나, 전시	문화우리 제3차 도시경관기 록보존 프로젝트, 세운상가	2008.03.20,2 008.04.03	(사)문화우리는 재개발로 사라져가는 구도시의 일상적 경관을 기록보존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시경관 기록보존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3월20일 '안녕하세요 세운상가'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첫 현장 답사에는 사진가, 건축가, 다큐멘터리 작가 등이 참여해 변화해가는 세운상가의 풍경을 기록. 이어 4월3일에는 세운상가3층에서 '세운상가,시대의 자화상으로 서다'라는 제목으로 세미나 개최.5월24일:답사	세운상가, 가나아트 센타	(사)문화우리	

구분	행사 구분	행사명	기간	행사개요	장소	주최	주관
국내	전시	코리안모던 스타일'의 공간적 제시	2007.12	삼성건설레미안에서는 전통적인 형태를 넘어서 차별화된 '코리안 모던 스타일' 을 선보였다.12월에 열린 '디자인코리아2007'의 월드베스트디자인 베스트전에 전시되었던 작품 '코리안 모던 스타일'의 전시공간은 수상되었던 제품을 전시하기 위한 단순한 공간이 아닌 전시공간 자체가 또 다른 한국적 주거문화의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			
				동영상 및 사진기록 전시, 6월25일:인사동 가나아트센터전시			
국내	전시	건축을 경작하다 ,제주현대 미술관 <Cul tivate>전	2008.05.03~ 2008.05.31	일본건축가 코지마 가즈히로와 아카마츠 가즈코의 <Cultivate>전이 제주 현대미술관에서 열림.이 전시는 지난해 10월 도쿄의 건축전문 갤러리'갤러리 마'에서 열린 전시를 초청한 것	제주 현대미술 관	건축가협회 제주지회	
국내	전시	세계 건축의 젊은 피 <이머징 아키텍처> 전- 'Emerging Architectur e'Exhibitio n	2008.05.27~ 2008.06.24	2007년 11월에 개최된 AR어워드 수상작 전시가 갤러리 정미소에서 열림.6월23일에는 [아키텍처리뷰]의 편집장이자 비평가인 폴 핀치가'세계현대건축에 대한 단면'이라는 주제로 대학로 설치극장 정미소에서 강연회를 가질 예정	갤러리 정미소		
국내	전시	2008건축 설계 교수 작품 초대전	2008.05.03~ 2008.05.07	건축설계교수회가 지난 5월3일부터7일동안 역삼동 푸르지오 밸리에서 'ON-tology:공공건축'이라는 주제로 작품 초대전을 가짐	푸르지오 밸리	건축설계교수 회	
국내	전시	<서울 한옥의 미래가치> 전	2008.06.12~ 2008.06.18	생활문화유산으로서의 서울한옥이 지닌가치를 조명하고 장소형문화사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가능해보는 전시 서울에 남아있는 2만 여채에 이르는 한옥분포지도와 20곳의 한옥골목을 그림과 함께 전시, 한옥문화지도공개, 한옥의 새로운 설계방법 시연	정동 경향갤러 리		
국내	설계 전시	지산 발트하우스 , 건축가가 그린 마을의 풍경	2008.05.20~ 2008.05.30	시행사인 더뮤지엄(대표 조우형)과 바움하우스는 양지 발트하우스에 이어 올해 새롭게 지산 발트하우스를 계획.건축가 승효상, 조성룡, 민현식, 이순건축, 이탈리아의 프란시스코 사닌이 설계한 지산 발트하우스는 자연과 인간,그리고 집과 인간이 삶이 서로 공존하는 축 공간을 목표로 함. 조경에는 정영선이 참여.	갤러리 원	시행사 더 뮤지엄,baumh 우스	
국내	전시 포럼	한국현대건 축의 지형도를 그리다	2006.11.28~ 2006.12.23	토탈미술관에서 열린 통섭지도관련 참여건축가 50여명의 사진, 동영상, 모형 등의 전시와 심포지엄. 한국건축의 흐름에 있어서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서 추출한 키워드와 9개의 탐침을 연관하여 하나의 도표로 만든 통섭지도,	토탈미술 관		
국내	전시	아름다운	2006.12.14~ 2006.12.20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과 만나는	코엑스	강남구청	

구분	행사 구분	행사명	기간	행사개요	장소	주최	주관
국내	전시	코리안모던 스타일'의 공간적 제시	2007.12	삼성건설레미안에서는 전통적인 형태를 넘어서 차별화된 '코리안 모던 스타일' 을 선보였다.12월에 열린 '디자인코리아2007'의 월드베스트디자인 베스트전에 전시되었던 작품 '코리안 모던 스타일'의 전시공간은 수상되었던 제품을 전시하기 위한 단순한 공간이 아닌 전시공간 자체가 또 다른 한국적 주거문화의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			
		건축과 만나는 일주일		일주일'전 - 강남구 내에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작품 공모와 추천을 통해 29개의 건물을 수상,작품집 발간			
국내	전시	2006대한 민국건축제	2006.12.06~ 2006.12.10	열림, 혼합(OPEN&MIX)'를 주제로 삼성동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대한민국건축제가 열림,커뮤니티 스쿨(Max Mix-Community school)이라는 주제로 각종 편의 시설이 복합된 새로운 개념의 학교형태 제안	코엑스	한국건축가 협회	
국내	전시	쌈지 스페이스 당인리 문화공장	2006.12.22.~ 2007.01.10	건축가 유석연(온고당)과 아티스트 홍영인이 공동 기획한 당인리 문화공장'은 국제전시로 쌈지스페이스에서 지난 12월22일부터 1월10일까지 당인리 문화공간에 관한 미술,건축,글의 세 장르의 작품들을 전시했다.12월23일과1월6일에는 '작가와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담는 자리를 마련	쌈지스페 이스		
국내	전시	얌얌얌맛 있는 과자건축' 자연,건축, 그리고 미래'	2006.11~200 7.02	한옥마을, 청계천, 호주의 오페라 하우스,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등 세계의 유명건축물의 과자로 만들어서 전시	코리아 디자인센 터		
국내	전시	불만카페- 건축가 함성호의 드로잉 전'	2007.01.09~ 2007.02.09	건축가이자 시인인 함성호씨의 '당신의 건축에 불만 있습니다'와 '당신의 시에 불만 있습니다'라는 테마로 구성된 드로잉 전	테이크아 웃드로잉		
국내	전시	김종성 건축전시회	2007.03.15~ 2007.04.14	2006년 10월 베를린 아에데스에서 개최되었던 '구축의 논리와 공간의 상상력'의 귀국전	서울대학 교 박물관		
국내	전시	Change - 동사무소' 수상작 발표 및 전시회 개최	2007.04.18~ 2007.04.30	시민들이 쉽게 활용하는 공간이지만 변화의 속도가 느린 동사무소를 문화적인 공간,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계기가 마련된 'Change-동사무소'의 수상 및 전시	혜화역 대합실 내 혜화전시 관	서울문화재단	
국내	전시	Spirit of Africa-아프 리카 흙 건축전	2007.04.24~ 2007.09.30	아프리카 흙집을 주제로 '세바스찬 슈티제의 흙집사진', '흙집 퍼포먼스', '아프리카 컬렉션'의 3가지 기획 및 특별전으로 구성	클레이아 크 김해미술 관		
국내	전시	제1회 전국건축대 학 졸업작품전	2007.04.23~ 2007.05.25	전국의 건축대학(원), 학과, 건축관련학과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전시하여 각 대학 졸업생들을 위한 축제를 마련하고자 기획	구 서울역사	한국건축가협 회	문화관 광부, 철도공 사 후원
국내	전시	건축가의	2007.05.16~	국내외 건축가 22명이 만든 문손잡이	첫대박물		

구분	행사 구분	행사명	기간	행사개요	장소	주최	주관
국내	전시	코리안모던 스타일'의 공간적 제시	2007.12	삼성건설래미안에서는 전통적인 형태를 넘어서 차별화된 '코리안 모던 스타일' 을 선보였다.12월에 열린 '디자인코리아2007'의 월드베스트디자인 베스트전에 전시되었던 작품 '코리안 모던 스타일'의 전시공간은 수상되었던 제품을 전시하기 위한 단순한 공간이 아닌 전시공간 자체가 또 다른 한국적 주거문화의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			
		도어핸들전	2007.06.15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 김준성, 민성진, 민현식, 송효상, 이종호, 최두남, 황두진, 프란시스코사닌 ,OfficeDa의 네이더테라니	관		
국내	전시	2007년도 대한건축학 회학생작품 전	2007.0910~2 007.10.27		충북대학 교 학술발표 회장	대한건축학회	
국내	전시	2007 부산국제건 축문화제	2007.10.10~ 2007.10.16	〈PORT CITY-가능성의 도시 부산〉 이란 주제로 개최된 2007부산국제건축문화제, 세계실내건축가연맹총회,디자인대회작품 전시,건축작품전시,경향하우징페어,다니 엘 리베스트킨트 초청강연회	BEXCO		부산광 역시,(사) 부산국 제건축 문화제
국내	전시	〈상상의 대지탐사〉 전	2007.10.05~ 2007.10.18	〈상상의 대지탐사:Paper Architecture〉전,구영민과 박준호의 전시 및 작가와의 대화	인천스페 이스빔우 각홀		
국내	전시	예술가의 협업과정의 확대	2007.08.31~ 2007.09.23	조각가노준과건축가서승모의협업전시〈 구멍〉개최,오브제자체의시각적인전달내 용이확대되거나축소되는경험을유도하는 전시 노준의 케릭터클로(Clo)와 서승모의 낙시줄을 이용한 개념적 공간설치	갤러리 팩토리		
국내	전시	〈우리집은 한옥이다〉 전	2007.11.14~ 2007.11.19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대표 양병이)가 개최한 제1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옥전〈우리집은 한옥이다〉전,조직위원회가 선정한 14개의 한옥을 사진과 글,영상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	인사동 학교재	(사)한국내셔 널트러스트	
국내	전시	2007대한 민국건축문 화제	2007.11.10~ 2007.11.18		구 서울역사	한국건축가협 회,새건축사협 의회	
국내	전시	아젠다, 그룹전	2007.11.09~ 2007.11.15	디자인 연구그룹 아젠다의 30대 전후 회원들이 모여 '미러볼'이라는 제목의 전시를 개최.아젠다의 첫번째 단독 전시회,실현기회를 갖기 어려운 프로젝트를 통해 젊은 건축가들이 상상력의 확장을 시도	바움갤러 리	아젠다	
국내	전시	이은석건축 전시회'Ch urch&Chur ch Architectur e	2007.12.14~ 2007.12.16	천년의 '문'과 '한미문화예술센터' 국제현상설계당선자로 알려진 건축가 이은석(경희대건축학과)교수가 과천 뱅크스사옥에서 첫 전시회를 가졌다. 사진,도면,모형,동영상 등 총63점의 건축 작품을 전시.이번 전시는 최근 국제 현상설계 당선작인 카자흐스탄 아마티 스포츠 센터와 장수 밀레미엄 클럽 하우스등이 공개	과천 뱅크즈 사옥		

구분	행사 구분	행사명	기간	행사개요	장소	주최	주관
국내	전시	코리안모던 스타일'의 공간적 제시	2007.12	삼성건설레미안에서는 전통적인 형태를 넘어서 차별화된 '코리안 모던 스타일' 을 선보였다.12월에 열린 '디자인코리아2007'의 월드베스트디자인 베스트전에 전시되었던 작품 '코리안 모던 스타일'의 전시공간은 수상되었던 제품을 전시하기 위한 단순한 공간이 아닌 전시공간 자체가 또 다른 한국적 주거문화의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			
국내	전시	anew city-집에 관한 사유	2006.02.23~ 2006.03.16	건축가, 예술가, 디자이너들이 14재 다양한 집을 만들어 선보이는 전시	아르코미 술관 제2전시실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아르코미술관	
국내	전시	박재영 고건축사진 전	2006.02.08~ 2006.02.14	주제 : 우리 공간 이야기 (흑백사진)	세종문화 회관 광화문갤 러리		
국내	전시	파주북시티 설계 건축가들의 드로잉 전	~2006.02.28	참여 건축가 11명의 공동저서 '건축이란 무엇인가'의 출간에 맞춰 기획된 건축가들의 드로잉 작품 전시	갤러리로 터스		
국내	전시	세계건축도 자전	2006.03.24~ 2006.10.01	건축적 요소에 관심을 가지고 흠을 다투어 온 세계 각국 도예가들의 작품을 전시, 흠을 매체로 건축적 이미지를 보여주어 도예분야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 모색	클레이아 크미술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국내	전시	우리동네의 재발견.명 륜동에서 찾다 전	~2006.03	명륜동 일대를 작은 공공미술관으로 탈바꿈하여 명륜동 주민들로 하여금 일상생활 공간의 매력을 재발견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의 전시	명륜동 일대		
국내	전시	건축가의 가구전	2006.03.24~ 2006.04.30	13명의 국내 건축가들이 디자인한 금속가구전	첫대박물 관		
국내	전시 ,세 미나	건축가 알바알토의 전시 및 세미나	2006.03.16~ 2006.04	핀란드 알바알토박물관이 기획, 진행 중인 아시아 순회전의 일환. 알바알토의 1924~1972년 스타일변화를 통한 '공간에 대한 인간적 접근'을 잘 보여주는 전시	분당 코리아디 자인센터	한국디자인진 흥원,주한핀란 드대사관,알바 알토재단,알바 알토박물관,한 국실내건축가 협회	
국내	전시	과거와 현재,미래 를 잇는 장사시설 전시회 개최	2006.04.24~ 2006.07	친환경적이고 공원과 같이 조성된 국내외 장사시설의 사례 전시	건설청 홍보관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국내	전시	anew city-사유를 위한 집	2006.06.16~ 2006.07.05	anew city-집에 관한 사유'전의 두 번째 전시	경기문화 재단제1전 시실	경기문화재단	
국내	전시	김수근 추모 20주기 '지금 여기 : 김수근'전	2006.06.07~ 2006.07.28	김수근씨의 건축업적과 문화활동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까지 아우르는 전시	아르코미 술관전관	김수근문화재 단	
국내	전시	암암암!맛	2006.07.22~	과자를 사용해 아이들에게 보다 쉽게	세종문화		

구분	행사 구분	행사명	기간	행사개요	장소	주최	주관
국내	전시	코리안모던 스타일'의 공간적 제시	2007.12	삼성건설레미안에서는 전통적인 형태를 넘어서 차별화된 '코리안 모던 스타일' 을 선보였다.12월에 열린 '디자인코리아2007'의 월드베스트디자인 베스트전에 전시되었던 작품 '코리안 모던 스타일'의 전시공간은 수상되었던 제품을 전시하기 위한 단순한 공간이 아닌 전시공간 자체가 또 다른 한국적 주거문화의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			
		있는 과자건축전	2006.08.20	건축디자인 과정을 이해시키고 하물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	회관 미술관 별관1		
국내	전시	김석환전통 건축사진전	2006.07.31~ 2006.08.31	한국 전통건축의 좋은 느낌	사진쟁이1 019		
국내	전시	헤이리 마스터플랜 전시	2006.09.02~ 2006.10.09	헤이리 마스터플랜 마스터플래너 김홍규;전 개최	한항림갤 러리		
국내	설계 ,전 시	디자인하우 스 창립 30주년 기념'페이 퍼 테이너뮤지 엄'전 개최	2006.09.15~ 2006.12	건축가 반시계루의 설계로 윤경식(한국건축)씨가 함께 진행하는 페이퍼테이너 뮤지엄	올림픽조 각공원	(주)디자인하 우스	
국내	전시	갤러리우덕 건축기획전 '건축가와 타장르예술 가들의소통 -느슨한교 차'	2006.09.15~ 2006.10.04	건축가와 인접 예술장르 작가의 역동적 만남을 주선하는 건축기획전 'CRISS-CROSS: Archi+tists=For(m)oment'	갤러리 우덕	갤러리우덕	
국내	전시	나는 이 건물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전	2006.10.20~ 2006.11.11	마포구 서교동 365번지 일대 건물들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현재 의미를 조명하고 해체가 아닌 재생의 발전 모델을 모색	마포구 서교동 365번지 일대	서교365	
국내	전시	한불수교 120주년 기념 한불 건축 심포지엄 및 기획 건축전	2006.12.06~ 2006.12.10	주제 : 일상의 건축: 프랑스 현대건축의 리얼리즘	코엑스 대서양홀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 회, 한국건축가협 회	대한건 축학회, 삼성물 산 건설부 문
국내	전시	쌔지스페이 스와부기 전 당인리문화 공장	2006.12.22~ 2007.01.10	지난2005년 조각가 홍영인과 건축가 유석연의 공동작업으로 소개되었던 'Art Ventilation Tower - 예술환기를 위한 굴뚝'의 제2부 전시	쌔지스페 이스 전관		
국내	전시	풍경의 집합체:조 성릉도시건 축전시회II	2005.01.26~ 2006.02.27	조성릉도시건축이 지난해 10월의 파주작업전시회에 이어 광주 의재 미술관에서 '풍경의 집합체-조성릉도시건축전시회III'를 개최.건축가 조성릉의 지난 30년간의 작업을 돌아보는 자리로 선유공원,서울올림픽미술관,의재미술관, 해인사프로젝트 등을 비롯한 최근의	광주 의재미술 관		ua-sa(한 국예술 종합학 교sa 도시건 축연구 원),의재 문화재

구분	행사 구분	행사명	기간	행사개요	장소	주최	주관
국내	전시	코리안모던 스타일'의 공간적 제시	2007.12	삼성건설레미안에서는 전통적인 형태를 넘어서 차별화된 '코리안 모던 스타일' 을 선보였다.12월에 열린 '디자인코리아2007'의 월드베스트디자인 베스트전에 전시되었던 작품 '코리안 모던 스타일'의 전시공간은 수상되었던 제품을 전시하기 위한 단순한 공간이 아닌 전시공간 자체가 또 다른 한국적 주거문화의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			
				작업뿐만 아니라 서울아시아선수촌아파트,해운대빌리지, 합정동주택,양재287.3등 1980,90년대 작업도 함께 선보인다.			단
국내	전시	작은소리 열린공간 2005' 전시	2005.02.24~ 2005.02.26	방과 극장 그리고 소리 건축워크숍 함께진행 주제:도시와 극장-교향악적 일상과 건축적 이상/ 방과극장/ 대도시워킹/ 반복과 차이의 아름다움	마로니에 미술관 제1전시실	작은소리열린 공간, 베니스비엔날 레한국관건축 전팀	
국내	전시 ,포 럼	방의 도시 - 2004베니 스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귀국전시회 및 국제포럼	2005.02.23~ 2005.03.06	포럼세부내용:안에서 본 방의 도시(진행:김봉렬),커미셔너(정기용),참여 작가(김광수,송재호,유석연),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영상이미지. 밖에서 본 방의 도시(진행:김성홍),메타포시스와 방의 도시(프란시스코 사닌/이탈리아 플로렌스시리쿠스 건축대학),현대유럽건축의 흐름과 베니스비엔날레(후안 헤레로스/스튜디오 아발로&헤레로스,스페인), 현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건축의 역할(진행:김봉렬+커미셔너+초청건축가4 인)	마로니에 미술관		
국내	전시	건축가 문훈 전	2005.01.17~ 2005.02.05	건축가 문훈씨의 스케치 전시	사간동 갤러리 편도나무		
국내	전시	제3회 생태마을 주택설계 학생공모전 결과발표 및 전시	2005.01.26~ 2005.01.31	주제 : '농산촌 공동체 공간이 마을회관과 주민자치센터를 생태건축 기법으로 설계한다'	지하철4호 선 혜화역 전시장	사.생태산촌만 들기모임	
국내	전시	장 푸르베, 르 꼬르뷔지에 등 프랑스 작가들의 가구 및 건축 디자인 전	2005.02.28~ 2005.03.31	20세기 프랑스 디자인의 모더니즘을 주도한 프랑스 작가들의 가구 및 건축디자인 전시	국제갤러 리		
국내	전시	건축체험전 시'우리집 은 공사중'	2005.03.18~	삼성어린이박물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3월18일부터 건축 체험 전시 '우리집은 공사중'을 시작	삼성어린 이박물관		
국내	전시	청암건축사 진연구소	2005.05.05~ 2005.05.17	청암건축사진연구소의 건축사진강좌를 수료한 APA회원들의 다섯 번째 전시회	지하철4호 선	청암건축사진 연구소	

구분	행사 구분	행사명	기간	행사개요	장소	주최	주관
국내	전시	코리안모던 스타일'의 공간적 제시	2007.12	삼성건설레미안에서는 전통적인 형태를 넘어서 차별화된 '코리안 모던 스타일' 을 선보였다.12월에 열린 '디자인코리아2007'의 월드베스트디자인 베스트전에 전시되었던 작품 '코리안 모던 스타일'의 전시공간은 수상되었던 제품을 전시하기 위한 단순한 공간이 아닌 전시공간 자체가 또 다른 한국적 주거문화의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			
		2005 APA 전시회		주제: A Spaceinthe Space	혜화역 전시장, 인사동 하나아트 갤러리		
국내	전시	건축가 유결,아이 아크 : 5 Weeks 5 Places 전 개최	2005.05.03~ 2005.0.24	건 축가 유결과 아이아크가 5월3일부터 5주동안 다섯 장소를 순회하며 진행하는 5 Weeks 5 Places 전을 개최. 유결씨가 설계 완공한 다섯건물을 선택, 평상시에 개방하지 않는 건축물 자체를 전시공간으로 사용. 밀알학교, 이건창호사옥, 밀레니엄커뮤니티센터, 배제대국제교류관, 경희대 건축전문대학원이 전시장소로 이용됨	밀알학교, 이건창호 사옥,밀레 니엄커뮤 니티센터, 배제대 국제교류 관,경희대 건축전문 대학원		
국내	전시	이란 건축전	2005.06.10~ 2006.07.17	전시기획전문기획사인 (주)리베떼가 주최하고 ARMOCO가 주관하는 전시.'인류 건축문화의 화려한 문명'이라는 제목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근간한 페르시아건축을 소개,이란 고대건축의 모형과 현지 사진작가인 이즈나베의 사진으로 구성.	스타일 큐브 잔다리	(주)리베떼	ARMOC O
국내	전시	더뮤지엄 가을이억어 가는이야기 -발트하우 스	2005.05.03~ 2005.05.04	착공을 앞둔 시점에 발트하우스 설계 진행과정 영상과 스케치, 모형작품을 전시	와이트 월 갤러리	더 뮤지엄	
국내	수상 및 전시	2005 대호건축상 학생공모전 수상식 및 전시회	2005.05.04~	The Glorious Silver' 라는 주제로 열린 공모전 수상 및 전시	울트라 건축 박물관	울트라건설	
국내	전시	제2회 도쿄모모코 리아 디자인공모 전 입상작 전시회	2005.07.01~ 2005.07.09	국군기무사령부 터의 현대미술 · 문화공간으로의 활용 아이디어 제안	인사동 선갤러리		
국내	전시	새로운 세기, 새로운 미술관 전	2005.06.10~ 2005.07.21	지난 10여년간 신축된 전세계 25개 미술관의 건축적 구조와 건립과정을 살펴보는 대규모 건축전시	국립현대 미술관 제1전시실		
국내	전시	Publicly Speaking 전	2005.06.03~ 2005.07.16	작가들이 발전과 재개발, 그리고 세계화가 가속되는 서울과 도쿄 두 거대도시에 각각 두달여동안 체류하면서 지역공간과 공공의 장소를 연구, 제작한 작업을 소개하는 전시	쌔지스페 이스		

구분	행사 구분	행사명	기간	행사개요	장소	주최	주관
국내	전시	코리아모던 스타일'의 공간적 제시	2007.12	삼성건설래미안에서는 전통적인 형태를 넘어서 차별화된 '코리아 모던 스타일' 을 선보였다.12월에 열린 '디자인코리아2007'의 월드베스트디자인 베스트전에 전시되었던 작품 '코리아 모던 스타일'의 전시공간은 수상되었던 제품을 전시하기 위한 단순한 공간이 아닌 전시공간 자체가 또 다른 한국적 주거문화의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			
국내	전시	ATA, 대전의 근대문화제 실측 및 영상,설치 미술 이벤트 개최	2005.06~200 5.12	문화재청이 발주한 '근대건축물 기록화 사업'의 수행으로 대전의 두 건물에서 작품설치 및 이벤트 개최	국립농산 물 품질관리 원 충청지원 과 '구 산업은행 대전지점'	아시아건축연 구실(ATA), 대전시립미술 관	
국내	전시	도시환경과 디자인4-유 니버설디자 인2	2005.09.09~ 2008.10.03	인간을 위한 도시디자인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예술의 전당
국내	전시	광복 60주년 기념 열린미술관 '산책, 건축과 미술' 전 개최	2005.09.23~ 2005.11.20	건축물의 상징적인 이미지와 독특한 공간미가 어우러지는 내부전시, 근대 건축물 기록화 사업과 함께 영상 레이저쇼 진행	대전지방 보훈청 별관	아시아건축연 구실(ATA), 대전시립미술 관	
국내	전시	뉴 스케이프' 전	~2005.09.18	공공장소 안에서 예술은 어떤 새로운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는 것일까에 대한 전시로 8명의 예술가와 건축가들의 다양한 주제와 감각을 볼 수 있음	토탈미술 관		
국내	전시 ,토 론	〈사람의 도시, 어울림〉 전시, 토론마당	2005.09.08~ 2005.09.20	주제 : 사람의 도시, 어울림 - 사람, 도시, 자연의 조화	고양 어울림미 술관	고양문화재단, 사람의 도시 연구소	
국내	전시	알바로 시자 건축전 개최	2005.11.03~ 2005.12.11	포르투갈의 건축가 '알바로 시자'의 건축전 'Alvaro Siza Expor On Display	토탈미술 관		
국내	전시	송재영 건축사진전	2005.10.12~ 2005.10.18	주제 : Construction under Wraps(포장건축)	인사동 토포하우 스		
국내	전시	청계천 복원기념 한독연합 건축전시회	2005.09.28~ 2005.10.04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와 독일 Detmold 소재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건축과 학생들의 공동작업 결과물 전시 (서울과 베를린 양 현장에서 동시진행)	광화문 광화랑		서울시 립대학 교 건축학 부, 독일Uni versity of Applied Science s

구분	행사 구분	행사명	기간	행사개요	장소	주최	주관
국내	전시	코리아모던 스타일'의 공간적 제시	2007.12	삼성건설레미안에서는 전통적인 형태를 넘어서 차별화된 '코리아 모던 스타일' 을 선보였다.12월에 열린 '디자인코리아2007'의 월드베스트디자인 베스트전에 전시되었던 작품 '코리아 모던 스타일'의 전시공간은 수상되었던 제품을 전시하기 위한 단순한 공간이 아닌 전시공간 자체가 또 다른 한국적 주거문화의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			
							건축과
국내	전시	살림출판사 북카페 개관기념 기획전 'spatial line'	2005.11.19~ 2005.12.30	건축가 구승민의 'Cubic Drawing+koossino architecture' 전과 로버트 와키슨 교수의 'whereupon' 전의 공동기획	파주출판 단지 살림출판 사 북카페		
국내	전시	물길따라 생긴 도시건축' 사진전	2005.11.22~ 2005.12.10	건축가 배대승의 유럽 각국 수변공간 및 주변도시건축 사진전	신사동 한글라스 상설전시 장		
국내	전시	2005 국제농촌건 축 및 마을계획 초대작품전	2005.12.14~ 2005.12.20	주제 :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건축 및 마을계획 작품 (계획안 포함)	인사동 경인미술 관	한국농촌건축 학회, 남서울대학교	
국내	전시	송주철-헤 이리 공공 디자인 전	2005.12.03~ 2005.12.30	디자인 개념으로서 단순한 아름다움의 표현이 아니라 장소, 건축, 풍경, 지각과 인식, 그리고 인간의 보편적 행태의 움직임을 근거로 하고 있는 미학을 선보이는 전시	헤이리 모아 갤러리		
국내	전시	제3회 아시아 환경·도시 ·건축디자 인 전시회 2003	2003.12.02~ 2003.12.04, 2003.12.05~ 2003.12.07	아시아 3국(한,중,일)의 도시,단지,건축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아시아의 환경,도시,건축 디자인을 주제로 개최하는 초청전시회	중국 대련도서 관, 심양설계 원전시관		
국내	전시	CTBUH 2004 서울학술대 회	2004.10.10~ 2004.10.14	국제초고층 서울학술대회 전시회	코엑스 컨벤션센 터	CTBUH	대한건 축학회
국내	전시 , 세미 나	독일건축가 헬무트 슈트리플러 전시회와 세미나	2003.12.01~ 2003.12.10	단국대 BK21사업의 일환으로서, 자매결연 맺은 독일 다름슈타트 건축대학과의 협력으로 이뤄진 공동주최행사.	단국대학 교	단국대, 독일 다름슈타트 건축대학	
국내	전시	도시환경과 디자인3-디 자인이 있는 거리	2003.12.20~ 2004.01.25	디자인이 있는 거리' 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국내	전시	Color in Cholam' 전	2003.12.20~ 2004.01.17	경기대 이상구교수가 작년 여름 '철암집짓기' 운동을 촬영한 것으로 철암의 부흥과 소격동 일대 골목길 문화의 부흥을 목적으로.	삼청파출 소와 정독도서 관 뒷골목		
국내	전시	도시·시간 혹은 부산' 사진전	2004.02.05~ 2004.03.21	부제 : 누적없는 혼재된 시간으로서 도시	부산 용두산미 술전시관	부산시립미술 관	

구분	행사 구분	행사명	기간	행사개요	장소	주최	주관
국내	전시	코리안모던 스타일'의 공간적 제시	2007.12	삼성건설레미안에서는 전통적인 형태를 넘어서 차별화된 '코리안 모던 스타일' 을 선보였다.12월에 열린 '디자인코리아2007'의 월드베스트디자인 베스트전에 전시되었던 작품 '코리안 모던 스타일'의 전시공간은 수상되었던 제품을 전시하기 위한 단순한 공간이 아닌 전시공간 자체가 또 다른 한국적 주거문화의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			
국내	전시	민현식 · 송 효상 미주전시회 서울전	2004.04.02~ 2005.05.01	지난해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메이어스홀 에서열렸던 두건축가의 전시에 대한 귀국기념전 주제:비어있음	대학로 췌대박물관	한국예술종합 학교, 서울건축학교	
국내	전시	모아갤러리 개관기념전 시 '자연,예술 그리고건축 '	2004.04.10~ 2004.04.24	노르웨이의 세계적 판화가 테르예 리스버그와 건축가 우경국씨 초대	헤이리 모아 갤러리		
국내	전시	김낙춘교수 의 '건축 · 유 화전'	2004.04.07~ 2004.04.13	세계속의 건축물을 유화로 표현	충북대학 교 개신문화 관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국내	전시	바다도시와 해상공단 : 진저우-인 천-베니스' 전시 및 심포지엄	2004.05.05~ 2004.05.11	진저우시의 도시계획을 담은 건축전시회, 미래의 해상도시 연합에 대한 30명의 설계안을 모은 것,국제심포지엄(5.11)	인사아트 센터, 명지빌딩 컨퍼런스 홀	인천광역시, 진저우시	명지대 건축대 학, 베니스 건축대 학
국내	전시	2004 민현식 · 송 효상 미주전시회 '비움의 구축' 부산전	2004.05.24~ 2004.06.06	비어있음'을 주제로 한 이 전시회는 서울에 이에 부산에서 전시함	부산 민주공원 전시실	정암재단	
국내	전시	APA 건축 사진전	2004.06.09~ 2004.06.13	주제 : 인간+자연+건축	중구문화 원	청암건축사진 연구소	
국내	전시	나는야! 꼬마 건축가' 전	2004.07.27~ 2004.08.13	어린이 건축교육 프로그램의 결과물 전시	아티누스 갤러리	K12 건축교육모임	아티누 스
국내	전시	서부접경지 역을 평화특구로 ' 설계전시회	2004.09.11~ 2004.09.26	서부접경지역(고양-김포-파주-개성)을 평화특구로 만들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인 건축적 작업을 전시	헤이리 커뮤니티 하우스	경기개발연구 원, 예술마을헤이 리 (후원)	새건축 사협회, 서울건 축학교
국내	전시	조성룡도시 건축 파주작업 건축전시회	2004.10.15~ 2004.10.24	2004 파주 어린이 책 한마당' 행사가간동안 전시회 개최	파주출판 단지 내 도서출판 동녘	조성룡도시건 축연구소	
국내	전시	간삼건축아 트센터개관 전 '인간,시간 그리고공간 '-건축과조	2004.10.11~ 2004.11.11	26명의 구상조각가들의 조각작품과 건축물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전시	간삼파트 너스 사옥	(주)간삼파트너 스종합건축사 사무소	

구분	행사 구분	행사명	기간	행사개요	장소	주최	주관
국내	전시	코리안모던 스타일'의 공간적 제시	2007.12	삼성건설래미안에서는 전통적인 형태를 넘어서 차별화된 '코리안 모던 스타일' 을 선보였다.12월에 열린 '디자인코리아2007'의 월드베스트디자인 베스트전에 전시되었던 작품.'코리안 모던 스타일'의 전시공간은 수상되었던 제품을 전시하기 위한 단순한 공간이 아닌 전시공간 자체가 또 다른 한국적 주거문화의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			
		각의만남					
국내	전시	개관기획전 '뮤지-움?: 다원성의 교류 전'	2004.10.19~ 2005.04.09	삼성미술관 리움의 설계를 맡은 렘 쿨하스, 장 누벨, 마리오 보타의 건축언어와 예술세계를 살펴보는 전시	아동교육 문화센터 블랙박스	삼성미술관	
국내	전시	새건협 신인건축가 발굴전	2004.11.13~ 2004.11.18	제1,2회 수상자 및 건축가들의 작품 전시	대학로 첫대박물 관	새건협	

〈부록표 4-2〉 해외진출전시

구분	행사 구분	행사명	기간	행사개요	장소	주최	주관
해외	공모	ENYA 비엔날레 공모전 수상적 전시회	2008.07.17	2008ENYA비엔날레 공모전 수상적 전시회가 AIA뉴욕지부/건축센터에서 열렸다.뉴욕신진건축가위원회주최로 올해로 세번째 열린 이번 사우스스트리드 항구 공모전은 루스벨트 아일랜드 남단을 대상으로 역사적인 전통과 급변하는 맨해튼의 형이상학적이며 실질저거인 연결을 꾀하고자 했다.한국인 그룹N.E.E.D.RK '피시워크'라는 작품으로 1등수상,학생부분 홍규선'내륙부두'대상	AIA뉴욕지 부/건축센 터	뉴욕신진건 축가위원회 (ENYA)	
해외	설계	넥스트-진, 국제 프로젝트	2008.07~209. 12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수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타이베이 동북연안 국립공원 지역에 20채의 주택을 짓는 프로젝트. 참여건축가: 서혜림(한국),장용호(중국/미국),줄리안 드스메트(덴마크),그래프트(독일),히라타 아키히사(일본),laN+(이탈리아),쿠마 겐코(일본),페르난도메니스(스페인),모리 토쉬코(일본/미국),mvrdrv(네덜란드),대만 건축가(공수창,데이빗 춘-테이 청,크리스 야오,제이 윈-치예호 추,카일 치아-카이 양,썬-이 첸,어빙 형-휘 황,레이 첸,헝-유안 황,유-팅 류.	타이베이 동부연안 국립공원 지역	타이니엔 류	
해외	전시	〈S(e)OUL SCAPE〉 전	2008.01.24~2 008.02.15	초청건축가:김영준,민현식,송효상,이중호,정기용,조성룡,강연:배형민(서울시립대건축과): SESVGallery, 국내주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한국 건축가들의 초청전시	이탈리아 피렌체SE VS Gallery	SEVS Gallery	국내주관: 건축도시 공간연구 소
해외 ,국 내	전시	Dongducheon:A Walk toRemember,A Walk to Envision'전	뉴욕전시:200 7.12.01~2008 .02.24 한국전시:200 8.05	뉴욕신현대미술관의허브프로그램파트너4 개의미술관중하나로서울인사미술공간이 선정.인사미술관은'Dongducheon:A Walk to Remember,A Walk to Envision'의 주제를 내걸로 전시	뉴욕 신 현대미술 관	New Museum of Contempo rary Art,NY	한국문화 예술위원 회 인사미술 관
해외	전시	메가시티 네트워크 2007 프랑크푸르 트 한국현대건 축전	2007.12.07~2 008.02.10	한국도시와농촌의리얼티를창의적으로건 축화한33개의작품이2007년12월프랑크푸 르트독일건축박물관에서선보임.독일프랑 크푸르트의공공박물관이초청하고한국이 기획하는최초의해외그룹전. 건축가17인의전통한옥과고층주택,교회와 상점건축,사무소와공공건축,미술관과도서관,병원과경기장,도시과폐광촌마을등다양 한건축유형과배경을보여줌	프랑크푸 르트 독일건축 박물관		(사)새건 축사협회
해외	전시	상파울루 국제건축비 엔날레 : 건축,공공 성,사유성	2007.11.10~2 007.12.16	The Public and the Private'라는 주제로 참여 건축가들은 공공공간과 사유공간의 진정한 의미와 둘사이의 경계 및 관계에 대한 논의를 벌일 예정 - 최문규씨가 초대작가로 초대되어 '쌈지길'전시	상파울루	상파울루 비엔날레 재단,브라 질 건축가 협회	
해외	전시	한국의	2007.04.02~2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지원하는 이 전시는	핀란드		

구분	행사 구분	행사명	기간	행사개요	장소	주최	주관
		집,생활방 식 전	007.12.31	한국의 문화와 예술이 잘 알려지지 않은 북유럽에 한국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한 디자인, 문화, 예술을 소개함. (큐레이터 안애경)	국립문화 박물관		
해외	전시	그라츠콘스 트하우스, 파주출판도 시 전시 개최	2006.01.12~2 06.01.25	파주출판단지의 건축작업을 담은 전시	오스트리 아 그라츠 콘스트하 우스		
해외	전시	제2회 베이징 건축비엔날 레 개최	2006.09.26~2 006.10.06	City and Architecture: Resources, Efficiency and Environment Friendiness' 를 주요 테마로 세계 곳곳의 도시계획, 건축, 부동산, 최첨단 기술에 관한 건축전시회, 한국의 김주령씨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지역 건축가작업 부문의 커미셔너로 참여	베이징		
해외	전시	건축가 김종성, 아에데스갤 러리 건축전시 개최	2006.10.28~2 006.12.03	베를린의 건축전문개러리 아에데스에서 (주)서울건축과 김종성의 건축작품 전시회 개최 '구축적 논리와 공간적 상상력' 전	베를린 아에데스 갤러리		
해외	전시	관계 현상의 미학-우경 국전	2006.11.17~2 006.12.02	던디 건축대학이 한국과의 건축문화 교류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우경국씨의 작품 15점 전시	영국 스코틀랜 드 던디 로워포이 어 갤러리(Low er Foyer Gallery)		
해외	세미 나, 전시	한일주택건 축 세미나 및 전시	2006.11.08	역사가 숨쉬는 현대 건축'이라는 주제로 일본건축가협회가 주최, 한국 건축가 민규암, 김효만, 김현, 임재용, 권문성 씨 참가	오사카 중앙홀,아 반자홀	일본건축가 협회	
해외	전시	건축가김효 만,뉴욕The GoodLife 전 참가	2006.09.08~2 006.10.01	굿 라이프 : 여가를 위한 새로운 공공공간' 전시회에 김효만씨의 공공프로젝트 계획안 '플로팅 파크' 초대	뉴욕 허드슨리 버파크 갤러리	뉴욕 반알렌인스 티튜트	
해외	전시	베를린 아에데스갤 러리 승효상·파 주출판도시 전시	2005.09.23~2 005.11.03	2005 베를린 아시아-태평양 주간, 한국'의 일환으로 '컬처스케이프'라는 주제로 승효상 씨의 전시와 파주출판도시에 관한 전시가 열림	독일 베를린 아에데스 갤러리		베를린 아에데스 갤러리
해외	전시	이타미 준, 아에데스 갤러리 초청전	2004.03.26~2 004.05.02	건축가 이타미 준의 동양적 감성을 담은 그동안의 미술작품과 건축작업을 중심으로 한 전시회	베를린 아에데스 갤러리		

〈부록표 4-3〉 학교전시

구분	행사 구분	행사명	기간	행사개요	장소	주최	주관
국내	전시 ,위 크샷 ,기 타	공동주거의 새로운 중: 전체론적인 삶 NEW HOUSING BREEDS:LIFE HOLISTIC	2007.10~20 08.02	2007년가을학기예건국대학교건 축전문대학원과 코넬대학교가 함동으로 '공동주거의 세로운중:전체론적인 삶'이란 주제로 프로젝트 진행, 프로젝트의 주제인 '공동주거의 새로운 중:전체론적인 삶'은 기능적으로 분절된 단지와 단위세대들,격리된 부대시설들을 지양하고 자연의 요소인 바람과 비와 풀 향기와 이웃들이 교류하는 상생상락을 기본으로 한다.	전시:코오롱 본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 학원,코넬대 학교	
국내	전시	봄여름가을겨울 - 're'	2008.02.13! 2008.02.16	홍익대학교 건축연구회 봄여름가을겨울은 're'라는 문구아래 제5회 전시회를 개최,연구회 회원들의 프로젝트 작품들과 단어 're'를 재정의 내린 회원들의 작품들을 전시	혜화역 내 혜화전시관		
국내	전시	제1회 전국건축대학 졸업작품전	2007.04.23~ 2007.05.25		구 서울역사	한국 건축가협회	
국내	전시	아키에코 비엔날레	2007.05.28~ 2007.06.06	홍익대 조치원캠퍼스 건축공학부 설계전공에서 캠퍼스와 인접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해, 관련 분야와의 교류를 통해 사유를 넓히고자 마련된 비엔날레. 친환경을 주제로 학생, 교강사 및 동문들을 비롯하여 건축인들과 일반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장 마련	홍익대학교 조치원캠퍼 스		
국내	전시	2007년도 대한건축학회학 생작품전	2007.09.10~ 2007.10.27		충북대학교 학술발표회 장	대한건축학 회	
국내	전시	경원대학교 건축학과 제21회졸업전시 회	2007.10.31~ 2007.11.3		경원대학교 창조관1층 전시장		
국내	전시	한양대 -국립싱가폴대 2005 공동프로젝트 전시회	2005.12.05~ 2005.12.07		청계천 문화관	한양대 건축학과	
국내	전시	국민대학교 '루에디 바우어'전	2006.09.15~ 2006.10.29		제로원디자 인센터	국민대학교 제로원디자 인센터,UIT 디자인컴페 니언센터	
국내	전시	2006년 연세대학교 졸업작품전시회	2006.09.04		연세대학교 제3공학과, 아트리움		
국내	전시	제12회	2006.10.09~ 2006.10.13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구분	행사 구분	행사명	기간	행사개요	장소	주최	주관
		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졸업전시회			와우캠퍼스 문헌관		건축공학부
국내	전시 ,세 미나	경원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전 및 세미나	2006.10.19~ 2006.10.24		경원대학교 창조관,새롭 관		
국내	전시	HYU-NUS 국제공동프로젝 트 전시회	2004.12.06~ 2004.12.08	한양대 건축학부와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건축대학의 국제공동프로젝트 '청계천 복원 및 세운상가 개발에 관한 도시계획과 건축물' 전시 및 심포지엄	서울파이낸 스센터 갤러리 코리아	한양대학교	
국내	전시	연세-하버드 아트콘 스튜디오 전시회	2005.05.16~ 2005.05.21	연세대의 예술+컨벤션+체육 복합시설을 계획하는 한 과정으로 하버드 디자인대학원 렘 쿨하스 교수의 정사회를 가짐.	연세대학교 공학원 아트리움	연세대 건축공학과 대학원	
국내	전시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창립 20주년 졸업작품 전시회	2005.05.30~ 2005.06.14	교내전시(5.30~6.7) 교외전시(6.8~6.17)	중앙대 안성캠퍼스 도서관, 세종문화회 관 광화문갤러 리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국내	전시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41주년 기념전시 및 강연회	2005.09.08~ 2005.09.13	주제 : 공감통(空感通)	고려대 100주년기념 관	고려대학교	
국내	전시	제9회 이화 건축전	2005.09.07~ 2005.09.13		이화여대 학생문화관 전시실	이화여대 공과대학 건축학과	
국내	전시	청계천 복원기념 한독연합 건축전시회	2005.09.28~ 2005.10.04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와 독일 Detmold 소재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건축과 학생들의 공동작업 결과물 전시 (서울과 베를린 양 현장에서 동시진행)	광화문 광화랑		서울시립대 학교 건축학부, 독일Univer sity of Applied Sciences 건축과
국내	전시	남서울 건축전 개최	2005.11.01~ 2005.11.14	학과개설 10주년을 맞아 '지나온 10년, 지나갈 10년'이라는 주제로 전시 및 초청강연 개최	서울옥션 센터(전시), 남서울 대학교	남서울 대학교	
국내	전시	한국예술종합학 교 건축전	2005.12.12~ 2005.12.17	주제 : HYPERPOLIS_광주	Gallery 175	한국예술중 합학교	
국내	전시	한양대 -싱가폴국립대 국제공동프로젝 트 전시	2003.12.18	한양대와 싱가포르국립대의 교환학생제도로 두 학교 학생들이 모여 청계천을 중심으로 한 8주간의 프로젝트 결과물 전시	서울파이낸 스센터 갤러리코리 아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국내	전시	연세대 도시단지개발디 자인 작품전	2004.05.04~ 2004.05.09	주제 : macro & micro	조선일보미 술관	연세대도시 공학과	
국내	전시	하버드대 청계천 도시설계	1차2004.04. 24~2004.04.	주제:되살아난청계천 '서울의재조명'이라는주제로하	공간갤러리, 시청앞	(주) 크레폴리오	

구분	행사 구분	행사명	기간	행사개요	장소	주최	주관
		스튜디오 작품전	30 2차2004.05. 01~2004.05. 09	버드대학교제휴연구를추진해온 한국의디자인개발회사(주)크레폴 리오의주선으로이루어진하버드 대'청계천스튜디오'의연구내용	지하보도 전시장		
국내	전시	홍익건축 50주년 기념 전시	2004.10.01~ 2004.10.06	학과창설 50주년 맞이하여 동문 및 재학생들의 작품 전시회 개최	서울 국제디자인 플라자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국내	전시	국민대 30주년 기념 제11회 건축전	2004.10.08~ 2004.10.13	전시명 : 세컨드 모더니티	대학로 국제디자인 센터	국민대학교 건축학과	
국내	전시	홍익대 건축공학과 제10회 전시회	2004.11.02~ 2004.11.06	주제 : 지속성(시니어), 청계천복원계획(주니어)	홍익대 와우캠퍼스 현대미술관	홍익대 건축공학과	
국내	전시	공주대 건축공학부 건축작품전	2004.11.08~ 2004.11.09		공주대학 연구관	공주대 건축공학부	
국내	전시 및 강연	연세대 주거환경학과 전시회 및 초청강연	2004.11.11~ 2004.11.16	강연 : 한국전통주거변천사(김홍식), Ground Scape(최육)	신촌 아트레온갤 러리	연세대 주거 환경학과	
국내	전시 및 강연	한남대 건축학부 창립20주년 기념행사	2004.12.01~ 2004.11.07	한남건축전과 초청강연시리즈로 나누어 행사	국립중앙과 학관, 대전엑스포 국제회의장	한남대 건축학부	
국내	전시	2004년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전시회	2004.12.15~ 2004.12.19		서울국제디 자인프라자	경기대학교 건축전문 대학원	

〈부록표 4-4〉 박람회

구분	행사 구분	행사명	기간	행사개요	장소	주최	주관
국내	전시	제10회 조선일보 홈덱스 2008개최	2008.05.01~ 2008.05.05	2008년 5월1일부터 5일까지 친환경,첨단,명품,건축박람회 인 '조선일보 홈덱스 2008'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가족의 행복을 위한 미래형 주거 공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가족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상을 담아낸 다양한 기획전시관과 전시제품을 준비	코엑스	조선일보	코엑스, 홈덱스
국내	전시	제17회 MBC건축박람회	2007.02.01~ 2007.02.05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제17회 건축박람회가 2월1일부터 5일까지 SETEC에서 열림	SETEC		동아 전람
국내	전시	2007하우징브랜 드페어 김영옥씨 특별전시'Bath Bar'					
국내	전시	2007 부산국제건축문 화제	2007.10.10~ 2007.10.16	〈PORT CITY-가능성의 도시 부산〉이란 주제로 개최된 2007부산국제건축문화제, 세계실내건축가연맹총회,디자 인대회작품전시,건축작품전시, 경향하우징페어, 다니엘 리베스트킨트 초청강연회	BEXCO		부산광 역시, (사)부산 국제 건축 문화제
국내	전시	제15회동아전람- MBC건축박람회	2006.02.02~ 2006.02.06		서울무역 전시장		
국내	전시	제2회 동아 빌딩,리모델링,전 원주택박람회	2006.04.13~ 2006.04.16		코엑스	(주) 동아전람	
국내	전시	한국건축산업대 전	2006.09.13~ 2006.09.17		코엑스	대한건축 사협회	
국내	전시	제16회 동아전람-MBC 건축박람회	2006.08.17~ 2006.08.21		코엑스 및 옥외전시장		(주)동아 전람
국내	전시	부산 리빙&하우징 엑스포 2007	2007.04.05~ 2007.04.08		BEXCO	KNN,코 리아타임 스	BEXCO ,메세코 리아
국내	전시	2005동아리모델 링,빌딩 박람회	2005.04.07~ 2005.04.10		코엑스		동아전 람
국내	전시	미래형 홈디자인 트랜드 전시 '더 뮤지엄'	2005.02.25~ 2005.03.02	삼성동 코엑스에서 '더 뮤지엄 전'이 개최,올해로 20주년을 맞는 경향하우징페어의 특별전시행사로 마련된 이 전시는 미래주거경향을 짚어볼수 있는 주거문화 체험장이다.'미니멀 내추럴리즘'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전시에는 유정환,강신재,유이화씨가 각각 거실,욕실,침실,주방등의 공간을 맡아 선보임.	코엑스		

구분	행사 구분	행사명	기간	행사개요	장소	주최	주관
국내	전시	제5회 친환경리모델링 페어 2005	2005.06.15~ 2005.06.18		코엑스 3층 대서양관		한국경 제신문
국내	전시	제14회 MBC 건축박람회	2005.08.18~ 2005.08.22		서울무역 전시장		
국내	전시	2005 경남주택건축문 화박람회	2005.10.13~ 2005.10.16	경남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박람회	창원전시 컨벤션센 터	경남신문, (주)다인커 뮤니케이 션	
국내	전시	제8회 홈덱스 2006, 제1회 건강주택박람회 동시 개최	2006.01.11~ 2006.01.15		코엑스 태평양홀	조선일보, 한국건강 주택협회	

〈부록표 4-5〉 건축관련전시

구분	행사 구분	행사명	기간	행사개요	장소	주최	주관
국내	전시	한강프로젝트 II - 25개의 한강다리 전	2008.02.22~ 2008.03.13	사진작가 이득영의 전시로 갤러리 쿤스트독에서 2008년2월22일 부터 3월13일까지 개최.한강다리 25개를 촬영한 사진의 전시.	갤러리 쿤스트독		
국내	전시	2008세계디자인올 림픽,서울에서 개최	2008.10.10~ 2008.10.31	세계디자인협회가 추진하는 세계디자인올림픽이 10월10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개최,시민과 디자이너가 함께즐기는 축제를 표방하는 올해 세계 디자인올림픽은 서울 디자인컨퍼런스,서울디자인전시회, 서울디자인축제,서우디자인공모전, 서우빛축제등으로 구성.자하 하디드,니콜라스 네그로폰테,필립스타크,마크 제이콥스등이 초청될예정	잠실종합 운동장	세계디자인 연합	
국내	전시	파괴의 재창조의 미학<아이 웨이웨이>전		2008년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 디자인 디렉터로 참여하기도 한 아이웨이웨이의 개인전 이번전시는 그의 다양한 작품 중 2007 카셀도큐멘타에 선보였던 '페어리테일'을 비롯해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시기별 주요작품을 전시	갤러리 현대		
국내	전시	윌름린 공간' 전	2008.04.12~ 2008.05.09	안산 리트머스 갤러리에서 열린 '천대광'의 전시.그가 가진 감성을 목재와 빛을 이용해 풀어내는 전시.	안산 리트머스 갤러리		
국내	전시	<매그넘 코리아>전	~2008.08.24	보도와작품사진분야에서세계적인 명성을얻고있는'매그네포토스"에 서한국을주제로찍은초대형사진전. 매그네키코리아가8월24일까지 개최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국내	전시	단한공간과 열린공간&어두운 방과 밝은 방	2007.01.25~ 2007.02.15	보그'지가 매년 패션학과 졸업 컬렉션 가운데 우수작품을 발굴하여 전시하는 패션관련 전시회. 전시공간 자체를 하나의 컨셉작품으로 설계함	툼보이 'T-space'	보그코리아	
국내	전시	한성필 개인전 (FAÇADE:fa ce-cade) 실재와 재현의 공존	2007.03.08~ 2007.04.11	사진작가 한성필씨의 한국에서 두번째 전시회. 방진막에 새로운 예술 작업들을 보여주는 작품	갤러리 잔다리		
국내	전시	음악과 건축(김영희) 전	2007.04.04~ 2007.04.10	음악에서 오는 음악적 감성과 음악에 사용되는 기호를 건축과 가구 디자인에 접목시킨 전시			
국내	전시	공간의 색채 <안토니 마리노스키Antoni Malinowski> 전	2007.05.20~ 2007.05.27	회화와 건축의 공간 안에서 표현되어지며, 일시적인 것과 영속적인 것들을 캔버스와 벽, 도로, 천장과 스트리팅 보드위에 만들어내는 안토니 마리노스키의 작품 전시	명상박물관		
국내	전시	scape전	2007.07.13~ 2007.09.16	주제: 사라모리스,김성수,신지 오마키,이호인등 4인의 작가가	몽인 아트센터		

구분	행사 구분	행사명	기간	행사개요	장소	주최	주관
				제시하는 풍경에 대한 고찰			
국내	전시	2007대전FAST_Mosaic City	2007.07.25~ 2007.10.07	과학과 문화, 역사와 미래 등 현대 도시를 이루고 있는 여러 조각들이 제각기 자신의 빛으로 반짝이면서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는 '모자이크 시티' 전시	대전 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 술관,동춘 당,구 농산물품질 관리원	
국내	전시	〈도시회화의 행방〉전	2007.11.28~ 2007.12.08	2006년 3월 한전프라자갤러리에서 있었던 〈장면들-도시회화전〉이은 두번째 전시,근 2년간의 작품의 변화 과정을 추적해보면서 작가 8인이 바라보는 한국 도시의 근대성과 시각성을 되짚어 봄	신한갤러리		
국내	전시	공원'사진전 서울올림픽미술관서 개최	2005.12.09~ 2006.02.19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조성된 올림픽공원을 통해 공원의 현대적 의미를 짚어보고자 하는 전시	서울올림픽 미술관 재1-5전시 실		
국내	전시	도시의 전설:공간호리기'	2006.06.13~ 2006.08.03	쌈지스페이스의 제6회 연례 국제교류전, 베를린의 대안공간 쉴켈-프로그레시브 레지던시와 공동으로 작업한 프로젝트 전시	쌈지 스페이스	쌈지스페이 스	
국내	전시	도시공학가가 그린 '가든 스토리'전(원제무:한 양대 도시공학과)	2006.09.15~ 2006.09.28	원제무씨가 'Garden Story'라는 주제로 두번째 개인전을 가짐	세오갤러리		
국내	전시	도시를그리는 디자이너,루에디 바우전	2006.08.14~ 2006.09.17	퐁피두센터 비주얼 아이덴티티, 대 리옹 프로젝트 등 프랑스 공공디자인 정책에 적극 참여하며 이상적인 사례를 남긴 바우어 초청 전시	제로원디자 인센터2층	제로원 디자인센터	
국내	전시	일상의 기호' 전	~2005.08.10	미술계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가, 사진작가들을 통해 내부와 외부의 소통을 시도한 2005 '일상의 기호'전은 예술적 가치와 현실의 접목점을 상호 상승시키고자 기획된 전시	아트 스페이스		서울문화 재단 (후원)
국내	전시	제5회광주비엔날레	2004.09.10~ 2004.11.13	주제 : 먼지 한 톨 물 한 방울	광주시 중외공원 문화예술벨 트 일대	(재)광주비 엔날레, 광주광역시	